

민수기 1장

- 출애굽한 후 13개월(정확하게는 12개월 보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었고 교육을 받았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두 달 걸렸으니(출 19:1) 17개월 동안 성막을 지었고(출 40:17, 2년 1월 1일) 한 달간 교육을 받았다. 성막을 완성한 것은 한 달 전이다.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 입구, 즉 모압 광야에 이르는 과정을 소개한다.
- 애굽에서 그토록 어렵게 탈출했는데 빨리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왜 여기서 근 1년 동안 미적거리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이 우선이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여기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그 후 38년이나 체험을 하고 들어가서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데 가나안으로 바로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비근한 예로 8.15 해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죽 썬서 개주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 본서의 명칭은 70인역을 따라서 '민수기'라고 불리지만 맛소라 사본은 '광야에서(베미드바라)라고 불렀다. 광야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일까? 하긴 광야교회라는 말도 있으니(행 7:38)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기 어려운 곳이다. 식량을 전혀 조달할 수 없는 죽음의 땅에서 200만이 넘는 민족이 살아가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광야에 세워진 회막은 죽음의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뜻에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은 일리가 있다.
- 회막(會幕)은 성막(聖幕, 출 26:9, 민 9:17), 장막(帳幕)과 혼용되는 말이다. 거룩한 곳이니 성막이고, 천막처럼 이동할 수 있어서 장막이다. 그렇다면 회막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뭘까?
회중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란 뜻: 회막은 성막이나 장막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오헬)에 회중(모에드)을 뜻하는 말이 붙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만나는 장소란 뜻이다. 거룩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 도무지 함께 할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인생임에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바로 회막이다.
-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을 해아릴 때 여자와 아이들은 수에 넣지 않았다고 한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본문에서 특별한 이유를 찾는다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했기 때문(3):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자가 가족의 대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결코 여자와 아이의 인격을 무시한 탓이 아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부부는 주종관계가 아님에도 남편이 대표성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이 많다.
- 나이만 20세가 넘으면 계수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사람 취급을 받으려면 나이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한가?
싸움에 나갈만한 체력(3):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다. 전쟁을 위한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당연해 보인다. 여차피 하나님께서 이 기계 하시는 전쟁인데 체력이 뭐 그리 중요할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반드시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 성도는 대장이 부르면 언제든 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 병사와 같다.
- 아무리 능력 있는 지도자라 해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는 없는 법이다.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군대 지도자 모세에게 누가 참모 노릇을 하는가?
각 지파의 두령들(4): 직접 이름을 불러가며 인원수를 확인하는 일은 각 지파의 두령들(족장)이 했다. 가정, 교회, 회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적절하게 일을 분배하고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함께 설 사람(5)이 필요하다.
- 각 지파의 두령들은 전부 몇 명인가?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았으니...(47)
12명: 레위를 빼는 대신 요셉 지파가 둘(므낏세, 에브라임)로 나뉘어 한 지파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12 지파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기 때문이다(창 48:5)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을 그리워하며...
- 각 지파의 두령들의 이름에서 대체적인 공통점이 있는지 찾아보자.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들어있다(엘리셀, 슬루미엘, 느다넬, 엘리압, 엘리사마, 가말리엘, 바기엘, 엘리아삽): 12명 중에 8명이니까 대단히 많은 것이다. 이들은 애굽에서 압제받던 시절에 태어났다. 그 때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시절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기 전에도 이들의 삶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관련된 삶이었음을 보여준다. 복이다! 노아의 아들 셈이 받은 복이며, 하나님께 부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신도 모른 채 받은 복이다!
-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군중이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회중이라고 하는 것(2, 16)은 이 단어가 특별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증거, 증인, 약속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

님으로부터 부름 받은(약속을 받은) 무리라는 말이다. 그러면 회중에서 부름 받은 자(16)는 부름 받은 자 중에서 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부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현대적 용어는 무엇인가?

교회: 부름 받아 나와서 모인 무리라는 뜻이다. 계시록의 7교회가 있던 곳을 안내하러 가이드가 '교회가 어디에서 있었느냐?'고 묻는 관광객의 질문에 '초대교회는 교물이 아니란 것 아시죠?' 했다. 정말 그랬다. 교회는 교물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특별히 부름을 받고 응답한 무리를 가리키는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11. 언제 이스라엘이 천만인이나 됐지?

문자적으로는 천 명이란 뜻인데 상징적으로 '많은 무리'란 뜻이다. 그들에게 부과된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다. 아이를 몇 명 데리고 있는 교사나 조그마한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도 바로 이 '천만인의 두령'이라는 심정을 가져야 한다.

12. 자기 계통을 말한다(18)는 것은 자기 족보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뜻이다. 군사로 등록할 때에 어느 지파 어느 문중인지를 확인하고 지파나 문중별로 등록했다는 말이다. 그러면 부대 이름도 가족이나 문중의 어른 이름을 따서 붙이면 되겠다. 문제는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나온 중대한 잡족(출 12:38)은 어떻게 되나?

군사의 자격이 없는 셈이다: 중대한 잡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잡무에 종사할 수는 있어도(신 29:11 참고)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전쟁에 참가할 수는 없었다. 이런 일에는 신분이 분명한 사람만 나서야 한다.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곳이 군대라는 인식이 들면 나라가 흔들리는 징조다. 로마가 가장 강성하던 시절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귀족을 위시하여 로마시민들이 전쟁에 나갔다. 반면에 노예나 무산자는 원칙적으로 전쟁에 나갈 자격이 없었다.

13.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20-46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는 46,500, 시므온 59,300, 갓 45,650, 유다 74,600, 잇사갈 54,400, 스불론 57,400, 에브라임 40,500, 므낫세 32,200, 베냐민 35,400, 단 62,700, 아셀 41,500, 납달리 53,400 명(합 603,550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단순하게 지파별 숫자만 가르쳐 주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표현의 반복일 지라도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음미하라는 것이다. 졸업식장에서 졸업장을 나눠줄 때 대표 한 사람만 불러내서 주는 수도 있는데 어떤 교장은 졸업생 전원과 일일이 악수하고 한 사람씩 나눠주는 바람에 졸업식이 무척 길어지기도 한다. 구경꾼이야 지루하겠지만 정작 어렵게 졸업을 맞이한 사람에게는 감동일 수 있다. 구경꾼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에게 부름 받은 감격으로 읽어보자.

참고로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3,550명이었다(46). 이 숫자는 대략 9개월 전 성막 건축을 위한 속전 대상자를 파악한 것(출 38:26)과 동일하다.

14. 군대를 편성하는 지파별 순서는 무슨 기준에 따른 것일까? 인원수 별? 아니면 조상들의 나이 순? (정답은 2장에 있음)

12 지파를 다시 네 부대로 편성할 때의 순서(2장):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이 때로는 나이순, 때로는 어머니의 순서로 나오기도 한다. 여기서는 군대편성에 따른 순서다. 순서대로 세 지파씩 묶으면 성막의 동서남북에 배치하게 되는 부대가 된다.

15. 야곱의 예언과 12 지파의 인구수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축복을 받은 지파(유다, 요셉)는 인구가 많다. 저주를 받은 지파(르우벤, 시므온)도 인구가 적지 않다: 수학적으로는 '별로 상관없다'는 게 답이 되겠지만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저주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니 복은 1000대에, 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야곱의 예언은 무효인가?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16. 레위인이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다는 말(47)은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뜻이다. 좋겠다?

우리나라에서 병역이 면제되는 것과는 개념이 많이 다르다.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여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군대라면? 싸우는 쪽쪽 이기는 군대라면? 다른 사람은 들고 싶어도 들지 못하는 군대라면? 이런 병역에서 면제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좋기만 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일이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동일하게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는 일과 장로가 되어 교회를 섬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 이런 논쟁을 벌이는 사람이 어리석다.

17. 그러면 레위 지파는 아예 몇 명인지 모르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은 민수기 3장을 미리 읽어 보시라!

18. 거룩하다고 성막, 이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장막,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회막이라 부르더니 이제는 왜 또 증거막이라고 부를까? 무엇을 증거하는 걸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사랑, 거룩, 공의):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 즉 지성소의 핵심에는 법궤가 있고 그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성품,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증거막이라고 불릴 때는 율법, 계명, 규례와 관련이 있다.

19. 군대 조직으로 말하자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친위대인 셈이다. 이들이 맡은 일을 세 단어로 요약해 보자(50-53).

관리(=봉사) 운반, 수비: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제사와 교육이지만 그것은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맡게 되고 일반 레위인들이 맡은 일은 성막 주변에서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이며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동안에는 운반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의 장래사에 대해서 거의 저주와 같은 예언을 했는데 레위인들은 오히려 가장 귀중한 사명을 맡았다. 가장 주된 이유는 우상숭배자들을 처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기 때문이다(출 32:25-29).

20. 레위인들이 맡은 역할(50-53)을 오늘의 현실에 비추면 누구와 비슷할까?

교회당을 돌보는 사찰 집사 정도로 여기지는 말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를 가리키는 말이다. 교회(=성도들)를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빌 2:4). 성도는 하나님의 친위대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관리하고 지켜야 한다.

21. 50-53절을 잘 보면 백성들이 이동하여 거주할 곳에 다다르면 세워야 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무엇인지 찾아보자.

성막(51) 레위인의 진(50), 이스라엘 자손의 막(=진, 52) 성막을 세우고 그 주위를 레위인들이 진을 세워 둘러막는다. 외인의 접근을 막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그 바깥에 백성들이 자신들의 막을 세운다. 성막이 백성들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을 잘 보여준다.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찾아보자.

4번(1, 19, 48, 54): 성경 전체가 그러하지만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백성에게 전했다는 뿐이다.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그 일을 기획하고, 실천에 옮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말한다(히 3:5).

민수기 2장

1. 이스라엘은 회막을 중심으로 지파별 기와, 종족별 깃발을 세우고 회막을 마주보고 진을 쳤다(2) 이렇게 진을 친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거주 형태를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어야 하고, 군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최고 지휘관은 하나님이심을 뜻한다. 전장에 나간 부대가 숙영지를 고정한 모습, 혹은 분봉하여 나간 별이 여왕별을 중심으로 폴폴 뭉친 모습을 연상시킨다. 차이점이 있다면 회막을 빙 둘러서 친위대 격인 레위족이 진을 치고 그 바깥 사방에 12 지파가 진을 쳤다.

2. 소개하는 순서는 동서남북이 아니고 동남서북이다. 이게 무슨 순서인가?

동쪽에서 출발해서 회막을 한 바퀴 도는 순서: 동시에 행군하는 순서이기도 하다(34).

3. 12 지파를 몇 개의 부대로 편성하여 어떻게 배치하였는가?

4개 부대를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 배치하였음: 가쪽까지 딸린 거대한 부대가 이런 식으로 진을 친다는 것은 웬만큼 넓은 광야라고 해도 불가능해 보인다. 진을 치는 것은 고사하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4. 야곱의 부인들이 낳은 자녀들을 어머니 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각 진영이 어떤 원리로 4개의 부대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자.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
| 레아 | 르우벤 | 시므온 | 레위 | 유다 | | | | | 잇사갈 | 스불론 | 디나 | | |
| 빌하 | | | | | 단 | 납달리 | | | | | | | |
| 실바 | | | | | | | 갓 | 아셀 | | | | | |
| 라헬 | | | | | | | | | | | | 요셉 | 베냐민 |

모계에 따라 가까운 지파끼리 편성됨: 이러한 배치는 지파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5. 제1대인 동쪽군단은 어느 지파로 구성되었으며 전체는 몇 명인가?

유다, 잇사갈, 스불론 지파로 186,400명: 유다가 제1대의 중심에서 서서 모든 행진과 전투의 선봉에 서게 된다. 야곱의 축복이 서서히 꽃을 피우는 셈이다(창 49:10).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꽃을 피운다. 어려운 때에 앞장서서 가쪽을 살리려고 애쓴 것(창 43-44장)이 결과적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헌신의 기초가 된 셈이다. 이 세 지파는 레아의 아들들이다.

6. 제 일대로 진행하라는 것은 제일 먼저 출발하라는 뜻이다. 용감하게 나서는 사람이야 이런 일에 적합한데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는 인물의 예를 든다면?

갈렙: 나이 85세 때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헤브론을 점령한다(수 14:6-14).

7. 제2대인 남쪽군단은 어느 지파로 구성되었으며 전체는 몇 명인가?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로 151,450명: 레아와 그의 몸종 실바의 자손(갓)들이다. 레위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레위는 다른 임무를 맡아서 빠졌다. 시므온이 섭섭했겠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들 중에서도 단적인 셈이었는데(창 34:25-29, 49:5-7)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달라져서 끝내 압록강과 두만강이 갈라지듯이 갈라지고 말았다.

르우벤은 이런 저런 실수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후대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나마 많은 후손을 두게 하였고 행진에서도 귀중한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하셨다.

8. 행군하는 순서는 1대, 2대, 3대, 4대 순이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가운데(2대와 3대 사이): 그 위치에 회막(정확하게는 성물이 있기 때문이다. 정지해 있을 때나 행군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베토크) 있기를 원하셨다. 머물러 있거나 행진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형태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다. 선두에 법궤가 행진하고(10:33-36), 1대 다음에는 성막(10:7-8), 2대 다음에는 성물(10:21-22)... 이런 순서다. 성물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성막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앞서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행렬을 자세하게 묘사하면 법궤, 1대, 게르손과 므라리(성막부품), 2대, 고탕(성물), 3대, 4대 순이다. 결국 레위인들은 세 곳으로 분산된 채 움직였다.

9. 제3대인 서쪽군단은 어느 지파로 구성되었으며 전체는 몇 명인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로 108,100명: 모두 라헬의 후손인데 야곱이 그렇게 용을 썼음에도 가장 적네! 그럼에도 훗날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로 싸움을 벌일 정도로(삿 8:1-3, 12:1-6, 삿 20장) 자존심도 강한 지파였다.

10. 제3대 뒤에는 바로 제4대가 따라 온다. 그렇다면 제3대의 주 임무가 무엇이이었을까?

바로 앞에 진행하는 성물을 호위하는 임무: 레위 지파가 대통령 경호실이라면 제3대는 수경사령부인 셈이다.

11. 제4대인 북쪽군단은 어느 지파로 구성되었으며 전체는 몇 명인가?

단(빌하의 후손), 아셀(실바의 후손), 납달리(빌하의 후손) 지파로 157,600명: 두 번째로 수가 많다. 후미 방어가 주 임무였다. 막강했던 단 지파(군사 수로 2위)는 후일 12 지파에서 사라지고 만다(계 7:4-8). 주원인은 우상숭배였다(삿 18:1-31).

12.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적이 별로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34절은 참으로 희귀한 예이다.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무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의 민족으로 자라났다.

민수기 3장

1. 1-2장은 행진을 위한 준비를 말한다. 그런 다음 3장에서 레위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

레위만 빼고 다른 12 지파는 조직편성을 마쳤기 때문 = 성막을 중심으로 다른 지파들의 배치가 끝났으니 성막을 맡은 레위 지파의 역할과 조직을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아론과 모세, 모세와 아론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은 표현일까? 거의 모든 경우에 모세와 아론이다(90회 정도). 극히 드물게(6회 정도) 아론과 모세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네 번(출 6:20, 26, 민 26:59, 대상 6:3)의 경우는 나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는(대상 23:13도 동일함) 무슨 이유일까?

아론이 맡은 직분 때문: 아론과 모세는 비교할 필요도 없이 모세가 더 위대하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명을 받아서 그 명을 아론에게 전했다. 아론은 모세의 명을 받아 대언했을 뿐이다. 심지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위임식을 거행한 것도 모세다. 그럼에도 여기서 아론을 먼저 언급한 것은 아론이 대를 이어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점을 인정하는 표현이다(성경 전체에서 2번). 모세를 위대하다고 특별히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다. 역할에 따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3. '모세의 낳은 자'는(1) 어디에 있는가?

본문에 없음: 모세의 자손은 특별한 임무를 맡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는 없는 셈인데 그 아들들(대상 23:14-17)이 평범한 레위인으로 살았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아들은 실제로는 아무런 지위도 없다. 그렇지만 그냥 조용하게 지낼 수 없다. 어떤 이는 소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다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도 있다.

4. 제사장을 세울 때 왜 기름을 발랐을까? 어떤 경우에 기름(관유)을 발랐는지 찾아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

거룩하게 함: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 혹은 구별의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다. 회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에게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출 30:26-30). 나중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관유는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성령을 상징한다(행 10:38). 메시아라는 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5.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해야 할 모든 일은 '위임'된 것이다. 위임받은 자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자신에게 직분을 위임하신 분이 있다는 것: 자신은 결코 주인이 아니다. 주인의 뜻대로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좋은 예가 바로 나답과 아비후다(레 10:1-2). 반드시 '단 위에서 피운 불'만 사용해야 하는 말씀을 어겼다.

6.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여호와 앞'은 복된 곳인가, 아니면 무시무시한 곳인가?

복된 곳: 순한 선생님을 만난 것과 비슷하다. 순한 선생님이 한번 화나면 무서운 선생님보다 더 무섭다. 하나님 앞이란 조금만 잘 해도 크게 복을 받는 곳이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 해도 좋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못하면 벌도 크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7. 레위 지파를 제사장에게 돌리라(9)고도 하고 하나님의 것(12)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누구의 것이라고 할까?

제사장의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일단은 제사장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6-7, 9).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명을 받아 제사장을 섬김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제사장에게 돌려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다. 성도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인가?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일단은 누구의 명을 받아 봉사해야 하는지 자신의 위치를 점검할 필요는 있다.

8. 레위 지파가 수행해야 할 두 가지 직무는 무엇인가?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7): 제사장의 일을 돕는 것과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회막에서 제사장을 도우며 회막의 모든 기구를 돌보면서도(8) 백성들을 위한 임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웃을 돌보아야 함을 보여준다.

9. 제사장 직분을(혹은 성소를) 다른 사람이 침범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셨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본질적인 차이 때문: 죽을 수밖에 없는(=하나님에게 다가 갈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다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다른 길로 들어온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도 하나님이 방식으로!

10. 여기서 외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일까(10)?

레위 지파: 제사장을 돕다가 자칫 잘못하면 제사장의 일을 자신이 해버릴 위험이 있다. 그런 위험이 있어서 더욱 엄격하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사울이 그랬다. 왕이 제사를 못 드릴 이유가 뭐냐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버림받게 된다.

11.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단다(12-13). 출애굽 전날 밤에 마땅히 죽

을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 것이라? 레위인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 큰 과자 봉지를 사다주고도 내가 사 줬으니 하나 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즐거움이다. 다 주고도 하나 얻어먹는 것이 재미있다. 때로는 안 줘도 재미가 있다.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레위의 헌신에 대해서(출 32:26-29) 복을 주시려는 의도도 있고, 장자의 자격을 갖춘 다른 지파들(르우벤, 유다, 요셉)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어떤 것임을 가르치시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12.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더니 레위 지파는 왜 1개월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나? 레위 지파의 아이들은 다른 지파의 어른 취급을 받았잖아?

용도(?) 차이: 다른 지파의 계수 대상자는 싸움에 나갈 사람들이다. 레위 지파의 계수 대상자는 처음 난 자들을 위한 속전이다. 밭에 나가 일을 할 소는 다 자란 소여야 하지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면 송아지나 어린 양도 괜찮다. 처음 난 자를 대속하기 위해서 1개월 된 아기도 한 사람의 대속 물로 쳐준 것은 오히려 다른 지파가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따로 속전을 내야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다 자란 성인이나 1개월 된 아기나 몸값이 같다는 얘긴데 사람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지 않은가? 어저께(09년 9월) 갓 태어난 아기를 200만원에 팔고, 중개인은 다시 470만원에 팔았단다. 송아지 한 마리 값밖에 안 된다는 말인데!!!

13.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의 아들들(17)은 어떤 관계인가?

레위의 아들들은 아론의 아들들의 중조 할아버지들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론의 아들들은 레위의 아들 중 고탕의 증손자다(출 6:18-20).

14. 장막 뒤 서편에 진을 친 사람들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인데 거기에 게르손 가족들이 진을 친다고?

게르손 가족을 장막 뒤 서편 가까이에 진을 치고 위의 세 지파는 좀 떨어져서 진을 친다.

15. 게르손 자손들이 맡은 것은 성막, 장막, 덮개, 회막 문장, 뜰의 휘장, 뜰의 문장과 거기에 딸린 모든 줄이다. 이 표현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다른 자손들이 맡게 된 것을 참고해서 게르손 자손들이 맡은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회막의 모든 천과 줄: 성막, 장막, 덮개는 성막을 덮는 4종류의 양장을 가리키는 표현이다(출 26:1-14). 그러니까 성막은 제일 바깥쪽 덮개, 장막은 2번째, 덮개는 3, 4번째 덮개를 가리킨다. 문장은 문의 역할을 하는 커튼이고, 휘장은 담장 역할 하는 천이다.

16. 모든 휘장은 게르손 자손들이 담당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보면 언급되지 않은 휘장이 있다. 무엇인가?

지성소의 휘장: 31절의 휘장이 그것이다. 이것은 고탕 자손들이 담당한다. 지붕을 덮은 막은 게르손 자손들이 맡지만 지성소의 휘장은 성소의 기물을 맡은 고탕 자손들에게 맡겨졌다. 휘장이 벽이나 문의 역할을 하지만 이 휘장만은 성소의 기물로 취급된 셈이다. 하긴 이 휘장 때문에 대제사장조차 1년에 단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었고, 이 휘장을 찢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했으니(막 15:38) 특별하게 취급될 만도 하다.

17. 고탕 자손들이 맡은 것은 무엇인가?

성소의 기구들과 휘장: 성소의 가장 핵심 부분을 맡았다. 번제단은 하나뿐인데 복수형으로 표현한 것(31)은 분향단까지 포함시킨 탓이다.

18. 엘르아살의 얘기가 왜 여기에 느닷없이 나왔을까? 그의 직책은 무엇인가?

엘르아살이 고탕의 가족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된 것이니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다. 그가 맡은 직책은 차기 대제사장이다.

19. 드라리 자손들이 맡은 것은 무엇인가?

성막의 벽체(널판)와 기둥과 뜰의 담장(기둥) 및 그에 따른 부품들(띠, 받침): 가장 무거운 부분들이다. 성막의 기둥은 휘장을 걸기 위한 것인데 성소 기둥은 성소의 전면에 5개, 지성소 기둥은 성소의 내부에 4개가 있다(출 36:36-38).

20. 성막은 조립식 건물이다. 이동을 위해서 해체하면 몇 부분으로 나뉘는 셈인가?

3부분: 즉 벽(드라리)과 휘장(게르손)과 기구들(고핫)로 나뉜다.

21.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란 표현(38)은 말이 좀 어렵다.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란 내용상으로는 같은 것이란 점을 염두에 두고 좀 쉽게 고쳐보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할 것이며: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사람, 즉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높은 자리가 아니다.

22. 회막 동편에는 모세와 아론이 진을 치고 있다. 무얼 하려고?

정치적인 일과 종교적인 일: 처음에는 두 가지 일을 모세가 감당했지만 성막이 세워지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된 후에는 두 사람의 일이 완전히 분리된다. 이 두 사람이 서로 협조해서 백성

들을 이끌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성막의 입구인 동편에 진을 쳤다.

23. 레위 지파의 일 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22,000명이란다! 다른 지파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한 다른 지파의 수요는 평균이 어느 정도일까?

12지파에 약 60만이나가 평균은 5만 명: 정상적이라면 레위 지파의 계수된 수요는 6~7만 정도는 돼야 한다. 22,000명은 너무나 적다! 레위 지파는 왜 이렇게 적을까? 아무래도 레위인들의 전체 숫자는 아닌 것 같다. 아래 1번의 해설을 참조하자.

24. 레위 지파의 가족별로 일 개월 이상인 남자의 수요를 다 합하면 얼마인가(22, 28, 34)?

7,500명(22) + 8,600명(28) + 6,200명(34) = 22,300명이다. 39절의 22,000명과 300명이 차이가 난다. 이런 차이가 나면 기록상의 무슨 오류가 있는가. 살피거나 아니면 기록상의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살핀다. 이런 단순한 계산도 못해서 틀렸을 가능성보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설명도 있다. 300명은 자신이 장자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장자를 위해서 대속할 자격이 없어서 계산에서 뺐단다.

25.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일지니라'(38) 좀 심한 말 아닌가?

옛날 왕궁의 담만 넘어도 대역죄인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침범하면 그 정도야? 성막을 이렇게 단호한 자세로 지켜내야 했던 모숨에서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굳게 결심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중에는 지켜야 할 교회를 교물이나 재산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

26. 나는 여호와라(41)! 누가 아니래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27. 하나님은 욕심도 많다. 사람만 자기 것이라고 하면 되지 가족의 처음 난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가르치시려는 의도일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은 가족이다. 그것마저 하나님의 것임을 각인시키시려는 의도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사람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재산목록에 가족은 없다.

28. 일개월 이상인 장자의 총계가 22,273명이다. 많은가, 적은가?

20세 이상만 계수해도 전체가 60만임을 감안하면 아주 적다. 거의 30명 당 장자가 한 명씩 태어났다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애굽에 장자가 죽던 날 밤에 아버지가 장자였다면 그 날 아버지와 말아들이 함께 죽었을까? 문맥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아들만 죽었을 것이다. 결국 '일 개월 이상인 장자'란 결혼하지 아니한 말이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이들을 대신할 레위 지파의 계수 대상도 동일한 것 아닐까?

29. 누군가가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대신 받아 주신다? 어떤 신도 제물을 다른 것으로 대치해도 좋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대신'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

그렇지 않고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들이 대신 죽지 않고는 인간의 범죄함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

30. 하나님은 계산이 참 야물다. 장자를 대신할 레위인의 숫자가 모자라니까 모자라는 만큼 '돈'으로! 그래서 대속해야 할 액수는 일인당 얼마이며 이 액수는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

성소 세겔로 오 세겔: 분명하지는 않지만 성소 세겔은 일반 세겔보다 조금 더 무거웠단다(1/5 추가). 대략 노동자의 20일 분 임금에 해당한다. 싼 편이다. 종의 몸값이 보통 30세겔인 것과 비교해보라. 이렇게 봐도 너무 싸다. 이 정도의 액수를 사람을 대속할 수 있다면? 사람의 값어치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말로 다할 수 없는 귀한 존재지만 대속할 때는 이 정도로 해주겠다는 뜻이다. 소를 제물로 드려야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면 제물을 양이나 염소로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로 팔아주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31. 민수기 3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다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7번(5, 11, 14, 40, 42(산적), 44, 51): 1절을 포함시켜야 할 이유가 있다. 5절에 '또' 때문이다. 그러면 8번이나 된다. 그럼에도 정답에서 제외된 것은 1절은 앞장과 뒤의 장에 나올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절대로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충성했을 뿐이다. 말씀을 좇아 사는 삶, 명하신 대로의 삶이 복되다.

민수기 4장

1. 나라마다 성인으로 인정하는 연령이 다를 수 있다. 물론 성인이 된다는 것과 공직을 맡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는 얼마인가?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본다면?

30세: 군인으로 봉사할 수 있는 나이(1:3)보다 10년이나 더 많아야 하고 은퇴할 나이를 50세로 명시한 것도 성막 봉사가 실수해서는 안될 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라도 때가 되면, 실수하기 시작하면 은퇴해야 한다). 훗날 다소 조정되기는 하지만(8:24, 대상 23:24) 원칙은 30세는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셉의 총리 임직, 다윗왕의 즉위, 세레 요한과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도 30세였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30세가 되기까지 기다리셨다. 모세는 80세가 되기를 기다려야 했고, 사울도 회심한 후에 바나바가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10년 가까이 더 기다려야 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계시 받아 위대한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나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2. 이동하기 전에 이동을 위해서 고핫 자손들이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없다(15): 이동할 때는 성물(회막 안 지성물)을 매고 운반한다(=회막의 일). 행진하기 전에(=4절의 '행진할 때에는' '행진하려 할 때'라는 의미) 성막을 철거하거나 성물을 포장하는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고핫 자손들은 성물을 볼 수도 없다.

3. 간 막는 장(5)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동할 때의 용도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커튼: '간 막는 장을 끈어'라는 말은 '지성소에 들어가서'라는 말이다. 그 장으로 증거궤를 덮었다.

4. 성소의 모든 기구는 이동할 때 삼중으로 덮었다. 왜 이렇게 단단히 덮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추는 것: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조차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야만 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거리를 의미한다. 도저히 나아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엄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5.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데 필요한 보자기는 몇 개인가?

4개(순청색, 청색, 홍색, 자색): 순청색(=하늘 색) 보자기는 증거궤, 청색 보자기는 등대(진설병의 부대기구들, 등대의 부대기구들, 모든 기명), 홍색 보자기는 떡상(진설병의 상), 자색 보자기는 단을 덮었다.

6. 백성들이 성물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덮은 보자기의 색깔을 보고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까?

증거궤만 구별할 수 있었다. 증거궤를 덮은 순청색 보자기만 보였다. 다른 보자기는 그 위에 해탈의 가죽으로 덮었기 때문에 보자기는 보이지 않은 셈이다. 보자기 색깔만 보고 증거궤인 것을 아는 것도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게(고전 13:12) 하나님을 보는 셈이다.

7. 성막의 구조와 기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본 후에 생각해 보자. 성물 중에 포장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없다(15): 얼핏 보면 향단이 보이지 않고 물두멍도 보이지 않는다. 11절의 금단이 향단을 가리키는 말이다(출 39:38, 계 8:3).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은 놋단이다(출 39:39). 물두멍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모든 기구'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본다.

8. 성물은 대부분 직접 손을 대지 못하도록 운반용 채를 꿰도록 되어있다(증거궤, 향단, 떡상, 번제단). 채가 없는 등대나 기명들은 어떻게 운반했을까?

메는 틀(10 12) 즉 풀 것에 실어서 운반했다: 절대로 손을 대지는 말아야 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롬 3:23).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나타낸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친히 뵈을 수 있게 된다(고후 3:18). 주의할 것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성물만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다(왕하 18:4). 오늘날 성물, 성지, 성일, 성인, 성전이 혹 그런 의미가 아닌지 유의해야 한다.

9. 단에 부속된 기구 중에 '불 옮기는 그릇'의 용도는 무엇인가?

향을 사르기 위해서 번제단의 불을 향단으로 옮길 때 사용하는 향로다(레 16:12).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바로 이 과정에서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10. 엘르아살이 성소와 그 모든 기구를 맡는다(16)?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해야 할 일과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말한 앞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은가?

엘르아살이 고핫 자손들의 일을 감독하고 지휘하라는 뜻이다(비교 28절).

11.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라(18)는 것은 먹여 살리라는 말인가? 어차피 레위 지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나 목축 일을 하지 않는데...

실수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뜻(19): 하나님에게 가까운 사람이 더욱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위험이 아주 크다. 고핫 자손들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인 셈이다. 나답과 아비후, 옷사, 뽀세메스의 마을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실수로 죽임을 당했다.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간의 죽음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12. 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맡은 고핫 자손도 성소를 볼 수 없다면(20)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온 정성을 모아서 만든 성소를 왜 이렇게 격리시켰을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감을 반영하는 것: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는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나마 아론과 그 아들들(제사장)이라도 볼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워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는 사인이다.

13. 고핫 자손들이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일). 그러나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의 일은 모세의 명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보조적, 행정적인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1, 17 21)

고핫 자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지만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되면 모세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 참고인에 불과하고 아론이 담당자인 셈이다. 그러나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21).

14. 게르손 자손도 매고 운반했네? 민 7:7-8을 참고해서 설명해 보자.

수레까지 운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15. 게르손 자손들이 맡은 일은 무엇인가?

천막류(취장, 문장, 덮개와 그 부속물): 그러니까 남은 것은 건축 구조물(벽체와 기초)인데 이것은 므라리 자손들의 몫이다. 건물별로 일을 나눈 것이 아니라 재질별로 나눈 셈이다.

16. 게르손 자손들의 감독은 이다말이다. 그러면 므라리 족속의 감독은 누구인가?

여전히 이다말이다. 아론의 아들 중에 살아있는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뿐이다.

17. 레위 지파의 개인들에게 일을 분배하는 과정이 좀 다르다. 고핫 자손들에게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지휘(19)' 즉 직접 지시를 했고,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대로 할 것이되... 맡겼다(27)' 일을 분담시켰다는 뜻이다.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모든 기구의 명목을 지정(32)' 했다. 물건의 이름을 따라 하나 하나씩 지명하여 맡겼다는 뜻이다.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

말아야 할 대상물의 차이 아닐까? 고핫 자손들이 말아야 할 것은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이다. 게르손 자손이나 므라리 자손들은 말아야 할 물품이 대단히 많다. 특히 므라리 자손들이 맡은 것은 거의 비슷한 것들이다. 가령 많은 널빤지들이 반드시 그 자리에 위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았을까? 게르손 자손들이 맡은 것은 자리가 저절로 정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18. 레위 지파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수되었다. 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수된 숫자와 성막봉사를 위해서 계수된 숫자를 비교해 보자.

게르손 7,500명(2,630, 35%) 고핫 8,600명(2,750, 32%) 므라리 6,200명(3,200, 52%): 므라리 지파가 일꾼이 유독 많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특별한 현상이다. 가장 무거우면서 분량도 많은 것을 운반해야 하는 임무 탓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푸신 은혜일까? 민 7:7-8에 보면 수레나 소도 므라리 자손에게 더 주신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19. 성막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운반하는데 일의 중요도가 똑같지는 않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운반하는 족속이 가장 급수가 높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레위의 장자는 누구인가?

역할을 보면 고핫 자손 같지만 실제로는 게르손(창 46:11): 하나님의 선택은 종종 인간의 서열을 무시하기도 한다. 그 이유를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인간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20. 교인이라고 모두가 교회의 일을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례 받고 정회원 자격을 얻었다고 교회의 모든 일에 다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재적소에 맡겨진 부분에 충성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레위 지파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레위 지파라고 해서 모두가 성소의 일을 돌본 것은 아니다. 연령이 맞아야 하고 주어진 임무대로 봉사해야 했다.

21. 행진을 위한 준비과정을 보면 일을 처리하는 솜씨가 어떤가?

치밀하다: 일을 처리하는 솜씨를 '철저한 업무분담, 명확한 한계설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지파별, 자손별, 종족별, 개인별로 담당할 업무를 명확하게 분담시켰다. 그러면 효율적이고 질서 있게 일을 할 수 있다. 업무 영역이 분명치 않으면 실수하거나 분란을 일으키기 쉽다.

민수기 5장

1. 병이 있는 것도 서러운데 진 밖으로 쫓겨나야 하다니?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일종의 격리인데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전염을 방지하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질병의 원인은 대체로 자신에게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교훈을 얻을 수 있다: 질병과 죽음조차 구별된 삶을 가르치는 요긴한 도구로 쓰신 셈이다.

2. 이스라엘 자손은 이웃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속죄하는 것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당사자에게 1/5을 더해서 보상할 뿐 아니라(7) 하나님께도 속죄의 예물을(8) 드려야 한다. 이웃에게 죄를 범한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몸에 죄를 얻거든)이기도 하다(6).

3. 피해를 입혔는데 보상받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제사장에게 대신 갚아야 한다: 그냥 용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 죽을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다. 이 원칙을 지키면서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려고 결국은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4. 기업을 주지 않은 레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본문에 언급된 것만 찾아보자.

속죄의 수양, 오분지 일을 더한 주인 없는 죄값, 거제, 구별한 물교: 문맥상 필요한 것은 '오분지 일을 더한 주인 없는 죄 값'이다. 9-10절은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언급한 이유는 다른 예물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것처럼 그것도 제사장의 것으로 주라는 의미인 것 같다.

5.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된 상황이 문제다. 여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남편이 의심하게 되면 억울하지 않은가?

잉태하는 복, 가장 큰 복으로 갚아주신다(28): 성도는 억울하다고 가슴을 쥐어뜯고 잠 못 이루며 힘들어 할 이유가 없다. 다른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잠잠히 기다릴 여유가 있어야 한다.

6. '한강에 배 지나간다고 흔적이 남느냐?' 바람을 피워도 흔적이 없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하는 말이다. 맞는 말인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이다: 엉뚱한 짓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눈이 무서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싶은 마음도 없다? 사람이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고 감시자가 되심을 기뻐하는 사람이 복되다.

7. 남편에게 생긴 의심은 원어상으로 단순한 의혹 정도를 넘어서 질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의심을 가리킨다. 제사장이 몹시 바쁘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런 일로 그리 바쁘지 않았을 것: 이런 규례가 있음에도 의심받을 짓을 했을까? 근친한 가정을 이루도록 울타리를 쳐준 셈인데 굳이 이 울타리를 넘었을까?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서 합부로 의심해서도 안 되고 의심받을 짓을 해서도 안 된다. 더구나 발각되면 툭로 처형당하는데(레 20:10)?

8. 어떤 이유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손으로 갈 수 없다. 무슨 예물이든 드려야 한다. 그런데 부인을 의심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의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예물을 드리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증거를 두 가지 찾으라.

보리 가루,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는 것: 일반적인 소제는 '고운 밀가루'를 드렸다. 고운 밀가루는 요즘 말로 하면 고급품이고 보리 가루는 거칠어서 질이 낮은 것이다. 기름, 유향을 쓰지 말라는 것도 정상적인 예물보다 격이 낮게 취급되는 셈이다. 원래 소제는 감격, 헌신, 봉사 의미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죄를 생각하게 하는 소제(=의심의 소제)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받으시는 목이 메이는 제물인 셈이다.

부부가 싸우다가도 이렇게 살면 고통스러워할 부모를 생각해서 참는 경우도 더러 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안다면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도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다.

9. 의심을 받은 여인이 서게 되는 장소는 어디인가?

여호와 앞(16, 18):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성막 앞'을 가리키는데(레 1:3, 3:1) 이 경우에는 성막 뜰의 입구쪽이었다고 한다. 아무튼 이곳에 선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 우리 선배들이 항상 되뇌이던 '코람데오란 말이 바로 이 말이다.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10. 의심받는 아내가 재판받는 절차가 좀 복잡하다(16-23, 25-26, 24, 27절 순으로 진행된다). 간단하게 처리하면 안 될까?

근본 목적은 이런 죄를 범하지 말란 뜻이며, 설령 그런 일로 나아왔을지라도 이실직고하란 뜻이다. '셋만에 나오라' 하면서 하나, 둘, 둘의 반, 반의 반... 하는 격이다. 그럼에도 진짜 죄를 범하고 끝까지 버틴다면 정말 대단히 악한 사람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와 비교해 보라.

11. 성막의 티끌은 거의 독극물 수준이다. 거기서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별 일 없을까?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다. 끝까지 버틴 여인이 이런 징벌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성막의 티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12.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간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다. '배가 붓는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라면 어떤 의미로 보면 좋을까?
허벅지가 마르는 것(표준새번역): 하체가 썩어 문드러질 것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13. 이런 방식이 원시인들이 행하는 주술적인 것과 비슷하지 않나?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상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의 차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보인다.
14. 남자들이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면 어떻게 해?
분명한 기록은 없음: 이 법이 징벌을 위함보다는 예방차원이며 억울한 아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불공평한 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하나 만약 간음한 여자가 끝까지 버티다가 이런 징벌을 받았다면 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상대 남자를 그냥 두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15. 우리나라에는 소위 문명국가에 없는 뒤떨어진 법(?)이 있다. 간통죄가 그것이다. 개인의 문제를 왜 국가가 간섭하느냐는 게 그 이유다.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일리는 있는 말인데 자신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법에 개인의 문제라고 할 간음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뭘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다. 부부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신 제도다. 인간사회의 근간인 셈인데 이것을 절대로 흔들지 말라는 말씀이다. 음란하기 이를 데 없는 가나안 땅 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굳게 설 수 있었던 바탕이기도 하다.

민수기 6장

1. 남녀평등이란 참으로 이루기 어려운 이상인지도 모른다. 지금도 서로 우월한 위치에 서려고 싸우고 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실까?

구별하지 않으신다(2): 남자와 여자는 기능상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창 3:18) 인격적으로는 동일(창 3:24)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보면 남자들이 여자를 차별한 경우가 많았다.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실인의 서원, 즉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데에서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았다.

2. 나실(나자르, 즉 구별이란 뜻)인이란 세상과 분리된 자라는 뜻이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나(2가지)?

포도(3-4)와 부모형제(7): 포도는 먹을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부모형제는 사람 중에 가장 귀한 존재이다.

3. 히브리인들에게 포도는 중요한 주식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포도를 먹지 말라는 것은 먹는 낙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면 무슨 낙으로 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낙으로! 포도는 세속이 주는 즐거움의 상징이다. 기쁨과 풍요의 상징이다. 적어도 나실인은 이런 기쁨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더 커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도 일정한 기간을 스스로 정해서 하는 것이기에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성도들의 삶도 기본 바탕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4. 나실인이 머리털을 자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 아래 있음에 대한 상징(7): 마치 대제사장이 관(출 29:6)을 쓰고 직분을 감당했던 것이나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이 권세 아래 있는 표시(고전 11:10)였던 것과 비슷한 셈이다. 삼손의 긴 머리는 힘의 원천이었지만 머리카락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진짜 힘의 원천이었고 머리카락은 순종의 상징이었을 뿐이다.

5. 주검은 죄악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므로 시체에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다(민 19:11, 14). 그러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인륜지대사다. 부모 형제자매의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은가?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규례가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원, 일정 기간만: 나실인의 서원은 자원의 것이며 일정한 기간(=잡간)동안만 지키는 것이므로 최소한 그 기간만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지내라는 것이다. 적어도 이 규례만을 두고 본다면 나실인은 대제사장이 된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부모형제의 장례에는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레 21:2-3).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부모의 장례에 참석이 불가능했으니(레 21:10).

6.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도 누구 말마따나 인정 머리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분이 아니시다. 많은 예가 있지만 본문에서 하나 찾는다면?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경우를 인정하심(9): 홀연히 그 곁에서 죽는다는 것은 갑자기 죽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체에 접촉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럴 경우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19:13) 해결책을 제시하셨다.

7. 성도나 목사가 죄를 지어 신문이나 방송에 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본문의 어떤 표현이 이와 비슷한가?

나실인이 시체에 접하게 되면 '머리를 더럽히게' 된다(9): 머리털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나실인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손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회복도 머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다(11).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럽힘을 당할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임을 잘 보여준다.

8. 누구든지 시체에 접촉하게 되면 7일간 부정하다(19:11). 그 7일이 지나야 속죄를 위시한 각종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실수한 나실인이 제 8일에 드리는 제사제물이 왜 이럴까? (별로 큰 죄가 아니라서? 제물의 크기는 죄의 크기와 상관이 있을까?)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짐비둘기 새끼 두 마리는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이다(레 14:22): 그러니까 죄가 많고 적응에 따라 제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제물이 크기가 달랐다. 나실인이 반드시 가난한 것은 아니다. 아마도 실수한 나실인은 그렇게 가난한 자로 취급되었던 것 아닐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말이다.

9. 속죄제, 번제를 다 드렸는데 왜 또 속건제를 드리나(12)? 이중과세 아냐?

새로운 시작(12절의 '무효'): 다시 나실인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제사다. 이미 드린 속죄제와 번제는 과거에 속한 것이고 지금 드리는 속건제는 미래에 속한 것이다. 이미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리는 셈이다. 그래서 제물도 훨씬 크다.

10. 나실인이 서원을 마치는 과정이 더 복잡하다. 몇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가?

7종: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전제, 요제(흔들), 거제(듬)로 모든 제사를 총망라한 것이다. 특별

히 하나님을 섬긴 일을 마치는데 무슨 제사를 이렇게 많이 드릴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지만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다(레 7:12).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진정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외에 더 드리고 싶으면 더 드릴 수도 있다(21).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무처럼 여겨지는 것은 일종의 경직화 현상으로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현상이다.

11. 나실인이 드려야 하는 제사의 종류가 아주 많다.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는 무엇일까?

속죄제(11, 16):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에게 나오는 출발점이 회개임을 보여준다. 죄를 없애지 않고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14절은 예물에 관한 것이지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12.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해방을 뜻하는가? 그동안 먹지 못한 것도 먹을 수 있고?

신분상의 변화는 없다: 나실인이든, 일반인으로 돌아오든 하나님의 백성임에는 틀림이 없다. 혹시 교회에서 이런 저런 직분을 맡았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기꺼이 직분을 내려놓아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직분이나 일을 내려놓으면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기는 절없는 어른도 더러 있는 모양이다.

13.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그 귀한 머리털을 민 다음에 어떻게 버리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18): 제단의 불은 아무 것이나 태우는 불이 아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이외의 용도로는 쓸 수 없는 귀하디귀한 불이다.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14. 나실인이 드린 예물 중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다(20). 제사장이 수고했다고 드리는 것일까?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드리는 본래 의도는 제사장의 생계를 위함이지만 여기서 특별히 따로 언급한 이유를 나실인의 구별된 삶을 마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생각해 보자.

바른터치: 나실인이 임무를 마치고 일반인으로 복귀하더라도 그가 드린 헌신과 봉사가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된다는 의미가 담긴 것 아닐까?

15.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제사장을 세우신 주된 이유가 제사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한 마디로 결론낸다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복일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종처럼, 노예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핍하게 하는 것이다.

16. 간단하게 ‘여호와와는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 될 텐데(24-26) 왜 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할까? 복을 많이 받으라고?

은연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세 번의 복도 현세적인(육체의) 복, 영적인(영혼의) 복,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복이라고 생각해도 같은 내용인 셈이다.

민수기 7장

1. 장막 세우기를 필한 것은 출애굽 2년 1월 1일이고(출 40:17)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난 것은 2년 2월 20일이다(민 10:11). 그러니까 장막을 세우고 50일간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본문에는 봉헌식만 있음: 실제로는 제사장 위임(7일이 걸림, 레 8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레 10장), 인구 조사(민 1장), 족장들의 예물 봉헌(12일 걸림), 유월절 준수(9:5), 레위기의 규례를 가르치는 등의 일이 있었다.

2. 모세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성막을 세웠다고 해도, 아무리 귀한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기름(만유, 출 30:22-33)을 바르는 것: 기름을 바른다고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가? 그것 역시 하나의 상징이다. 세상의 속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기름을 바르거나 붓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다. 반면에 피를 뿌리거나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다.

3. 백성이든, 족장이든 계수함을 받으면 반드시 예물을 드렸다. 계수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럴까?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여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베푸셨음에 대한 응답이고, 예의이기도 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

4. 예물로 수레를 드린 것은 독특하다. 소도 번제용이 아니라 수레를 끌기 위함이다. 성막 이동에 필요해서 드린 것인데 필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추어 예물을 드린 예가 또 있는가?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다: 아주 드문 현상이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겠다.

5. 족장들이 드린 예물이 똑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사전에 서로 협력했다는 뜻이다.

6. 드라리 자손들에게 수레 여섯 중에 넷을 주었다는 것은 이들이 운반하는 것이 가장 덩치가 큰 것이었을 것이다. 이들이 운반을 맡은 것이 무엇이지(3장)?

성막의 벽체(널판과 기둥과 뜰의 담장(기둥) 및 그에 따른 부품들(띠, 받침)이다. 길이가 4.5m나 되는 널판(48장)과 기둥들(9개)이었으니 수레가 필요했다.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능력이 없다고 발뺌을 하던 모세에게 결국은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다.

7. 누구는 수레를 넷이나 주고 누구는 하나도 안 주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셨다. 특히 고핫 자손은 수레대신 어깨로 운반하는 일을 맡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에 대한 감사가 우선이지 수레를 받지 못했다고 원망할 일이 아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에 시샘을 해서는 안 된다.

8. 족장들이 봉헌예물을 두 번씩 드렸나(10, 11-83)?

10절은 11절부터 83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말이다.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나가는 방식으로 기록된 곳이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9. 단을 봉헌하는데 어느 제사 재물이 가장 많고, 어느 재물이 가장 적은가?

화목제물이 가장 많다는 것은 봉헌하는 일이 축재였음을 보여준다. 속죄제물이 가장 적다. 회개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기뻐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10. 봉헌 예물을 보면 몇 종류의 제사를 드렸는가?

4가지: 소제(고운 가루와 향), 번제, 속죄, 화목제를 다 드렸다.

11. 봉헌 예물을 드린 지파별 순서는 유다(12), 잇사갈(18), 스불론(24), 르우벤(30), 시므온(36), 갓(42), 에브라임(48), 므낫세(54), 베냐민(60), 단(66), 아셀(72), 납달리(78) 순이다. 이것은 무슨 순서와 일치할까?

성막 주변에 진친 순서이기도 하고 행군의 순서이기도 하다(2:3-31).

12. 똑같은 재물을 드렸으니 '이하 동문'이라고 하면 안 되나? 똑같은 표현을 12번(종합편까지 합치면 13번)이나 반복하니 7장이 이렇게 길지!

각 지파별로 드러진 예물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가령 졸업식장에서 한 사람만 대표로 졸업장을 주는 것과 시간이 걸리지만 졸업생 전부를 한 사람씩 불러서 직접 졸업장을 주는 것과 비교해 보라. 별 관계없는 손님이야 짜증이 나겠지만...

13. 회막이 완성되고 단을 하나님께 봉헌했다. 12일에 걸친 민족적인 봉헌식을 마친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말씀만 들렸다.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후일에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요 1:14).

민수기 8장

1. 한 개의 등잔(등불)은 방향이 없지만 일곱 개의 등잔이 일렬로 서 있으니 방향이 있는 셈이다. 이 등대는 떡상을 마주 대하고 있다(출 40:24). 개의 등불이 끊임없이(출 27:20, 레 24:2-4) 떡상을 비추도록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신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계 4:5, 요 6:35).

끊임없는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일이다! 등대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성령의 역사를(계 4:5)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6:35)를 상징하는 것이다. 7은 사역의 완전성을 의미한다. 구약의 메시지는 이렇게 상징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었으므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선명하거나 완전하지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환하게 보고 있다. 그래도 눈을 뜨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지라도 궁극적인 목표가 이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 등대의 특징은 한 달란트(약 32 kg)의 정금을 쳐서 만들었다. 용접을 하거나 주조한 것이 아니다. 밀판에서 꽃모양의 장식까지 한 덩어리의 금으로 만들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 걸까?

죄 없으신 예수님의 고난: 정금은 죄 없으신 예수를(히 4:15) 금을 끝없이 쳐서 등대를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다(사 53:5).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다.

3.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실물을 보고 등대를 만들었다.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왜 이런 것이 있을까?

실제로는 없다(계 21:22) 상징일 뿐이다. 자기 백성들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신 모형일 뿐이다.

4.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레위인이라고 자동으로 회막 봉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정결례를 치러야 했다. 교사자격증을 뺐다고 모두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격을 얻은 것과 그 임무를 맡는 것은 차이가 있다.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

속죄의 물, 삭도와 빨래, 속죄제, 번제, 소제, 요제: 속죄의 물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섞어 만든 의식용 물이다(19:2-9). 삭도로 전신의 털을 미는 것은 레 14:8의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의 정결례와 같다. 물로 씻어도 안 되는 부분까지 철저히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의복을 빼는 것도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어야 함(계 7:14)을 상징하는 것이다. 레위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모양이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순서는 속죄제가 먼저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번제다. 그래서 이 두 제사에 대한 기록이 자주 바뀌어 나타난다.

5.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 과정 중에서 레위인이 직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삭도와 빨래, 속죄제물에 안수하는 것만: 나머지는 전부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쓸데없이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가? 반복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기록방식인 것을 빨리 이해하는 것이 좋다. 성경은 많은 곳이 이런 식으로 기록되었으니깐. 7-8절은 준비물, 9-11절은 최종 절차, 12절은 요제를 드리기 전의 과정에 대한 지시사항이고, 21절은 실행한 내용이다.

6. 속죄 제물로 암송아지를 드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보통은 어린 암염소나 어린 암양이면 되고 형편이 어려우면 더 작은 비둘기, 심지어 가루도 가능한데?

제사장이나 회중전체를 위한 속죄제: 성막을 위해서 정결케 하는 레위인 전체를 위한 속죄제이기 때문에 가장 큰 제물을 요구하셨다.

7.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했다. 무슨 뜻인가?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는 제물이 됨을 의미함: 안수의 기본 의미는 하나됨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생축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안수를 하고 잡았다. 자기 대신에 짐승이 죽는다는 의미가 된다. 같은 원리로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 하는 절차다.

8. 요제는 희생 제물의 가슴이나 첫 수확물을 제사장이 들고 앞뒤로 흔드는 제사다. 이렇게 많은 레위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들고 흔들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차피 상징적인 방식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필이면 요제일까? 요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요제로 드린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다(레 10:15)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쳤지만 결국은 제사장의 수하에서 제사장을 돕는 위치를 분명히 한 셈이다(19).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제사장에게 주어진 제물이므로 제사장에게 충성해야 한다.

9. 레위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나 부끄럽게 여겨야 하나? 아니면 귀찮은 인생인가?

여호와께 봉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대통령의 이발사, 청와대 청소부? 만만히 볼 일이 아니다. 명함에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 자랑스럽지만 거들먹거리면 대통령에게 누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자랑스럽지만 '봉사하는 직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0. 한국인들이 만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제사 때문인 것 같아 보인다. 하나님은 처음 난 것

을 왜 그렇게 좋아하실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을 놈을 특별하게 살렸기 때문: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너는 독생자 예수의 피로 살린 내 것이라'는 선고를 듣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 '일절 초태생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되심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며 살아야 한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이나 십일조를 드리라는 것도 그런 고백을 드리라는 것이다.

11.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일까? 이런 일이 없도록 레위인을 구별하여 대신하게 하셨다?

실수로 성소를 범하게 되는 일: 이런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대신 레위인들에게 맡기셨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었던 시절의 얘기다.

12. 4:3절에는 회막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50세였다. 여기서도 왜 25세부터일까?

주 업무가 달랐다: 앞에서 언급한 회막의 일은 대체로 운반하고 설치하는 일이었다. 여기서도 정착해서 제사장의 일을 돕는 역할이라서 나이가 좀 더 낮아져도 괜찮은 모양이다. 성전이 건립되고 난 후 대상 23:24에는 더 낮아진다.

13. 50세 이상이라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나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연령을 제한한 모양이다. 평생을 은혜롭게 사셔도 나이가 들면 실수하기도 한단다. 그래서 정년이란 것이 필요한 모양이다. 능력이 있어도 때가 되면 은퇴하는 것이 옳다.

민수기 9장

1. 현 시점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지 정확하게 일 년이 지났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유월절이 바로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이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절이다. 이 재앙으로 애굽에서 쫓겨났는데 바로 그 유월절의 1주기가 되었기 때문: 실제로 1월 15일에 애굽을 떠났다.
2.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 중에서 광야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행위 하나는 무엇일까? 광야에서는 정식으로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거든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을 것이다(출 12:25).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집이 있어야 바르지? 그렇다면 광야에서는 약간 변형된 형태로 유월절을 지켰을 것이다 피를 제단에 쏟거나 뿌리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자기 장막 주변에 뿌리는 방식은 아니었을 것 같다. 피를 함부로 뿌리지 않았으니까!
3. 시내산 출발, 증거막 완성, 인구조사, 두 번째 유월절을 날짜순으로 정돈해 보자.
 증거막 완성(출 40:17, 2년 1월 1일), 유월절(민 9:2, 2년 1월 14일), 인구조사(민 1:1, 2년 2월 1일), 2차 유월절(2년 2월 14일), 시내산 출발(민 10:11, 2년 2월 20일).
4. 유월절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인가?
아직은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다는 뜻: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출애굽의 감격이 살아있었던 모양이다. 어려운 고비를 넘긴 어느 분이 감사제물이 이랬다, '다시 십일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워서 못 하는 분도 있지만 할 수 있음이 감사한 분도 있다. 하고 싶어 죽겠는데... 하는 사람도 있다.
5.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일까? 멋지게 해결책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으니 '기다리라'고 한다(8):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와서 대답해야 한다면 권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도자라면 괜히 아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지도자가 가장 귀한 지도자다. 제발 다 아는 척 하지 말자.
6.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 사람들에겐 한 달 미루어 주셨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도 매사에 예외가 없는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감안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기회를 더 주었음에도 지키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징계하신다(13).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큰 소리를 치는 인간에게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은 아니다. 최후의 심판마저 없는 유약하신 분은 아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 하나라(마 19:8)는 표현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한 달 미루어진 유월절은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지키고 그 날에 시내산을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였다면 이 정신은 오늘날 성만찬 예식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전 5:7, 마 26:27-28).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음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7. 유월절의 자세한 규정은 출 12장에 있다. 다른 부분은 거기서 보기로 하고 한 가지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다. 그러면 왜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에 대한 예언이다(요 19:36, 시 34:20).
8.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민족주의자가 아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면 타국인이라고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았다(물론 이들은 할례를 받은 타국인이었다, 출 12:48). 예수를 믿는 모든 자(믿음으로 영적 할례를 받은 자)를 부르셨다. 어떤 차별도 없이 우리를 부르셨다.
9. 증거막을 덮은 구름이나 불 모양 같은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임재: 친히 나타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다. 구름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를 내셨을 뿐이다. 하나님은 이런 저런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를 내신다. 아무리 눈치를 줘도 알아채지 못하는 녀석은 어떻게 하나? 꼭 꿈에 장죽을 쏘는 할아버지 품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10. 이스라엘은 무엇을 따라서 광야를 다녔는가?
하나님: 구름과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따라 광야에서 살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성적인 인간이기보다는 감성적인, 감정적인 인간이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 세상도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이런 이적적인 현상이 광야생활 내내 계속되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보내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감격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조차 무감각하게 여겨질 수 있단다!

11. 이동하던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을 쳤는가?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구름이 머무는 곳이라고 대답해야겠지만 그냥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따라나선 광야에서 무슨 낙이 있었을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낙?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로맨티스트다!

우리 가곡 중에 '내가 빛이라면 햇빛, 달빛, 다 두고 그대 눈길 머무는 곳 초롱같은 별 되리라' 이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다.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가사라고 생각된다. 이런 연인들에게 '결혼은 현실이야,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초를 쳐야 할까? 하나님과 더불어 이런 심정으로 살 수 있는 걸까?

12. 구름이 증거막을 오래 덮고 있었으면, 한 몇 년 동안 그대로 있었다면 싫증이 나거나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먼데, 여기서 이렇게 죽치고 앉아 있을 바에야 뭣 하러 애굽에서 나왔나?' 이런 불평이 없었을까? 왜 없었을까하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을 것이다. 성도들에게 아마도 이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이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할 일도 없고, 볼 것도 없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바울도 회심 이후 아라바에서 삼년, 고향에서 십여년, 옥에서 이년을 무료하게(?) 지냈다. 그렇게 지내야 할 때는 그렇게 지내야 한다.

13. 새로 진을 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어떡하지?

또 가야지: 훈련하는 것 같다. 이유 없이 끈으라고 하고, 끈으면 치라하고, 끈으라고 할 것 같아서 치지 않고 기다리면 끈으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와 명을 좇아(따라)' 라는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이 계속 반복된다(18-23). 복된 자들이다!

민수기 10장

1. 예로부터 나팔 소리는 각종 신호로도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몇 백만의 대군을 통솔하는 방법으로 나팔보다 더 나은 도구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도구를 아무나 함부로 불면 안 된다. 그래서 제사장만 불게 했을까? 나팔수를 따로 두지 않고 바쁜 제사장이 나팔까지 불어야 하나? 출 19:16에서 답을 찾아보자.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상징으로 쓰였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것이나(9)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팔 소리가 따르는 것도(마 24:31)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복된 것처럼(반대인 경우, 겔 33:4-5)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은 얼마나 복된가! 이제는 나팔 소리 대신 성경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꿈에 계시를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2. 나팔 두 개로 몇 가지 신호가 가능한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몇 가지 신호를 구별해야 하는가?

6가지(소집 때 2가지, 출발 때 2가지, 전쟁, 제사): 만약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혼란도 엄청나다. 하나님은 무조건 믿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과연 그러한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것이 신사적인 태도다(행 17:11). 설교는 무조건 '아멘' 해야 하나? 그럴 수 있는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복이지만 설교자의 본의든 아니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한다(요일 4:1).

3. 출발 신호인지 전쟁신호인지 어떻게 분간했을까? 울려 부는 것은 같은데?

구름(불)기둥의 변화를 보고: 구름이 떠오르면 레위인들이 성막을 해체하고 백성들은 이동할 준비를 한다. 그리고 난 뒤에 나팔이 불면 이동을 시작했다. 만약 그 때에 적이 쳐들어온다면? 헛갈릴 수도 있었을까?

4.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한다(고전 14:8). 상황에 맞지 않게 엉뚱한 방법으로 분다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혼란이 일게 마련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헛소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성경도 없고 가르칠 사람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런 방법으로 나타내셨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전달했다. 이제는 더 나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정확하게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

5. 나팔 부는 방법이 제사장이나 모세의 고안이었을까,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을까?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모세의 고안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참으로 고약한 자들이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까지 자기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신 분이시다.

6.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대대에 영원한 율례'이다(8).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불지?

제사장이 있어야 불지: 구약시대에 주어진 율법과 제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되고 완성되었다(마 5:17).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듯이 제사장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대대에 영원한 율례이다.

7.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듣고 구원하신다(9)? 나팔 소리를 듣고 너희를 기억한다(10)? 소리가 커야 한다는 뜻인가?

하나님에게 나팔 소리가 크냐 작으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참고, 왕상 18:26-29, 36-38), 평소에는 잊고 계시다가 나팔 소리를 듣고 기억하시는 분도 아니시다(시 121:4).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그것을 가리켜 '나팔 소리를 듣고' 하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나팔 소리를 듣고 행동한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는 것이다.

8. 모든 제사에 나팔을 분 것은 아니다. 어떤 제사를 드릴 때 나팔을 불지 않았는가?

속죄와 관련된 제사들: 나팔 소리는 감사와 감격이 담긴 것이다. 속죄는 그렇게 암전하게 받는 것이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마음이 무겁다. 그런 다음에 드리는 번제나 화목제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9. 시내산에 도착한지 11개월 5일(애굽을 떠난지 13개월 5일) 만에 드디어 출발이다. 그러면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모습으로 증거막에서 머무른지는 며칠 쯤인가?

50일 만이다: 증거막을 완성한 것은 1월 1이었다(출 40:17). 그 동안에 1, 2차 유월절을 지켰고(민 9:2) 인구조사(민 1:1)도 마친 다음 출발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바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0. 시내 광야에서 바로 바란 광야로 갔을까? '자기 길을 행하더니' 이 표현이 왜 들어와 있지? 이 부분을 NIV는 *traveled from place to place*로 번역하였다.

뒤에 나오겠지만 시내광야를 출발해서, 다베라(11:3), 기브롯핫다아와, 하세롯(33:16-17, 미리암의 문동병으로 7일간 행진을 중지)을 거쳐서 바란광야에 도착했다.

11. 행진의 가장 선두에는 누가 섰는가?

언약궤(33): 지뢰탐지기처럼 앞에서 길을 열었다.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있게 따라갔다. 구름이 멎은 곳에 언약궤가 서고 그러면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야 하는 성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부르시면 언제든지 걷을 수 있는 장막을 세우고, 가자면 어디로든 따라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불러도 버리고 가기에는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는 시멘트 건물을 세우지 말자(고후 5:1)

12. 세 지파가 출발하고 나자 성막을 걷었는가(13-17)?

철수하는 순서가 아니라 행진하는 지파별 순서로 기술한 탓이다(2장 8번). 1진 다음에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매고, 2진 다음에 고핫인이 성물을 매고 행진했다.

13. 성막을 세우는 일은 누가 했는가? 고핫인은 아니다.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먼저 도착해서 성막을 세웠다.

14.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오합지졸의 모습일 수도 있고, 노예군단일 수도 있다. 제대로 훈련받은 적도 없는 대규모 민병대라고 할까? 이제는 어떻게 변했는가?

군대(28):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렇게 절도 있고 씩씩한 군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불러준 모양이다. 여전히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준 것처럼! 성도답지 못한 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처럼?

15. 모세가 호باط에게 한 말은 권유 같아 보인다(29). 두 번째 한 말은 사정짜다(31-32). 호باط이 이것을 거절하면 결국은 무엇을 거절하는 셈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룯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모세가 말한 내용이 이 땅에서 누릴 복에 대한 것이었을지 몰라도 실상은 어마어마한 복이다. 우리도 멋모르고 이런 복을 받았다. 성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듣고 따르는 자는 황재하는 것인데...

16. 호باط이 결국은 떠났다는 말인가, 동행했다는 말인가?

다른 기록을 참고하면 결국은 동행했다(삿 1:16, 4:11-21, 삼상 15:6). 그래서 훗날 대적 시스라를 죽이는 큰 공적을 세우기도 한다.

17.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눈의 역할을 법궤가 하고 있는데 호باط에게 이렇게 요청해도 되나?

하나님께서 머무를 곳을 지정하셔도 광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뜻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동역하시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그 분을 의지하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 하는 조화로움이 성도에게는 절실히 요구된다.

18. 광야의 땡볕?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럴 때에 구름 한 점이 얼마나 시원할까? 그런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는 구름이 있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 그 구름 밑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으니...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날마다 그러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부모의 돌봄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듯이 우리도 날마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영풍한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지 모른다. 날마다 감격함이 없는 성도는 광야의 땡볕을 가려주는 구름 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이다.

19.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아니,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모세의 기도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아가야 할 때는 앞장서서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머무를 때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출발할 때와 도착할 때 드린 모세의 이 짧은 기도는 그야말로 멋진 기도문이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적이 산재한 광야길이라도 담대하게 행군해야 한다.

민수기 11장

1. 일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악한 말로 원망할 수 있었을까(1)?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지만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다: '내가 그렇게 잘 해줬는데 감히 그럴 수가?'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셈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그랬는데 하물며 내가 베푼 작은 은혜쯤이야.

2. 물이 없는 광야에서 불이 나면 뭘로 끄지?

광야든, 호수가든, 하나님께서 지르신 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사람의 눈에는 자연 현상으로 보이든지, 누구의 실수로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싶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일이 있었을까? 결국은 범사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복되다.

3. 하나님께서 조준을 잘 못하셨나? 왜 진 끝에 불을 지르셨지? 한 가운데를 확 싸질러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철저한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경고만 하시겠다는 뜻이다. 시늉만 할 때 잘해야 하는데...

4. 이전에도 비슷한 불평이 있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향하는 도중에 그랬다(출 15:24, 16:2). 그 때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실까?

그 때는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상태였다면 이제는 알만한 상태에서 해서 안 될 말을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문자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는 더 엄격하게 물으신다. 말과 말란대로 요구하신다. 많이 받은 자의 책임은 더 무겁다.

5. 불이 나서 한바탕 소동을 벌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또 먹는 문제로 울고불고?

어린애니까: 문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아이 노릇을 하느냐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결코 성숙한 어른 노릇을 하지 못했다, 잠깐만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셨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 뜻을 따라 살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쳐주셨다!

6. 일부가 탐욕을 품은 결과 모든 이스라엘이 동조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기는 했겠지만 생각이 현실화되는 데에는 몇몇 주동자가 있어야 한다. 주동자만 없으면 괜찮을까?

아마 또 다른 주동자가 생길 걸: 구제불능이란 애기가? 조금 더 참고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까? 조금의 인내가 부족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부부사이에서도 '청소를 좀 해주어야겠구나' 하고 일어서는데 부인이 '여보 청소 좀 해주' 이러면 그만 하기 싫어지는 경우가 많다. 딱 한 박자만 늦추면 일이 저절로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미련공행이 같이 기다릴 수는 없는 걸까?

7.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6)? 메추라기는 출 16:13에서(1년 2월 15일) 오고 끊어진 모양이다.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더 지났다. 일 년 동안 만나만 먹었다. 불평할 만하지 않은가?

애굽에서 먹던 것만 생각하니 그렇다. 만나가 날마다 내리는 것도 기적의 연속이다. 기적도 계속 되면 단순한 일상이나보다. 비록 자극적인 양념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신 완전식품이었을 텐데... 그것마저 없는 경우와 비교해 보면 감격스러울 텐데...! 애굽에서 먹던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종살이 하던 것을 생각해야 하고, 만나만 주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데 봐야 할 것은 못 보고, 가볍게 여겨도 될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우리 인생인가보다. 메추라기는 여기서 다시 언급되고는 또 끝이다! 기적의 끝에도 만나만 언급된다(수 5:12).

8.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을까?

종살이 하면서 얻어먹은 것이 뭐 그리 대수라고? 몸으로 때운 것도 값을 지불한 거지. 배부른 돼지가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낫더라는 거지?

9. 밤에 이슬처럼 내린 만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를 해서 먹었다. 햇별이 뜨겁게 쪼이면 녹아버렸다고 했는데(출 16:21) 어떻게 삶을 수가 있었을까? 그늘에서만 먹었을까?

아침에 늦게 나가면 구할 수 없도록 늦게 하셨지만 요리해서 먹을 때는 녹지 않았다. 만나가 날마다 내리는 것도 기적이지만 게으른 사람은 구할 수 없게 하신 것도 기적이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하루를 넘겨도 상하지 않는데 평일에는 하루를 넘기면 상하는 것도 기적이다(출 20:19, 24). 향아리에 담아서 법궤에 보관한 것도 상하지 않았다.

결국, 만남은 훗날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상징이다. 질린다고? 예수님을 떡으로 여기고 먹는 자는 비록 육신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해도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지 깨달아야 한다. 질린다는 말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른다는 말이다.

10. 하나님도 참 답답하시겠다. 모세마저 이 모양이니. 대통령도 '못 해 먹겠다'고 하고, 영화 얘기지만 (Bruce Almighty 든가?) 하나님도 휴가를 가야 한단다. 성질 같으면 그냥 내던져버릴 텐데? 모세

가 고기를 구해다 먹이는 문제로 불평을 해댔더니 무슨 소득이 생겼는가?

조력자들을 주셨다. 이렇게 불평을 해도 야단맞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르니 온갖 녀석들이 다 도전을 하지! 혼자서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은 이처럼 위험하다. 적절하게 일을 분배하고 책임도 어느 정도 분산해야 한다. 책임이 중한 줄도 모르고, 책임질 생각도 없으면서 모든 짐을 혼자서 다 지고 가려고 해서 안 된다.

11. 모세에게도 짐이 과했던 모양이다. '이게 어디 내 백성입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서 달래기만 하셨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가장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헌신적으로 사역하다가 지친 목회자나 선교사들 아닐까? 한번쯤 이런 푸념도 늘어놓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사람에게서 최종적인 위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어야 한다.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았을 것을!

12. 성경에서 '그만 날 죽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

음, 모세, 엘리야, 요나: 음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요나는 한 방 맞을 소리를 한 것이다. 또,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이(변화산에 나타난 것을 참조) 그랬다. 위대한 사역자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닌 모양이다. 한국의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죽을병에서 고침을 받은 경력이 있다던가? 이런 고난을 겪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은 불가능한가? 스스로 하나님의 훈련장에 자신을 던지는 자가 복되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13.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가장 속 터지는 소리는?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 있었다' 하는 말: 실컷 고생해서 구해뵈더니 하는 소리 봐라. 물에 빠진 사람 구해뵈더니 보따리 내봐라 한다더니!

14.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조력자를 70명이나 붙여 주셨다. 그들을 가리키는 말 중에 '네가 아는 자'란 말(16)은 무슨 뜻일까?

70명에 대한 선발권한을 모세에게 위임하셨다는 뜻: 하나님께서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뜻이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일을 맡기신다. 자신의 선택권을 깨끗이 반납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분도 적지 않다. 하고, 그게 편하기야 하지!

15. 고기를 달라고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고기를 냄새가 나도록 먹여서: 하나님의 징계 방법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와 관련이 많다.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어거지를 부리는 자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외군 군대를 동원해서) 심판을 행하셨다(사 28 장). 하나님 앞에서 합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된다. 가급적 회망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징조를 구하라'는 데도 끝까지 거부하는 아하스에게는 '놀라운 징조를 주심으로' 징계하셨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그 땅을 안식케 하셨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면 다른 주인을 섬기게 하신다.

16. 모세도 아직은 더 성장해야 하는 모양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나게 체험했을 텐데,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바다를 가르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는 능력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건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만이라도 해보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해결해야 할 현실만 보면 너무나 답답하다. 현실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 아니다. 현실 너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믿음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보다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의 차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믿음이야 어디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은 변함없지만 충만함은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는 것이다.

17.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장래사를 선포하는 것(의미가 분명한 메시지)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방언'(의미가 분명하지 않은)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셨을까?

이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보여주어서 백성들이 순종하게 하려고: 예언을 행할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여주셨을 뿐이다.

18. 장로로 지명된 자가 소집에 응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일에도 오지 않았다? 이런 인간을 그냥 뒤? 예전에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별을 췌다고 하던데?

모세는 이들이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더 주목했다: 자기의 기분이나 느낌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당연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목사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는다고 열심히 가르치기 말라는 목사도 있던데? 어떤 분은 모든 교인들이 목사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19. 그러면 진에서 예언하는 것을 금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잘못인가?

모세를 수종 드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전에 모세의 수종자이다. 모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수종자로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말함으로서 오히려 모세의 권위를 제대로 세운 셈이다. 만약 모세가 화를 내고 그들을 벌하려고 했더라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을까? 말렸을까? 말려야 잘하는 건데... 나발을 벌하려는 다윗을 말린 아비가일처럼(삼상 25장)

20. 아마도 메추라기가 진의 바깥, 사방 30여 Km에 높이가 1m 정도로 쌓였던 모양이다. 31절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이를 동안 거뒀들이려고 뛰어다녔고, 십 호멜(=약 120말)을 거두었으니 하나님께서 엄청난(어쩌면 과도한) 양의 메추라기를 주셨음이 틀림없다. '어디 한번 실컷 먹어봐라' 한다고 좋다고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럼 어떡해? 고기가 지천으로 쌓였는데?

회개가 우선이다: 하나님의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걱정 말고 먹으라고 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도 없이 거뒀들이느라고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맛있다고 고기에 달려드니 작정하신대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고기를 먹는 것보다 먼저다.

민수기 12장

1. 이 사건을 미리암이 주도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 두 가지는 무엇인가?

미리암의 이름이 아론보다 먼저 나오는 것(1)과 별도 미리암이 혼자 받았다는 점: 아론도 전혀 죄가 없는 게 아닐 텐데? 미리암이 벌을 받고 아론이 급히 회개하고 간청하도록 배려하신 뜻일 것이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 칼에 둘 다 날려버리지 부르고 왜 부를까!

2. 미리암과 아론의 잘못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한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 동생이 절대적인 지도자로 있는 것을 시기하였던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잠시 잊었던 모양이다. 동생이 잘 되면 기뻐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자신도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또한 시기심이 있었는데 이방 여인을 맞아들인 일을 가지고 견수를 올렸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비방한 게 아니라 격의 높고 낮음을 따졌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시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이런 구절을 좋아하는 목사들이 더러 있는 모양이다. 그런 분들이 참고로 기억할 것은 모세 자신이 전혀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았고, 세상에서 최고로 온유하였으며, 소위 꾀발(?)을 부리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3.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3)는 표현을 보면 이 글은 모세의 글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의 잘,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가감없이 기록한 것이 성경의 큰 특징 중의 하나다. 자신에 대해서도 남의 얘기 하듯이 기록한 것도 그런 특징 중의 한 가지다. 원저자가 하나님이고, 사람은 기록자라는 증거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냉정하게(?) 남의 일처럼 기록할 수 있다면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 모세가 그렇게 온유하지 않던데? 애굽에서 격분하여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고, 화가 난다고 바위를 두 번 내리쳤다가 징계를 받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심적인 고통이 컸다는 뜻이다. '누구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된 줄 아느냐?' 그런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 사람들이 그걸 시기하다니? 아마 견디기 어려운 외로움을 토로하는 말일 수도 있다. 오죽하면 '대통령 못 해 먹겠다'는 말까지 나왔을까? 지도자 자리가 부러워 보일지 몰라도 그리 쉬운 자리는 절대로 아니다.

4.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친히 나타나셔서 간섭을 하십니까?

작은 일이 아니라 큰 뜻이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백성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만큼 큰 일을 미리암과 아론이 저지른 셈이다. 모세는 좋겠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5. 아론과 미리암도 선지자라는 말인가, 아니라는 말인가(6)?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말씀이다. 간접적인 표현이다.

6. 모세는 선지자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이상이나 꿈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하시는 관계다. 하나님과 친소의 관계가 다르다. 자기 딸이라도 왕비가 되면 왕에게 하듯이 해야 한다? 동생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가 됐다면? 처가에 가면 아내의 위치가 곧 나의 위치가 되고 시댁에 오면 아내의 위치는 남편의 위치와 같다.

7.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방법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상을 보거나 꿈이라도 꾸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얘기다: 지금도 이 세 가지 방법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모양이다. 특히 모세의 방법을 선호하는 인물들은 대체로 큰 인물들이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거나, 또 다른 구세주이거나! '이미 준 성경이라도 제대로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야단치시지 않을까?

8. 구름이 떠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왜 구름으로 나타나시나?

인간 앞에 모습을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픔이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예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키다리 아저씨, 스파이더 맨, 신분을 숨긴 채 사랑하는 사람, 인간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타락하여 신분이 강등된 인간 앞에 하나님은 나타나지 못하신다. 그래도 사랑하시느라고 구름의 모습으로 가끔 나타나신다. 언젠가 눈과 눈을 마주치며 대할 날을 기다리시며... (고후 3:16-18, 고전 13:12)

9. '슬프다 내 주여'란 말은 '비나이다, 주인님'이라는 말이다. 형이 체면도 없이 동생한테?

스스로 높아지려던 자에게 주어진 벌 아닐까? 더구나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지 않기를 비는 것을 보아 미리암의 증세가 그렇게 다급하게 매달리지 않으면 안될 만큼 심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10.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에 대해서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할 수 있나?

있다: 임금이 한번 내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하나님께는? 진정으로 통회한 자는 얼마든지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물리고, 대속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먼저 제시하셨다. 공의로우시기도 하시지만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기엔 가능한 일이다. 한 번 공포하면 공

또한 자신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메데 바사의 왕보다(단 6:15) 권위가 좀 떨어지나? 보기 나름이다.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크기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사랑은 없고 권위만 있는 것이 메데 바사의 법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중보기도는 위력이 크다(창 18:22-33, 출 32:32, 삼상 7:5-9, 대상 21:17, 욥 42:9-10, 요 17:9).

11. 아버가 왜 자식의 얼굴에 침을 뱉나(신 25:9, 막 14:65)?

거의 중죄인으로 취급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럴 경우 칠 일간 참회해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치셨음에도 진 밖에 칠일만 가둔 것은 엄청나게 봐준 셈이다.

12. '문둥병이 발한 미리암' 이 표현을 어떤 의미로 쓰면 좋을까?

지도자를 시기하는 사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 한 사람(미리암 한 사람 때문에 행진을 멈췄다)?

민수기 13장

1. 11장, 12장, 13-14장의 내용을 비교해 보자.

갈수록 태산이다. 점점 더 불신의 증세가 심해지는 이스라엘이다. 방구가 잦으면 똥을 싣다더니... 방구 소리가 날 때 주의해야 한다.

2.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각 지파의 족장들을 보냈다? 족장이라면 대체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인데, 40일이나 걸리는 정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3절에서는 두령이라고 한다. 족장을 돕는 실무자(흔히 말하는 '총무') 수준의 젊은이였을 것이다: 갈렘의 나이가 이 때는 대략 45세였다(참고, 수 14:10). 족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넓은 의미로도 사용되는 모양이다.

3. 정탐꾼들을 보낸 결과가 참담하다. 하나님은 이럴 줄 몰랐을까? 알면서도 보내라고 했을까(참고 신 1:9-23)?

정탐꾼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백성들이었다.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뿐이다. 일을 하는 순서나 과정이 올바른가를 생각해 보면 미리 정탐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엉뚱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4. 12 정탐꾼 중에 안면이 있는 사람은?

갈렘, 여호수아(호세아): 훗날의 행적 때문이다. 지금은 거저 12명의 두령 중의 한 사람일 뿐이지만.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think You are what you do!*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이름의 무게가 달라진다. 불신앙의 길을 걸은 다른 10명의 이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5. 이스라엘의 12 지파는 야곱의 12 아들로부터 연유된 것이다. 본문에 나타난 12 지파의 이름과 야곱의 12 아들을 비교해 보라.

레위가 보이지 않고 요셉대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있다: 레위는 훗날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 차지해야 할 땅이 없기에 정탐에서 제외되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야곱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은 13인 셈이다. 그럼에도 약간의 변화를 보이면서 계시록까지 12 지파로 존재한다.

6. 호세아는 '구원하다'라는 뜻이다. 여호수아는 여기에 한 자가 더 붙은 형태이다. 무엇을 뜻하는 말이 덧붙었을까?

여(호와) + 호세아: 여호와(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다. 이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말렉 전투 때이다(출 17:8-13). 이름을 고친 것은 그 사건 이후일 가능성이 크고, 여기서 다시 언급한 것은 앞으로 그가 말아야 할 중책을 감당한 보충설명 정도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7. 우리나라는 국토를 대체로 산악지대와 평야지대로 나눈다.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본문에서 찾아보자.

산지, 해변, 남방(29): 남방은 '네키프' 즉, 사막지대를 가리킨다. 산지는 가나안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산악지대다(헤브론, 예루살렘, 벰엘).

8. 정탐꾼들이 알아보고 와야 할 사항이 몇 가지인가?

6가지: 거민의 강약, 다소, 땅의 호 불호, 성음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의 후박, 수목의 유무. 이 걸 돌로 나누면 싸우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거민과 성음의 형태)과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땅과 토지)으로 나눌 수 있겠다. 진영인지 산성인지라는 말은 성벽이 있는지 없는지라는 뜻이다.

9. 정탐꾼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자세는?

담대함(20): 단순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라는 말이다.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조차 악으로 변해버린다.

10. 신 광야에서 출발한 것이 2월 20일이었다. 그러면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면 몇 월경일까?

7, 8월경이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이런저런 불신앙적인 일 때문에 행진이 무척 더딜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11. 정탐꾼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정탐했는가?

신 광야(남단)에서 하맛 어귀 르홉(북단)까지: 21절이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고, 22-25절은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12. 느닷없이 헤브론이 애굽 소안보다 칠년 전에 세워진 것이라는 설명은 헤브론이 어떤 곳이라는 말인가?

오래 된 도시: 애굽의 소안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가장 오래 된 도시로 여겨졌을 법한데 그보다 먼저 세워졌다는 것이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름이 나온다(창 13:18). 따라서 요지에 권고하게 세워진 성읍이란 뜻이며 강력한 부족(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곳이다. 훗날 갈렘이 달라고 요구하여 가나안 전쟁을 마무리한 곳이기도 하다(수 14:14).

13.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무거우면 둘이서 메고 왔을까?

무게보다는 원형 그대로 운반하기 위해서 막대기에 꿰어 운반했을 것이다: 가령, 5kg만 된다 해도

부피 때문에 혼자서는 원형을 손상시키지 않고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4.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골라낸 좋은 땅이라고 한다(겔 20:6, 15). 정탐꾼들의 보고도 그렇다. 광야에서 본 게 없던 사람들의 일시적인 착각일까, 문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일까?

현재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도 그랬을까?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가나안 땅이 황폐화되리라는 말씀이 워낙 많은 것을 참고하면 문자 그대로 좋은 땅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15.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도 문제는 아낙 자손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아낙 자손을 보는 것이 문제다. 아낙 자손을 언급하는 순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으로 변하고 말았다. 밥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러나 멀리 있는 밥을 보지 못하면 불행한 법이다. 역사는 사료보다 사관이 더 중요하다. 보는 것보다는 해석이 더 중요하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해석이 다르면 결과도 전혀 다르다.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다.

16. 가나안의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했다는 것은 과장이다. 겁을 먹으면 그렇게 과장되게 보인다. 그러면 거민을 삼키는 땅이란 왜곡인가?

장점을 외면하고 애써 단점만 부각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지? 비판? 좋은 땅이기 때문에 외적들의 침입이 끊임없을 것이라는 지레 겁먹은 소리다.

17. 갈렙과 다른 정탐꾼의 차이는 무엇인가?

현실만 보느냐 아니면 그 뒤의 하나님을 보느냐의 차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꿈, 소망을 가지는 것)도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준다. 하물며 배후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다. 왕자병도 문제지만 메뚜기병은 더 큰 문제다.

민수기 14장

1.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14:1~13절을 본문으로 해서 '부흥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대지는 '1)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 2) 비전을 품으라, 3) 지도자를 신뢰하라'였다. (어이가 없지만) 각각의 대지를 어느 구절에서 찾았을까? 그리고 비판한다면?

1) 12절: 추측인데 '좌절하고 포기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신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설명한 모양이다.

2) 8-9절: 갈렙의 말에는 전혀 이의가 없다.

3) 4절: 도대체 누가 신뢰해야 할 지도자인가? 한 장관인가, 모세인가? 아마도 이런 짓을 하지 말고 모세에게 순종하라는 것 같다.

비판) 부흥에 관해서 설교하려면 부흥의 내용이 담긴 본문을 택해야 한다. 징계 받는 장면에서 반대로 부흥의 비결을 말하다는 것은 공부 못해서 낙방한 학생들에게서 성공의 비결을 찾는다는 것과 비슷하다. '이러면 실패하는구나' 해서 반대로 하는 유익은 있겠지만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 되지는 않는다. 더구나 위의 구절에서 이런 대지를 뽑아내는 것이 논리적이지도 않다. 12절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2. 정말 '온 회중'이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곡'을 했을까? 그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까?

군중심리처럼, 분위기에 휩쓸리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주의해야 한다. 1절의 표현은 엄청나게 강조된 표현이다. 거대한 홍수처럼 불신의 물결이 온 회중을 덮어버렸다. 그러나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거대한 물결처럼 흘러가는 시류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혼자서라도!

역으로 분위기를 잘 잡아서 헌신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부흥회나 선교 세미나 같은 데서! 분위기를 돌우어 흥분한 상태에서 서원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 집에 돌아가서 찬찬히 생각해보고 가족과 의논하라고 하면 결과가 영 신통찮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족을 버리라고(?) 하셨는가? 만약에 이런 것이 옳은 방법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셨을 것이다. 기적을 체험하고 구름떼 같이 모인 사람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세우거나 로마와 싸웠더라면 얼마나 간단했을까?

3. 백성들은 특하면 죽음을 운운했다(1-2).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말인가?

죽음에서 견져낸 은혜를 잊어버린 말이기 때문: 유월절, 홍해도하, 만나, 반석에서 물을 낸 것 등을 입신여기는 처사다. 목숨을 바쳐 구해줬더니 킬링 죽어버렸다면 구해준 사람이 얼마나 허망하겠는가! 이스라엘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도 이해 못할 일이다(11). 이적을 수없이 보고도 믿지 않는다?

4.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살짝 야단을 쳤더니 '그렇게 때리려고 날 낳았어요?' 하면? 살이 너무 찌서 밥을 조금 적게 줬더니 '굵겨 죽이려고 날 낳았어요?' 하면 아마 속이 다 뒤집히지 않을까?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다면?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갈에 망하게 하려고(3)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이렇게까지 곡해할 수 있을까? 말끝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심판하려면 왜 인간을 만드셨나요?' 하는 질문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비슷한 질문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빨리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 한다.

5. 만약에 말이지만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가서 뭐라고 말하려고? 다시 종으로 받아주라고?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사탄의 손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사탄에게 돌아가는 것도 이런 형국이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한번 비침을 받고 다시 타락한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엄히 경계하였다(히 6:4-6). 초대 교회 시절에 이런 위험에 처한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6. 모세와 아론이 왜 엎드렸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장소는 회중 앞이지만 회중에게 엎드린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다.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으로서는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겠지만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7. 우리는 누군가가 옷을 찢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히브리인들은 옷을 찢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비통해서 마음을 찢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울고불고 하던 자들이 멈춰서 주목할 수 있다. 마치 누군가 'Help me' 하면 한국 사람은 그렇게 위험을 느끼지 못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낌이 전혀 다르다.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마음을 찢는 결단이 필요하다.

8.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기에 이것은 그 땅 백성과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의 문제인가?

우리의 보호자와 그들의 보호자와의 문제다. 우리가 나서서 '되니 안 되니'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마치처럼 비싼 식당에 아이들을 데려갔더니 '아빠 돈 있어?' 한다. 걱정스러워 하는 말이다. '걱정 하지 말고 마음껏 먹어!' 돈을 지가 내냐?

9.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믿음을 가지는 방법은 아무도 모른다. 그냥 믿는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가? 어

면 증거를 제시해서 될 일도 아니고 논리적인 설명으로도 이적으로도 되는 일이 아니다. 온갖 이적을 체험하고도 이렇게 속 터지는 소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 이적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앞에 놓고 일생일대의 도박을 하는 셈이다. 빨리 자신을 던져 확인해보는 것이 최선이다. 믿고 들어서면 확신이 선다. 모세조차 등 떠밀려 이 길로 들어서지 않았던가!

10. 아담의 범죄, 노아 시대의 범죄, 여기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각각의 심판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끝장을 보지 않았다: 아담의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류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되기까지 엄청난 저주 아래에 놓였다. 노아 시대의 범죄로 모든 것이 끝나야 할 판이었지만 노아를 통해서 끈을 이어가셨다. 이제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멸하려 하시지만 그래도 다른 민족을 준비하시겠다.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신 뜻이다. 하나님과 특수한 관계로 만드셔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11. 모세의 중보기도가 위력적인 이유를 두 가지만 든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기도(13-16), 말씀에 근거한 기도(18-19): 결과적으로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만 한 마디도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지 않는다. 글썽, 불쌍하게 여길 가치도 없는 걸까? 아니, 실제로는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오직 이유를 하나님에게서만 찾는다. 모세가 영악스러운 고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

12. 모세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란 무엇인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죄를 사하시는 인자: 다른 능력이 아무리 많은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권능이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능력(13, 17)이 나타나 있지만 모세는 바로 이 능력에 기대어 호소하고 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온다. 최초의 이 표현은 출 34: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 적절한 때에 잘 쓰고 있는 셈이다.

13.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는 얘기는 왜 하는가?

'하나님께서 무골호인처럼 그렇게 허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잘 압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용서해 달라는 것이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처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14. 사하노라고 하고선 또 벌을 주잖아? 아담의 경우와 비교해보자.

아담이 용서를 받지 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했다. 모든 것이 끝나야 하는데 이런 저런 벌을 받았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뜻이다. 아담이 받은 벌은 달리 보면 회복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은 끝장이 나야 할 시점에서 끝내지 않고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일부는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하지만 구원역사가 끊어지지 않았다.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다른 벌은 받았다. 그 벌이 가볍지 않았다. 다윗이 그 벌을 기꺼이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음을 알기 때문이다. '성도의 겸인'이라는 말만 믿고 함부로 하다가는 매를 맞을 수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 받았으므로 함부로 행동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매를 맞을 수도 있다.

15. 하나님은 무엇을 걸고 맹세를 하시는가?

하나님 자신(21): 다른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해 줄 수 없다. 그 분 자신이 최상의 가치이므로! 나름대로 자신의 이름을 걸 수 있는 사람도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16.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진짜 열 번이나 시험했는가?

절저하게만 뜻이다: 열 번의 회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10은 완전수라고 한다. 완전하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이다. 그래도 악착같이 찾아본다면, 노역의 가중(출 5:21-6:9), 홍해(출 14:11-12), 마라(출 15:23-24), 신 광야(출 16:2), 만나(출 16:20, 27), 르비딤(출 17:1-3), 금송아지(출 32:1-6), 다베라(민 11:1), 기브롯 핫다야와(민 11:4-23), 그리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 등이다. 시험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만 문자대로 읽어도 별로 틀림이 없다. 오히려 이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다.

17.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갈렙 혼자 들어가야 하나?

여기서 **갈렙은 '일반적으로 보면 죽어야 할 대상이지만 죽지 않을 사람'을 의미한다:** 징계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사람에는 20세 미만, 레위 지파, 여호수아, 모세(아직은 자격이 있음), 아론(다른 일로 죽지 않는다면), 엘르아살 등이 있다.

18. 25절을 주목하자. 이 구절만 떼내어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기 때문: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군시켰다고 말하면 그야말로 코미디가 된다. 문맥을 무시하고 글자에만 매달리면 이런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굳이 따지자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말은 백성들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셈이다. '너희 말대로' 해라는 식이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종종 '말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이다. 적극적이고, 소망이 담긴 말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19.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28)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야흐로 광야로 바뀌는 순간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말은 2절이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20.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신 것을 잘 기억한다.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이 아니다. 아니, 설령 심판을 기억한다고 해도 심판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잘 기억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27)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참는 데까지 참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을 때까지 참고 참으신 것을 생각하면 함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21. 나이가 죄인가? 20세가 안된 젊은이들 중에 하나님을 원망한 자는 없었을까? 어른들이 이런 분위기에 빠져 있으면 아이들도 같은 짓을 하게 마련인데, 나이가 적다고 봐준 걸까?

이들을 전부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끝까지 반항하고 거역하면 징계를 받게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20세 미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철이 없어서 용서해 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다. 자기가 잘 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오늘도 그렇게 팔팔한 줄 알아야 한다.

22.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유리하게 된 근거는 불순종이다. 그러면 그 기간이 40년이 된 것은 무슨 까닭일까? 가나안 땅을 40일간 탐지하였기 때문?

다음 세대가 자라날 기간(성장)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되어야 할 기간(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불순종한 이 세대를 단번에 멸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에게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한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데 한 민족이 연대의식을 가지게 되는 데에도 40년이란 세월이 필요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은 40년이 필요하셨고, 그래서 40일 간의 정탐날짜와 상징적으로 연결하셨을 것이다. 정확하게 따지자면 앞으로 38년 조금 넘는 기간이다. 지나간 1년 2개월 정도를 포함해서 40년이다.

23. 10명의 족장(두령)들의 명단이 발표될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13:4-15)?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죽고 말았다. 명색이 부족의 대표인데 그렇게 잘 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된 셈이다. 차라리 잘 나지를 말든지... 인물 좋고, 집안 좋고, 돈 많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경고하는 성경말씀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아굴의 기도(잠 30:8-9), **많이 선생되지 말라던 야고보의 교훈(약 3:1)**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좋은 것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믿음을 가지도록 가르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결국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되기도 한다.

24.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은 산지에 있는 적과 싸우러 간 것이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데?

청개구리다: 선고가 나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지. 싸우러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차라리 회개부터 했더라면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우선이다. 그게 안된 상태에서는 자신의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으라. 돈이나 힘으로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25. 순종 없는 열심?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 이것 참 머리 아프다. 이런 사람들이 즐겨 쓰는 단어를 하나 찾는다면?

그래도(44): 고집쟁이!

민수기 15장

1. 여기 제사 제도에 관한 내용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직접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증거가 혹시 있을까?

2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반면에 13-14장의 대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다. 14장과 시기적으로 연속된 기록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군하여 방랑하는 도중, 아마도 방랑의 마지막 어느 시점에 주신 말씀같아 보인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

2. 크게 보면 본문에 나오는 제사의 방식 두 가지는 무엇인가?

화제(3-12)와 거제(17-21): 화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지 제사의 종류는 아니다. 번제, 서원제, 낙헌제, 각종 절기제, 화목제는 전부 불에 태워드리는 화제이며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제가 있다. 좌우로 흔드는 요제가 있지만 여기에는 언급이 없다.

3. 여기서는 번제, 서원제, 낙헌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레위기 1-7장에서 보아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5-12절이 화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생각해 보자.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소제와 전제도 함께 드려야 한다: 3-4절은 5-12절 내용의 개괄적이며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 것이다. 별개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사항은 이렇한데(3-4)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5-12)과 같다는 식이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소제도 전제도 함께 드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소제물의 기본은 '고운 가루 예바 십분지 일에 기름 한 힌의 사분지 일을 섞은 것'이고 전제는 포도주다.

왜 번제에 소제와 전제를 꼭 넣으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더 향기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번제물은 완비되었다. 거기에 소제와 전제를 더하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의미 아닐까? 우리 것도 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다.

4. '고운 가루 예바 십분지 일에 기름 한 힌의 사분지 일을 섞은 것'(4)을 두, 세움절로 표현한다면?

소제(물): 홑 素자를 써서 힌 제물이란 뜻으로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드리는 제사이다. 자세한 의미는 레위기에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5. 소제물과 함께 드려야 하는 화제물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화제물의 종류에 따라 소제물의 양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서)

어린 양(어린 염소), 수양, 수송아지: 이렇게 세 종류로 보는 것이 좋겠다. 어린 염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어린 양과 같은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어린 양의 경우에 소제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소제물의 양은 고운 가루 1/10 2/10 3/10 예바로 많아지고 따라서 소제물에 첨가되는 기름과 전제물인 포도주도 1/4 1/3 1/2 힌으로 증가한다.

큰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소제물도 그만큼 양이 많아지는 것이 옳다. 믿은지 오래 된 사람과 금방 믿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바가 꼭 같을 수는 없다. 초신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지 말라! 많은 것을 맡긴 종에게는 많은 것을 찾으신다(눅 12:48).

6. 번제를 드릴 때, 즉 고기를 불에 사를 때 기름으로 반죽한 가루와 포도주를 부어서 함께 태우면 더 향기로운가?

모르겠다: 여기서 향기롭게 드린다는 것은 어떤 제물이든지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야 한다는 말이지 소제나 전제가 있음으로 더 향기롭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 노아가 드린 향기로운 제사에는 소제가 없었다(창 8:20-21, 참고 레 1:13). 제물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 더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과부의 두 렵돈이 가장 향기 나는 제물 아닐까?

7. 훗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소위 그릇된 선민사상이다. 그런 유대인들이 보기에 말도 되지 않는 구절이 있다면 무엇인가?

15절의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말이다(26, 29). 그런데도 어떻게 이방인을 그렇게 차별했을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통이나 조상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동일하게 여기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마 15:3, 막 7:8-9)? 상놈, 양반을 구별하지 않을 때 교회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불신세계를 파괴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저런 방식으로 구별하거나 차별함으로 스스로 힘을 잃어가고 있다.

8. 거제란 제물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것이다. 들어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고, 내리는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린다는 뜻이다. 그런데 떡을 만들어 거제를 드리되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드리란다(20). 왜 타작마당에서 거제를 드렸을까?

모든 제사는 성전에서 드렸다(레 23:10, 출 23:19)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타작마당에서 바로 가져와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처음 추수를 해도 하나님께 먼저, 처음 익은 곡식으로 떡을 해도 하나님께 먼저! 범사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이다. 다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바치라는 것도 아니니 즐거운 마음으로 먼저 드리는 것이 복이다.

9. 어른이 먼저 손가락을 들면 아이들도 따라서 드는 것이 밥상머리 예의인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바치라고 해도 별 이의가 없겠다. 고생해서 추수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좋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 땅을 주신 것(18)에 대한 감사여야 한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것이 되지 못했다. 이미 받은 은혜,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표를 내는 것뿐이다. 성도는 이런 감사가 먼저다.

10.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별도의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 탈이 난다. 인터넷으로 온 세상이 연결된 현대는 더욱 그렇다. 반면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인간이 약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런 예를 제사규례에서 한 가지 찾는다면?

부지중에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란 것을 알고 계셨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반드시 생긴다. 그런 경우를 대비한 제사법을 따로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사려 깊은 배려인지 생각해 보자.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서로의 단점을 보충해가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이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자가 있다는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데서 나온 말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다.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마찬가지다.

11. 회중이란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데 온 백성의 죄를 수송아지 하나와 수염소 하나로 용서하시는가(24-25)? 한 사람을 위한 속죄제(27)와 비교해서 너무 작지 않은가?

정말 작다: 굳이 따지자면 속죄물로 내놓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죄를 속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목적이 제물이 아니다. 성의를 봐서 용서하시겠다는 뜻이다(25) 용서를 비는 흉내만 내도 용서하시겠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제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을 만드신 분도, 가르쳐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제안이나 고안이 아니다.

12. 온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셨다.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화제는 무슨 의미로?)

제사의 순서는 속죄제가 먼저: 레위기에서도 번제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고(1장) 나중에 속죄제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4장). 그러나 실제로 제사를 드릴 때는 속죄제를 먼저 드렸다(레 5:7-10). 속죄제는 제물도 작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도 아니다. 그렇게 속할 받은 후에 감사와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번제는 크고(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다.

13. 레위기 4장에 따르면 온 회중의 죄를 위한 속죄제에는 수송아지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수송아지와 수염소가 필요하니깐 속죄비용이 증가한 셈인가?

결과적으로 줄었다: 속죄제만 본다면 수송아지에서 수염소로 줄어들었다. 레위기 규례는 속죄제를 수송아지로 드리고 난 다음에는 번제를 자원하여 드렸다. 여기서는 자원제로 드리던 번제를 의무 사항처럼 기록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수송아지 둘에서 수송아지와 수염소로 줄어든 셈이다. 자원하는 마음이 부족한 철없는 이스라엘을 교육시키는 셈으로 자세하게 언급하신 모양이다.

14. 하나님은 끝없이 인내하시는 분이시며 부지중에 지은 죄를 속할 방법까지 가르쳐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고의로 지은 죄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죄를 다른 말로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무엇이라 하는가?

여호와 휘방죄(30), 성령휘방죄(마 12:31, 막 3:29): 안식일에 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바로 이 죄에 해당하는 셈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성령휘방죄다. 간단하게 말하면 안 믿는 죄다. 그러니 방법이 없지!

15.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옮기면서 빠트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개수를 세는 것이다. 배서방이 자기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허리춤에 배를 달고 다니다가 꼭지서방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다. 학생들은 준비물 내용을 손바닥에 쓰기도 한다.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잊지 않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옷단귀의 술과 거기에 달린 청색 끈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이다. 기억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에도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연결형? 연결형? 이름이야 어떻든! 이렇게까지 자신을 기억해주시기를 바라시건만...

16.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지 못하도록 이런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 것이니라'는 말과 동일하다. 이거야말로 사랑고백이 아닌가? 애굽에서 구해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내 백성이니까! 왜 사랑하냐고? 사랑에 꼭 이유가 있어야 하나? 그냥!! 자기형상을 닮았기 때문인가? 맞는 말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도 결과적인 얘기다.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 그냥! 은혜다!

민수기 16장

1. 고라가 반역의 주동자였던 모양이다(5). 그는 모세와 사촌지간이고(출 6:16-21) 성막 봉사와 교육을 맡았다. 그런데 왜 반역을 일으켰을까? 다른 세 명은 르우벤 지파다. 반역에 동조한 이유가 있을까? 구체적인 이유는 다르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같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잊은 것이 주원인이다: 모세가 세움을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출 19장)임을 잊은 탓이다. 인간적인 면만 본다면 사촌지간에 특별히 더 나올 이유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나라고 못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아론의 자리를 노렸을 것이고, 르우벤 지파 사람들도 본래는 자신들이 장자니까 조상의 실수로 빼앗긴 장자의 지위를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를 노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타난 현상, 즉 사람만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다. 졸면 목이 잘릴 수도 있는 전방에서 보초를 서는 것도 몇 달이 지나면 만성이 된단다. 아무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하더라도 온통 기적 속에 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었을까? 기적도 너무 잦으면 일상이 되는가? 끔찍한 적응력이여! (출 6:16-21을 정리하면 족보상으로 레위, 고핫, 이스할, 고라가 되고, 또, 레위, 고핫, 아르람, 모세가 된다. 그러면 고라는 모세의 4촌이다.)

2. 반역자들의 말이 어디가 문제인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은 문제없다. '스스로 높이느뇨?'가 문제다.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닌데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모양이다.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계시다는 것은 알면서 그 분이 이렇게 세우신 것은 왜 모를까? 엉뚱한 욕심에 눈이 멀면 뻔한 것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지 훗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는 명백한 표시를 낸다(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는 것). 모세도 그랬지 싶은데?

3. 이 정도의 무리가 들고 일어나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 친위대가 있어서 막아낼 형편도 아니고?

하나님께 앞드릴 수밖에 없다(4):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 하니'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막 10:42-43). 군인들을 동원해야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아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은 인간이 만들어낸 억지 권위일 뿐이다. 아무런 힘도 없는 모세가 일어나 당당하게 외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모양이다.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경호원을 대동한 목사? 타락해 가는 교회의 상징이다.

4. 모세가 달리 대답할 말이 없었을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누구냐? 누구의 인도로 홍해를 건넜느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온 자가 누구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달라고 누가 기도했느냐? 등등 할 말이 많았을 것이다. 이런 대답이 정당함에도 반역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할 말을 다 하면서 당당하게 싸우는 분들이 있다. 먼저 하나님께 앞드려야 하고, 응답이 없으면 싸우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

5.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분별하기 위한 방법이 하필이면 향로일까?

고라가 노리는 것이 제사장직인 것을 알았기에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셈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아니 받으실지 보자는 것이다. 이러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도...? (레 10:1-3)

6. 제사장이 되는 것(10)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것(9) 중에 어느 것이 더 욕심이 나는가?

그 정도의 은혜를 입었으면 문지기를 시켜도 감지덕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옳다(시 84:10).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격하여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며 봉사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다. 어떤 자리보다 이런 감격이 우선이다. 9절은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종이다. 아니, 목사, 장로가 교회에서 높은 자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종이다.

7.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11)?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출 16:7-8): 그래서 아론에게 합부로 대들어서는 안 된다. 어쩌면 그러라고 7일간이나 성대하게 위임식을 치르게 했는지도 모른다(레 8:1-9:24) 흥이야 있다. 말은 잘 하지만 한 때 백성들의 강권에 못 이겨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고,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힐난하기도 했다. 자식들을 잘못 키워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고 말았다. 이런 저런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래서 합부로 제사장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8. 칼을 뽑았으면 끝장을 봐야지 다단과 아비람은 왜 오지도 않는 거야?

아예 순종하지 않겠다는 뜻: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기도 전에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다. '네가 뭔데 우리더러 오라 가라는 거야?' 뭐 이런 식 아니었을까?

9. 다단과 아비람의 말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고약한 부분이 있다면?

애굽을 쪼파 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것(13):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특별히 고른 땅을 무시하고 어떻게 애굽을 쪼파 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가? 완전히 반항이다. 그 외에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라고 하는 것도 억지다. 오랜 기간 동안의 방향도 처음에는 자신들이 잘못으로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원망으로 바뀐다. 자신

들의 잘못은 흐려지고 원망은 커지고...

10.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굳이 양심선언(?)을 할 필요가 있나(15)?

다단과 아비람의 말로 인해 화가 많이 났다는 뜻이다. 이렇게 남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다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어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한 줄 아는 모양이지? 못 한다고 발을 얼마나 뻗는지 알거나 알까? 지도자 노릇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인 모양이지? 속이 끓아 터지는 줄도 모르고?

11. 그렇게 많은 향로가 있었나?

성전에서 사용하던 향로가 아니라 각자 개인이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집에 화로를 쓰던 것을 가져왔던지...

12. 겁도 없이 자의로 향로를 가지고 회막문에 섰다(18)? 이 곳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내시는 곳(출 33:9-10)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잡는 곳(출 29:11, 42, 레 3:2, 4:4)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자신이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회막문이 바로 그런 장소다. 겁도 없이 자의로 향로를 들고 이곳에 선다는 말이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은 것도 잊어버렸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겁나는 짓도 예사로 할 수 있다!

13. 온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신 적이 벌써 몇 번째인가?

세 번째: 시내산에서(출 32:9) 가데스 바네아에서(민 14:12) 여기서(민 16:21) 진짜 이스라엘을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은근히 모세가 말리기를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은 로보트나 절대적인 전제군주와 같은 분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분이다. 인간의 표현대로 하면 종종 마음을 바꾸셨고, 물리기도 하셨고, 대속도 하셨다.

14. 대상 6:37. 9:19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에서 귀중한 직책을 맡고 있다. 아버지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는가?

고라는 가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27).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은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26:11). 그러므로 32절은 가족이 아니라 동조한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

15. 모세의 말대로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징계가 임했음에도 어떻게 이것이 모세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

감정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생각없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아론은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혹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모세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을까? 그랬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16. 땅이 갈라졌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는데 혹시 죄가 없는데도 빠져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다. 지진이든, 불이든(레 10:1-2) 우박이든(수 10:11) 징계의 대상을 선별적으로 가려낸다. 땅이 반역자들을 삼키는 것을 보고 도망치는 것(34)은 쓸데없는 두려움이다.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도망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17. 향로는 거룩하다(37)? 그 향로에 불을 담아 바친 사람은 징계를 받아 죽었을망정 향로는 거룩하다? 도대체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거룩'하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부분 중에서 제사장에게 주는 부분은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이유를 참고하자)

아무나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구별): 일단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므로 구별된(특정한) 용도로 쓰시겠다는 말이다. 그래도 기껏 경고용, 혹은 학습용 재료로 쓰였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 대신에 엘르아살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 같다. 절대 성결해야 할 대제사장이 손을 대기에는 부정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8.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무시하다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이튿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백성들의 눈에는 고라와 다른 무리들의 반역은 눈에 잘 안 보이고, 땅이 그들을 삼킨 것만 보인다. 매 맞은 아이가 매 맞은 이유보다는 맞았다는 사실만 기억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도 어제 일인데?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도 보이지 않는다.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린 탓이다. 오늘날에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과 비슷할까?

19.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을까? 대제사장을 현장에 보냈다. 일종의 시위다. 대제사장이 향을 들고 심판의 현장에 뛰어든 것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는 셈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라는 식이다(레 16:12-13).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식혔다. 후일 심판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가 대신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의 이 한 마디에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향로를 들고 선 아론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 그림자다. 이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아론의 제사장직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가 향을 피우면서 집례를 행하는 것이 이런 모습에서 유래한 것 아닐까?

20. 순식간에 14,700명이 죽었다.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얼마나 남았을까?

그래도 늘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의 인구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조금 늘었다.

민수기 17장

1.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적을 보여주신 적이 더러 있다. 이적을 요구하자 기적이 보여주신 적도 있지만(기드온의 경우 사 6:13) 이적을 요구하지도 않는 경우에 스스로 보여주시기도 했다(모세, 아하스, 히스기야, 다니엘, 예수). 이번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이 답답해서 이적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

매를 들고난 다음의 아픈 마음의 표시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선택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 다시는 매 맞을 짓을 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답답한 건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탓이다.

2. (재미로) 각 지파(종족)의 족장은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왔다.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지팡이인데 지파와 지팡이? 글자가 비슷한데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우리말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다. 두 가지 의미에 공통점이 있다는 말이다. 이 두 단어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해보자. (종족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지파가 더 원래 의미를 잘 나타내는 표현이다)

가지(branch): 그러니까 지파란 말은 나무 가지가 갈라지듯이 쪼개어졌을 뿐 한 민족이라는 개념이 바탕에 깔려 있는 표현이다. 직역을 한다면 '각 가지를 따라 가지를 하나씩 가져오라는 식이다.'

3. 다른 이적도 많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죽은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에게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 죽은 가지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흠으로 빚어진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이지 그러할 것이다. 산을 옮기는 기적보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큰 기적으로 여기시는 셈이다. 결국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실 것(엡 2:1, 골 2:13)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리라.

4.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으니 계속 자랐을까?

아마 조화처럼 성장이 정지된 채로 있지 않았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두었다는 표현도 있고 언약궤 안에 두었다는 표현도 있다(히 9:4, 잘라서?). 일단은 길이가 법궤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길 테니까 앞에 두었던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러다보니 가장 먼저 분실된 것(왕상 8:9) 아닐까?

5. 이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12-13)이 이상하지 않은가?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한 탓: 땅이 갈라져 고라의 무리들이 빠져죽은 것이나 염병으로 14,700명이 죽은 것이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온 것이다. 성막에 가까이 가면 죽는다는 생각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죽지 않게 하는 건데 (10)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친구로 알기보다는 심판자로 생각하고 두려움에 떠는 성도가 적지 않은 것을 보면 백성들이 이러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민수기 18장

1.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거의 대부분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기만 아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75번, ‘모세와 아론에게’ 8번 말씀하셨고, 아론에게는 18장에서만 3번이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다.
2. 성소의 죄를 담당하는 자는 누구인가? 설마 레위인 전부는 아닐 테고!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종족(=고핫 자손, 3:27-28): 아론도 고핫 자손이다. 고핫 자손이 성소의 기물을 맡았기 때문인데 결국 아론의 집안(가문) 전체가 성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레위인이라고 해서 합부로 성소의 기물을 다룰 수 없고, 고핫 자손이라고 해서 제사장의 일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무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셈이다.
3. 많은 종류의 직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듯하지만(2-4) 실제로는 간단하다. 두 종류로 요약해 보자.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인의 직무: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 일을 보조하는 일로 구분이 되는 셈이다. 즉, 제사장의 직무는 증거의 장막 앞에 있는 것(2, 직접 성소의 기물을 다루는 것), 성소의 기구와 단에 가까이 하는 일(3)이고, 레위인의 직무는 제사장을 섬기는 일(2), 곧 장막의 일과 회막의 직무에 ‘협력하여 지키는 것’이다. 여기서 지키는 것은(3, 4) 섬긴다는 뜻이다. 5절의 성소의 직무, 단의 직무에는 제사장의 일과 레위인의 일이 다 포함된 표현이다.
4.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레위인은 누구를 섬기는가?
제사장(2):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회회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형제를 섬기는 일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어린 소자에게 베풀 수 한 그릇도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다(마 10:42).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 올 수 없었다. 그나마 레위인과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섬길 수 있게 길을 여셨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길을 여시기까지!
5. 제사장 이외의 사람이 회막에 접근하는 일을 왜 이렇게 막으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야 길을 여셨는데...?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기 때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나아올 수 있게 하셨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을 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세우신 것이다. 위급한 환자에게 숨이라도 쉬도록 호스를 꽂은 셈이다. 그것도 없으면 당장 죽을 판이다. 그나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6.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레위인들을 붙여 주고 제사장의 직분을 준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유없음: 선물이라고 하셨다(6, 7). 선물이란 은혜로 주셨다는 말이고 은혜란 받을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주는 것이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서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에게는 그래야 할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자주 쓰신 표현을 빌리면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다(신 6:23, 7:8, 8:18, 9:5).
7.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목사에게 사례를 주니까 교인들이 목사를 먹여 살린다는 생각은 서로에게 대단히 위험하다. 왜 그런지 본문을 근거로 수정해 보자.
 교인들은 하나님께 드렸고, 목사는 하나님께 받았을 뿐이다. ‘더 내뉘라’ ‘있어야 주지’ 이런 다름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이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관리하는 사람도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9, 10).
8. 제사장의 양식은 무엇 무엇인가? 왜 이렇게 많아?
 거제물(8, 19),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9, =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 거제물과 요제(11), 첫 소산(기름, 포도주, 곡식, 12),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14 = 하나님께 아주 바친 것, 수 6:18), 대속물(17-18), 레위인의 십일조(28)
9.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의 가족은 무얼 먹고 사는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9 = 지성물이 아닌 것): 거제물과 요제물, 화목제물이 있고, 십일조로 드린 것도 있다. 지성물은 안 된다. 정결하지 못하면 뭘 먹지? 먹을 게 없다.
10. 본문에서 사람과 부정한 짐승의 공통점을 하나 찾는다면 무엇인가(15)?
대속해야 한다: 하나님께 직접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죽일 수 없고,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혹시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부정한 존재 아닌가?
11. 하나님은 처음 난 것에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실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라는 것: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도 같은 뜻이다. 다른 성읍의 전리품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장자는 내 것이라고 하신 것은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피값으로 살려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굳이 애굽의 장자를 치는 것이나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내신 것도 좀 더 넓게 보면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이시라는 것 때문이다. 십일조를 내라고 하시는 근본정신도 이것이다. 성도의 모든 행위는 이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한다.
12. 첫 아들을 대속하는 값이 은 다섯이라? 비싼가? 요셉은 20에 팔리고, 예수님은 30에 팔렸는데? **엄청나게 싸다:** 대략 20일 정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다. 첫 아들의 값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

마나 될까? 값으로 칠 수 없는 것을 은 다섯만 받겠다는 것은 내는 시늉만 하라는 것이다.

13. 소, 양, 염소의 첫 새끼는 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 대속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데 이것들의 새끼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14. 언약을 왜 소금에다 비유하시는가?

변함없기 때문: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변하지 않을 터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할까? 잘 믿지도 않고 잘 변하는 사람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스스로 부패하지 않는 비결이기도 하다. 언약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그 언약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지켜 준다. 말씀대로 산 선배들의 고백이다.

15.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땅을 소유해서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것과 성막의 일을 하면서 백성들의 십일조를 소득으로 얻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좋을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을 왜 택할 것인가 생각해 보자.

정답 없음: 아마도 소득에 관심이, 혹은 욕심이 있다면 전자가 낫고, 하는 일에 관심이 더 많으면 후자가 아닐까? 소득에 욕심이 더 많은 데도 후자를 선택한다면 교회가 타락해가는 셈이다.

16. 백성들이 십일조를 했으면 됐지 십일조로 받은 것 중에서 또 십일조를 해야 하나?

십일조를 하나님이 필요해서 거두는 세금이나 샅으로 여기는 발상이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게 있어서 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다. 레위인이 받은 것도 백성들이 낸 십일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양식'이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실상은 같을지 몰라도 의미는 전혀 다르다.

17.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즙'(27)은 무엇이며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30)은 무슨 뜻인가?

전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후자는 자신이 취하는 것, 즉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18.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만 가르쳐 주시면 되지, 먹고 사는 문제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실까?

글썩 말이다: 신실한 성도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다. 아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니 신경을 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되 이것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문제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민수기 19장

1.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여기 말씀은 좀 독특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 드리는 것일까?

독립된 제사가 아니라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경우에 깨끗하게 하기 위한, 즉 부정을 깨끗케 하는 물을 만드는 절차일 뿐이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7-8).

2. 몽땅 불살라서 드리는데 굳이 흠도 없어야 하고 멍에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여야 하는가?

이 송아지가 지닌 이런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이다: 흠이 없는 것이나 멍에를 메지 않은 것은 죄 없으신 순결한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굳이 암송아지여야 하는 것은 온 유함을 뜻하는 걸까? 암송아지는 수송아지보다 더 암진할까? 잘 모르겠다.

3. 아직은 아론이 살아있는데 왜 엘르아살에게 이 제사를 지내게 했을까?

대제사장은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7, 레 21:10-12). 이 암송아지는 정결케 되어야 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셈이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불에 사르는 사람, 심지어 그렇게 만든 젓물을 뿌리는 사람조차 부정하게 만든다(21). 죄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4. 거의 모든 제사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드리도록 돼있다. 그런데 왜 진 밖에서 잡으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 따라서 이 짐승의 죽은 자체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이런 성격이 있다(히 13:11).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영문 밖에서 처형당한 셈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그런 측면이다.

5. 이 암송아지를 엘르아살이 직접 잡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기 목전에서(3, 5) 송아지를 불사른 자(8) 잡는 것과 불사르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러면 엘르아살은 임석한 감독관인 셈이다(일반적인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레위인이 잡았다). 모든 책임은 감독관이 진다. 어른이 나서서 사소한 일까지 다 해치우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을 맡기되 책임은 자신이 진다.

6. 왜 피를 뿌릴까?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창 9:4-5, 레 17:11).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선고에 따라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용서하는 데에도 반드시 대속의 피를 흘려야 한다(히 9:22). 그래서 성경은 온통 피칠갑이 되어 있다. 모든 피의 원본은 예수의 피이며 모든 제사에 흘린 짐승의 피는 사본이다.

7. 일반적인 제사에서 피와 똥은 불사르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피와 똥까지 몽땅 불사르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어떤 희생을 상징하는 걸까?

온전한 희생: 피와 똥까지 다 쏟으신 것에 대한 상징이다(요 19:34). 제사를 지내는 종류나 방식이 다양한 것은 예수님 사역의 다양함을 여러 방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8.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은 왜 불 가운데 던지는 걸까?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기에 가장 좋은 것은 먼지떨이나 빗자루 형태의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지 생각해 보라, 참고 출 12:22, 민 19:18)

원래는 빗자루 형태로 피를 뿌리거나 바르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그 자체로 죄를 정결케 하는 상징물이 된 것 같다. 불사르는 암송아지를 정결케 하는 셈이다.

9. 다음 중에서 정한 자는 누구인가?

/임석한 제사장, 암송아지를 잡는 자, 불 사르는 자, 재를 거둔 자, 젓물을 만드는 자, 젓물을 뿌리는 자/

아무도 정하지 않다: 죄를 뒤집어쓰고 죽은 송아지에 관계된 모든 자가 부정하다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잘 보여준다. 정한 자가 재를 거두어도 부정하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아들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셨을까(막 15:34)? 오직 그 젓물에 뿌리움을 받은 자만이 정하다(19). 부정한 사람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가 보라. 관계된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젓물이 어떻게 뿌려진 사람을 정결케 할까? 그야말로 은혜다. 정한 것으로 간주해주시기 때문이지, 절대로 젓물의 효능이 아니다.

10. 암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만든 물을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속죄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반적인 속죄제는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가 완결되지만 이 경우는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한 과정일 뿐이다.

11.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젓물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부정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물로 씻으면 되지만(레 15:5-11)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할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한 속죄가 필요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시체가 있는 장막에 들어가기만 해도, 근처에 있던 그릇마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불필요한 과정이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부정하게 취급하신다.

12. 속죄를 위한 젓물을 만들고 다루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재를 물에 타서 쓰게 한 점: 물에 희석시키면 양이 훨씬 많아진다. 양식이 적으면 밥 대신 죽을 쑤는 것처럼!

정결한 사람이면 누구나 젓물을 뿌릴 수 있도록 한 점(19):

미리 준비하게 하심: 시체를 만진 후에 이걸 다 준비하려면 본인도 바쁘고, 제사장도 얼마나 바빠야 할까?

13. 시체에 접촉하고도 정결케 하지 않으면 무슨 죄인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죄: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는 죄, 말하자면 죽을 죄인이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나타난 셈이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서야 어디 감히 그럴 수가 있을까?

14. 남을 도우면서 자신의 것은 전혀 희생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려면 정결한 자가 무슨 각오를 해야 하는가?

남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물을 뿌리는 자도 후에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19).

15. 들판을 쓰다니다가 멋모르고 무덤을 밟았다면 어떻게 하나?

시체를 만진 자와 동일한 결례를 행해야 한다.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은 눈에 잘 띄게 회칠을 해 두었다.

16. 재를 태우는 '흐르는 물'이란?

살아있는 물이란 의미인데 '신선한 물'을 가리킨다. 고인 물과 비교해 보라.

민수기 20장

1. 미리암이나 아론이 죽은 것은 출애굽 초기일까, 말기일까(참고 33:38)?

말기: 아론의 죽음이 출애굽 40년 5월 1일이므로(33:38) 미리암도 그 해 초에 죽은 셈이다. 그러면 가데스에 거했다는 것은 38년 전 광야로 발길을 돌려야 했던 바로 그 한 맺힌 장소에 다시 왔다는 뜻이다.

2. 물이 없다고 공박하지 말고 물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원인이 물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기나긴 방황에서 오는 좌절감이 근본 원인인데 그것이 물 부족을 기회로 터져 나온 셈이다. 40년 가까이 무로하게 방랑했으니 무리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가는 길이 때로는 끝없는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다. 아브람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면서 포기할 때를 훨씬 지날 때까지 주시지 않았다. 모든 것을 포기한 후에 주셨다.

3.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특정한 때가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항하던 20세 이상의 구세대가 광야 노중에서 죽은 것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투의 말이다.

4. 같은 지명이 여러 곳에 있을 수 있다. 가령, 지형적 특성을 따라서 '산양' '얼음골' 같은 표현들이 산재할 수 있고, 외국으로 이주하는 바람에 다른 나라에 같은 지명이 생겨나기도 한다. 캠브리지의 미국에도 여러 군데 있고, 캐나다에도 런던이 있다.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길에는 어떤 지명이 중복되게 생겨났는가?

므리바(다름): 르비딤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 곳을 므리바라고 부르더니(출 17:1-7) 또 이러한 바람에 가데스 근방에도 므리바라는 곳이 생겼다. 잘하면 가는 곳마다 '므리바'를 양산하게 생겼다. 지나가는 길에 좋은 이름을 남기면 어디가 텃나냐?

5. 죄인을 다루는 사람들은 말을 일부러 고약하게 한다. 있어야 할 물건이 보이지 않으면 '어디다 팔아먹었어?' 하는 것이 그런 예이다. 누군가가 치위놓았을 물고에 대해서 그렇게 못되게 묻는 것은 상대를 아예 죄인으로 취급하는 못된 버릇이다. 이스라엘이 이런 못된 소리를 하는 예를 든다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4): 죽게 하려고 데려온 것이 아니다. 은혜를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정말로 죄가 많다.

6. 악한 이스라엘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5):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니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 정말 보이는 것이 없었을까?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였을 텐데... 떠나지 않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회막, 모세와 아론(어떻게 이런 지도자를 만나서?), 날마다 내리는 만나,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무얼 보는가?

7. 하나님의 명은 어떻게 물을 내라는 것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에게 명하라(8): 마치 홍해를 가르던 것과 같은 방식(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미는 것) 아니었을까?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이나 내리쳐 버렸다. 성질을 내면서! 호렘산에서는 바위를 치라고 하신 적도 있으니(출 17:6) 치는 것이 꼭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는데?

8.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도 성질이 많이 돌은 상태임을 보여준다. '패역한 너희여'라는 말은 '야, 이 반역자들아'라는 말이다. 비록 백성들이 그랬을망정(참고 시 106:33) 모세는 화를 내지 말아야 했는가?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모세(민 12:3)도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모양이다. 사람이 다 그렇지! 그래도 참아야 하느니라! 바위를 두 번 친 것이 그렇게 무서운 죄일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한 번만 치지 않고 두 번이나 쳤으니?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모양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죄는 크다. 가령, 목사나 장로가 예배 중에 화를 내거나 싸우는 일이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 아닐까?

9. 그렇다고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관 수고는 돌아보지도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도대체 누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모세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숨은 의도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롬 3:28, 갈 3:24-25):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여호수아는 은혜의 상징이다. 이 때 바위를 두 번 치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을까? 아니다, 모세는 어떤 이유로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본인에게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라도 구원역사에서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에(진짜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 바로 갔다. 변화산에 당당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라!

10. 에돔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형제인가?

에서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 있는 동안 에서의 후손도 세일산을 중심으로 크게 번성했다(창 36장).

11. 모세가 얼마나 정중한 태도로 요청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불쌍한 동생을 좀 도와달라는 투: 에돔을 형제로 부른다면 자신들은 동생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애굽에서 고생한 것 알지 않느냐?'는 것은 우리 처지가 불쌍하지 않느냐? 더구나 '우리 힘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는 것은 싸울 힘도 없다는 뜻인 셈이다.

12. 겁도 없이 '왕의 대로'로만 통과한다고(17)?

고유명사이다(=19절의 대로): 큰 길로만 지나가면서 일체의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뜻이다. '왕의 대로'란 다메섹에서 아카바 만까지 요단 강 동쪽 땅을 남북으로 달리고 있는 고대의 유명한 통상로이다. 동방 연합군은 이 길을 남하하여 사해 저지의 성읍을 침략하였다(창 14장). 이 도로는 오늘날에도 '술탄로'로 불린다. 이슬람 용어로 바뀌었을 뿐 뜻은 그대로다.

13. 지나가기만 하겠다는데 꼭 이렇게 적대적이어야 하는가? 에돔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대군이 어느 순간에 폭도로 변해버릴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에돔 왕이 현명한 셈이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끊임없는 징계를 당하게 된다(왕상 11:15-16, 왕하 14:7, 렘 49:7-22, 음 1장): 지도자의 선택은 어려운 법이다. 한번은 십자군이 집결지를 콘스탄티노플로 정하고 모여들었는데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수가 모였다. 이들이 어느 순간에 폭도로 변해버리면? 그런 면에서 일단은 현명한 선택을 한 셈인데 후일의 역사를 보면 아니다.

14. 트리바 물에서 사고를 친 것은 모세인데? 아론도 함께 열을 냈나? 그렇다고 해서 아론까지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나? 그것도 먼저?

모세에 대한 징벌이 사실은 벌이 아니듯이 아론도 마찬가지다. 이 때 아론의 나이는 123세다(33:39). 돌아가실 때가 됐다. 다른 동년배들에 비해서 훨씬 오래 살았다. 백성들을 훈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 회중의 목전에서 산을 올랐는데(26) 죽어야 하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트리바 물과 같은 사건을 다시는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다.

15. 에돔은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데 그냥 밀고 가면 안 될까?

그래도 되겠지만 모세는 우회하는 길로 갔다: 에돔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다. 존중해야 한다. 성도가 저지르는 많은 잘못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역을 밀어붙이는 것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힘이 생긴 한국교회가 불신자들에게서 욕을 먹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했지만 환관장이 들어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밀어붙이지 않았다. 오히려 환관장 밑의 감독자에게 가서 좋은 말로 청원한 것을 보라. 지금은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이다.

16. 이 장에 들어와서 느닷없이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마저 죽는다.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영웅 세 사람이 가나안 직전에서 다 죽는다. 어떤 느낌인가?

이들은 진정한 출애굽의 주인공이 아니다. 주인공은 끝까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정말 귀하게 사역을 했고,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했지만 진짜 주인공은 아니다.

민수기 21장

1. 남방이란 네게브 사막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호르마는 이스라엘이 진행하는 방향과도 다르고 거리가 상당히 먼데 아랏 왕이 오만한 셈이다. 그건 아랏 왕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전쟁을 위한 준비운동: 이스라엘이야 원통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용감하게 나섰지만 앞으로 있을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일이다. 온갖 불행이나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훗날 복으로 돌아온다.

되로 받은 것을 말로 갚아야 한다? 대상을 잘 살펴야 한다. 응징해야 할 대상인지 결국은 내가 돌보아야 할 대상인지!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철저히 멸해야 할 대상이었다.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2. 홍해(4) 애굽 쪽이면 말이 안 되는데 왜 또 그리로 갔을까?

애굽 쪽으로 간 것은 아니다: 지금 수에즈 운하가 있는 곳과 아카바만이 둘 다 홍해의 일부다. 그러니까 예시온 계벨이 있는 지역으로 지나갔다는 말이다. 홍해의 끝이 1자처럼 갈라져 있다.

3. 에돔을 피해서 홍해 길로 가는 길은 바란 광야를 통과해서 멀리 돌아가는 길이다. 성질이 날만도 하다. 아랏 왕을 치듯이 에돔하고 붙어버리면 되는데 돌아가게 하니 성질이 나는 모양이다. 성질을 내? 참아? 먹는 문제를 걸고 넘어졌는데...(5)

이해는 가지만 참아야 했다: 이스라엘은 먹는 것 가지고 불평할 계제가 아니다.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 얼마나 감탄했는데? 그것을 박한 식물이라고? 물도 마찬가지다. 언제는 물을 저장해두고 있었나?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것을 생각하면 불평할 이유가 없다. 일상화된 기적을 기적으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매일 먹는 음식, 함께 사는 가족을 기적으로 여길 수는 없는 걸까? 살아있는 자체를 기적으로 알고 감사할 수는 없는 걸까?

4. 외적으로 몇 사람(1)이 잡혀간 것과 불평으로 많은 사람(6)이 죽은 것을 비교해 보자.

외적의 침입보다 불평이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 외적이 몇 사람을 사로잡아간 것에 분노하여 아예 그들과 성읍을 멸해버렸다면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얼마나 큰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내부의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예로부터 외적의 침입으로 무너진 나라보다 스스로 무너진 나라가 훨씬 더 많다.

5. 고열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장대에 높이 달린 모형 뱀(뿔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믿으라는 말이다. 웃기지 말라고 버티다가 죽은 사람은 없었을까? 믿음은 때로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도 이런 짓을 하는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뿔 뱀도 나무에 달린 예수의 모형이다. 쳐다보기만 해도 된다고 해도 너무 쉬운 일이라서 웃고 쳐다보지 않고 죽는 사람도 많다.

6.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았다. 일이 끝난 다음에 이 모형 뱀은 어떻게 해야 하나?

기념물로 보관해야지: 훗날 우상이 되었다가 파괴되었다(느후스단, 왕하 18:4) 모형 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에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모형 뱀만 신성시해버린 것이다. 엘리 시대의 법궤처럼! 오늘날의 어떤 교회당처럼! 어떤 전통이나 습관처럼!

7. 지명은 잘 모르니까 지도를 참고하자. 오봇 이예아바림 세렛 골짜기 아르는 건너편 브엘 맛다나 나할리엘 바뭇 비스가 산! 이 지역의 공통점이 뭘까?

사람이 거의 거하지 않는 곳: 에돔과 모압을 우회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다. 멀기도 하지만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광야나, 바위투성이 산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길이다. 오봇에서 비스가까지!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길이다.

8. 전해지지 않는 책이 있네. 무슨 내용이었을까? 이 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에서 인용한 것이 전부란다.

서사시집: 인용된 짧은 시 세 편(14-15, 17-18, 27-30)을 보고 짐작컨대 아마도 이 책은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전투장면들을 서사시로 읊은 것 아닐까?

9. 우물을 홀과 지팡이로 팠다고?

지도자들의 명을 따라서 우물을 팠다는 뜻이다.

10.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지나가겠다는데 덤비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싸워서 땅을 점령해버렸나? 에돔왕이 도전할 때는 싸우지 않고 돌아왔는데? 시혼 왕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막강한 세력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떨까? 창 15:16절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자.

심판해야 할 때가 이르렀다: 역사도, 전쟁도, 사람의 편에서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또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역사를 제대로 보는 눈이다.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미루어두신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뿐이다. (신 2:24)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는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11. 이스라엘이 지나온 경로를 참고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다섯 나라들을 남쪽에서 북쪽의 순서대로

로 나열해보자.

에돔 모압 아모리 암몬 바산: 바산은 아모리인들의 북왕국이다. 아모리인들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다른 세 나라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다.

12. 이스라엘이 시혼 왕에게 빼앗은 땅의 원래 주민은 누구인가?

모압(26): 시혼 왕이 모압에게서 빼앗은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했다. 후에 르우벤 지파가 이 땅을 차지했다(헤스본은 레위 지파). 사사시대에 이 땅을 암몬이 욱심을 냈다가 입다에게 혼이 났다(삿 11:12-28). 아합의 사후에 모압이 독립하고(왕하 3:5) 결국은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13. 달리기에서 1등한 녀석이 2등한 친구에게 '야, 열심히 뛰어' 하는 경우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일까?

27절: 자기들이 점령한 성읍에 대해서 '견고히 하라'는 얘기는 일종의 조롱이거나, 승자의 여유부림이다. 28-29절도 비슷하다. 모압을 점령한 아모리인들의 위업을 노래하는 듯하다. 자기들이 점령해버린 그 아모리인들(30)을 말이다. 그래서 모압의 신, 그모스까지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훗날 역사를 참고하면 참으로 드문 승리의 기록이다.

민수기 22장

1. 모압이 아모리인들에게 당한 적이 있는데(21:29) 그 아모리들을 모조리 격파한 이스라엘이니(2) 겁을 낼만도 하다. 그러나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겁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화를 자초하고 만다(신 23:4-6).

에돔과 모압을 건드리지 않고 빙 둘러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싸울 마음이 없다(신 2:9)는 뜻이다: 아모리인들을 치면서도 중간에 있는 모압과 형제의 나라인 압몬을 건드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이 모압 평지에서 할 일이 많아서 모압을 건드릴 여유가 없다. 여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행한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다. 자체 교육만도 바쁜데... 그 외에도 2차 인구조사(26장)를 통해서 가나안 진군 준비에 바빴다. 여리고 맞은편이면 모압의 입장에서 보면 진행방향이 아니다. 옆으로 지나가는 중인데? 자기에게 오지 않고 지나가기만 해도 겁난다.

2. 이스라엘을 보고 소떼라고? 겁이 될 난 모양이구나! 성경에서 소떼보다 더 무서운 것은?

메뚜기(출 10:15, 사 6:5, 율 1:4) 성경에는 주로 메뚜기가 재앙이지 소가 재앙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여기 뿐이다. 그래도 소를 기르는 사람들에게는 소떼가 풀을 뜯는 것은 실감나는 표현일 것이다.

3. '강변'(5)이란 고대에 번영의 한 축이었던 유프라테스강을 가리킨다. 브돌은 이 강의 상류에 있던 성읍으로 모압에서 거의 600km가 넘는 거리다. 거기까지 두 번이나 왕복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렸을텐데... 누가 이런 사람을 발락에 추천을 하는가? 왜 그럴까?

미디안 장로들(4): 미디안의 일부는 대상을 통한 무역에 종사하였다. 그들을 통해서 이런 저런 정보가 전달되기도 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니 아는 것도 많을 수밖에!

4.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아니다.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발람을 모압왕이 통 사정을 하는 것을 보면 유명하기는 유명했으나보다. 요즈음 말로 하면 어떤 인물인가?

용한 점쟁이?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소문이 나서 모압왕이 믿을 정도였다(6). 정말 효력이 있었을까? 사단의 힘을 빌어 능력을 발휘하는 거짓 선지자는 오늘날에도 있다.

5. 발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런 의도로 찾아온 손님들에게 유숙하라(8)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물어볼 것도 없이 끝냈어야 한다. 그런데 왜 유숙하라고 할까?

귀신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다: 귀신을 섬기는 자는 옳고 그름이나 신의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

6.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지 않는가?(10-11, 13).

귀신을 섬기는 자도 귀신의 말은 잘 듣는다. 선지자와 다른 점은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7. 일단 거절한 것(18)은 잘한 일이다. 그런데 알아보긴 뭘 알아봐! 무슨 마음이 있는 걸까?

모압의 귀족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물어보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귀신을 섬기는 자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자녀답지 못한 자들이 많아서 말은 말이지만...

8. '발락이 그 집에 은,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떨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는 이 말(18)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그렇게 가고 싶거든 가봐라(20): 하나님은 18절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나타난 발람의 마음을 아신다. 말이야 얼마든지 근사하게 할 수 있다. 사기꾼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9.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지난번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슷한 예를 찾아보자.

그렇게 공부하기 싫거든 학교 가지마라, 그렇게 가고 싶거든 가서 생고생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고 싶거든 가봐라'는 것이다. 이게 허락이 아니다. 발람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기로 하신 것이다. 합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날뛰지 마라. 집나가려고 하는 아들에게 재산을 떼어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도 아니다. 그러니 가라고 해놓고도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22).

10. 나귀가 보는 것이나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일이다. 무슨 말씀이 하시고 싶어서 이러실까?

야, 이 짐승보다 못한 놈야! 명색이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술사, 점쟁이다. 하나님의 손에서는 나귀보다 못한 인간임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영똥한 욕심에 눈이 멀면 날들이 다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다. 훗날 이 나귀는 유명세를 탔을 것이다. 술사 발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나귀! 독립해서 따로 점포를 차리면...?

11. 가라고 해놓고서 천사가 죽일 듯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탄 마음을 먹지 말라는 당부인 셈이

다. 발람이 탄 마음 먹을 만한 인물일까?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죄를 부린 사람이다(31:16, 뱀후 2:15, 유 1:11, 계 2:14)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같이 하면서 영풍한 잔머리를 굴리는 점쟁이일 뿐이다.

12. 나귀와 사람이 어떻게 대화가 되는가? 무슨 동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면 가능한 일이다: 방법이야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나귀나 사람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다(참고, 출 4:11).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고 하는 발람도 나귀보다 못하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자기 백성들 위해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이다.

13. 발람은 왜 여호와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지 못하였을까?

눈이 어두워서: 눈을 뜨고 있다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눈은 물질세계조차도 일부만 보고 있다. 하물며 영적인 부분은 오죽하겠는가? 우리 눈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눈을 가진 셈이다. 더구나 물질이나 허영에 눈이 멀면 눈을 뻥히 뜨고도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선입견도 마찬가지다. 바둑이나 장기도 옆에서 보면 잘 보이는 수를 정작 본인은 잘 보지 못할 때가 많다.

14. 여호와와의 사자가 나타난 목적은 길을 막는 것이 아니다. 길을 막아버리면 간단할 텐데?

굳이 가려는 사람을 억지로 막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멍에에 매어 끌고 다니듯이 사람을 끌고 다니시지 않는다. 스스로 와서 멍에를 매는 것을 막지는 않지만(마 11:29)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야곱의 뒤를 평생 따라 다니시며 결국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답을 듣고야 마시는 분이시다.

15. 가야 할 길이 아님을 알았다면 무조건 돌아가야지 어디 또 한 소리(34)?

가고 싶으니 그러는 것이지: 가고 싶어도 길이 아니라면 과감히 끊어야 하는데 이런 저런 핑계로 가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질러지는 가슴 아픈 일이 하나 둘이 아니다.

16.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을 '발람을 기다리는 발락'이라고 하면 어떨까? 어떤 점이 비슷한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의지함: 알고 보면 소용이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칠 것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면 독사의 알을 품는 짓이다(사 59:5).

17. 발락의 허풍은 무엇인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뭇 하러 발람을 불러? 적을 물리치면 되지!: 능력도 없으면서 장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결혼만 해주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럴 능력이 있는지 따져보면 어떨까?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해야 하는가? 허풍인줄 알고 하면 그래도 다행이다.

18. 발람의 옳은 말을 두 절만 찾아보자.

18, 38: 말은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 탄 짓을 했다.

19. 발락과 발람이 바알의 산당에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

저주하려는 대상을 보려고: 아마 보고 저주해야 효력이 있는 모양이다. 물과 가장 가까운 곳일수록 역운이 잘 씻겨나간단다. 보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 능력을 발휘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마 8:8). 아마 다른 신들은 그렇지 않을 걸!

민수기 23장

1. 발람이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는가? 제사의 효력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나타나셨을 뿐, 발람의 제사의 위력이 아니다: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신앙적이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분이 만나 주셔야 만날 수 있다. 발람은 그렇게 하면 신들을 접할 수 있었던 모양이다. 그에게는 여호와도 그런 신들 중의 한 분일뿐이다. 제물의 많고 적음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것은 그냥 사술일 뿐이다(24:1). 제사인가, 사술인가? 예배인가, 주문인가? 인격적인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로, 내가 주체인가 하나님이 주체인가로 분간할 수 있다.
2. 제사를 드리고 '특정한 장소를 찾는 것'은 아마도 자연현상의 변화를 살핌으로 신의 계시를 읽어 내려는지도 모른다. '저리로' 가는 데 왜 하필이면 '사태난 산'일까(3)? 멀리 가지는 않았을 테니 다른 말로 하면 어딜까? (9절을 참조)

산꼭대기: 산사태가 나서 벌거숭이가 된 지점, 즉 높은 곳을 가리킨다. 특정한 장소를 찾는 이런 방식이나 태도는 이교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방법이 나 제사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잘 나서 되는 일이라면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할 터인데...
3. 발람은 하나님도 불러냈으니 자부심이 대단했겠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불러냈다고 생각하는가?

일곱 단에 수송아지와 수양들을 드린 것(4): 참으로 가소로운 생각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자신들의 수고와 봉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는 최선을 다 하고도 자신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전 15:10, 빌 3:13).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다(갈 2:20).
4.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8) 이 말은 발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발람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모압 왕에게 말씀하시면 일이 더 쉬울 텐데? 하나님은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을 귀하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5. 발람의 노래(7-10)에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몇 가지인가?

8번: 발람이 =모압 왕이,
아람에서 = 동편 산에서,
야곱을 저주하라 =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바위 위에서 = 작은 산에서,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 그를 열방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뉘 능히 계산하며 = 이스라엘 사분지 일을 뉘 능히 계수할꼬,
나는 의인의 죽음 같이 죽기를 원하며 =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6. 저주대신 복을 말할 수밖에 없는 발람이 '이스라엘은 홀로 처할 것이라'고 했다(9). 이게 어떻게 복일까?

필적할 상대가 없다는 뜻: 열방 중의 하나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영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정말 이스라엘은 특이한 존재다. 고대의 대제국들이 다 사라진 후에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교회 안에 살아있으며, 역사적으로는 아직도 무시하지 못할 존재이며, 경제나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7. 일반적으로 티끌은 보잘 것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무슨 의미일까?

셀 수 없이 많은 것, 곧 번성(참고 창 15:5, 17:20, 28:14). 9절이 질적인 번영이라면 10절은 양적인 번영이다.
8. 웬 '4분지 일'인가(10)? 발람이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다 훑어보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자.

이스라엘의 진영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한 부분의 번영만이라도 셀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전체 이스라엘의 번영은 어떠하겠는가!
9. 이스라엘이 누리는 복을 보고 있노라니까 문득 자신도 그런 복을 누리고 싶어진 걸까? 발람이 누리고 싶은 이스라엘의 복이 무엇인가?

행복한 죽음(10): 아무리 잘 죽어도 그렇지 죽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저렇게 죽고 싶다는 것일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죽음 뒤에 누리는 행복마저 본 것일까? 의인이 죽음 뒤에 누리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하다.

10. 발락의 생각은 '장소를 바꾸면 발람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는 건가(13-14)?

장소보다는 보는 대상의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스라엘 전체 모습을 보고 서는 기가 질려서 그런가보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끝만 보이는 지역으로 이동했다. 하나님 때문에 저주하지 못한다고 말을 해도 발락은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처방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해석이나 생각으로 행동하는 성도도 적지 않다.

11. 번제물 곁에 서서 발람의 대답을 기다리는 발락과 귀족들(15)! 기다려봐야 헛일인데? 이들이 왜 이렇게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 인생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은 허무한 것이다. 모래성일 뿐이다. 과학이 위대한 문명을 낳았다고? 그것이 풀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지도 그리 오래 전이 아니다.

12.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귀한 말씀을 되도 않은 술사를 통해서 주시나? 비슷한 내용이 기록된 삼상 15:29보다 더 명문이다.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을 이런 식으로 주신 다른 예가 또 있을까?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언급(창 3:15)이 그렇다: 사단을 저주하시는 과정 속에 이 놀라운 복음이 숨겨져 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형식상으로는 아담이나 하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책망 받을 옴의 친구들도 놀라운 말을 많이 남겼다(욘 4:17, 8:5-7, ...)

13. 하나님에게 후회가 없으시다고(19)?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시는데(삼상 15:35)? 한탄도 하시고(창 6:6)?

동음이의어(homonym)나 마찬가지로: 단어는 같아도 의미는 다르다. 후회가 '잘못을 깨우치고 행위를 돌이키는 것'이라면 하나님에게는 후회가 없다(19, 롬 11:29). 사울을 폐한 것이나 홍수심판처럼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아픈 마음을 가리켜서 후회(한탄)라고 표현했을 뿐이다. 그런 경우에도 그들을 향한 본래의 뜻(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

단순하게 마음이 아프다는 뜻의 후회는 있어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후회는 절대로 없다. 사울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아픔은 있지만 왕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의도에 대한 취소는 없다. 홍수로 온 인류를 멸할 수밖에 없는 아픔은 한탄이지만 그렇다고 인류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후회가 없으심이다.

14. 식언치 않으시는 하나님과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느 쪽이 더 좋은가? 가령, 결혼하기 전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사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잘못이나 실수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나올지 생각해 보자?

둘 다 똑같다: 허물이 많은 사람에게는 최고의 남편이요, 최고의 아내다.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신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시다.

15. 식언치 않으시고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그 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왕을 부르는 소리'란 표현(21)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왕을 좋아해서 질러대는 환호성: 식언치 않으시고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왕이라면 이런 환호는 당연한 것이다.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절대적 인기를 누리시는 분이시다.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셨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16. 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물을 설명하려고 그릇에 담은 순간 물이 지닌 많은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하나님을 그 무엇에다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들소와 같은가(22)?

당할 자가 없다: 이 들소는 가죽으로 길들여질 수 없는 짐승이란 뜻이다(욘 39:9-12). 이런 들소에겐 어떤 굴레나 멍에를 씌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어할 수 있는 사술도 없고, 복술도 없다! 그런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실 것이다. 온전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겨우 이 정도의 수준일 수밖에 없다.

17.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사자와 같은가?

포기할 줄 모르는 점에서: 힘과 영광과 위엄을 가진 것(=일어나서)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기 전에는 늑치 아니한다는 것은 마음먹은 것을 반드시 완성한다는 뜻이다.

18. 발람과 발락은 완전히 *Dumb and Dumber*다(영화 제목).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하지? 바보형제? 바보와 천치? 발락과 발람 중에 누가 더 바보인가?

발람: 발락은 아예 모르는 바보이고, 발람은 알면서도 바보의 말을 듣고 바보짓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민수기 24장

1. 발람이 제사를 드리고 취하는 일련의 행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술: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동과 같은 것이었다. 사술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렇게 나타나서 봤자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다른 방법을 쓴다는 말인가? 자신의 욕심을 포기한 결과, 아니면 방법을 바꾸려는 의도일까?
2.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았으면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성경은 발람이 결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벧후 2:15, 계 2:14, 유 1:11, 수 13:22). 그와 비슷한 다른 예를 찾아보자.
법궤를 벤세메스로 가게 한 블레셋 방백들(그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을 확인하고 제사까지 드리고 다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간 사람들), 출애굽시의 바로와 애굽인들, 라합을 제외한 여리고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한국의 불고기를 아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집에 가면 자기들 방식으로 먹는단다. 습관이나 버릇도 고치기 어렵다면 섬김의 대상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무당이나 점쟁이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귀신이 가장 세다고 한단다. 그러면서도 개종을 하지는 않는다. 이교 지조도 충성도 아니다.
3. 발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다(2). 처음 두 번과 어떻게 다른가(23:5, 16)?
처음에는 입만 주관하셨다: 발람을 말하는 도구로만 쓰시던 하나님께서 발람이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자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닌가? 사울도, 삼손도 이런 경험이 있다(삼상 10:10, 19:23, 사 14:6).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닌) 충만함은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는 것이다.
4. ‘눈을 감았던 자’의 난외주를 보면 ‘똥 자’라고 돼있다. 어떻게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할까? 도대체 발람은 감은 자야, 똥 자야? (많은 역본이 ‘똥 자’로 되어있음)
감겼던 눈(욕심의 눈)이 뜨인(영의 눈) 자(4절 참고): 발람에게는 양 측면이 다 있다. 욕심에 어두웠던 눈이 이제 제대로 뜨인 셈이다. 황량한 광야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5)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영의 눈이 뜨였기 때문이다.
5. 왜 엎드려서 말을 할까?
성령의 감동으로 제 정신이 아닌 상태이다: 사울이 예언할 때 벌거벗고 누워서 한 것(삼상 19:24)과 같은 현상 아닐까?
6. 5-9절이 축복의 핵심이다. 두 부분으로 나누고 내용을 요약해 보자.
5-7a: 이스라엘의 번영(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7b-9:** 번영의 이유(위대하신 왕이 계시니 누가 감히 상대할 수 있으랴?)
7. ‘떨어짐이 골짜기 같고’란 표현의 원어상 의미는 ‘쭉 뻗은 골짜기 같고’이다. 이 표현이 ‘물 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표현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골짜기는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번영하는 모습은 물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넘치는 통의 물, 많은 물 가에 있는 종자). 물이 귀한 근동 지방에서 이런 장면은 정말 이상적인 곳이다. 창세기의 이야기도 강이 흐르는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8. 아각은 아말렉의 왕인데(왕의 칭호이면서 개인적인 칭호이기도), 왜 하나님을 아각에다 비교했을까?
 아마 당대에는 가장 영향력이 큰 왕이었을 것이다. 출애굽 시에 ----- 도전해온 적의 왕이기도 하다.
9. 발람의 마지막 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지로다’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신 말씀(창 12:)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말(창 27:29): 이스라엘이 복을 누려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복의 통로이다.
10. 치려면 가슴을 치지 왜 손뼉을 쳤을까?
 화가 나서 손뼉을 쳤다고 번역하는 것이 느낌상 옳지 않을까?
11. 발락의 생각이지만, 발락은 발람을 심히 존귀케 할 수 있다. 발람이 하나님을 잘 부리기만 하면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그걸 막았다. 그래서 화가 났다. 발락이 아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심술쟁이: 발람이 벌 수 있는 막대한 재산을 몽땅 날려버렸다고 인정대는 셈이다. 만물의 주인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다. 아라비안나이트에 등장하는 노예와 같은 신이다. 램프를 문지르면 나타나서 주인을 돕는 노예신 말이다. 신에 대한 이런 개념이 지금도 일반적이지 않은가?
12. 발람이 다시 예언을 시작한다. 15-16절이 3-4절과 똑같은지 비교해 보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란 표현이 추가 되었음

13. 발람이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장래는 어떠한가?

이스라엘에 한 별, 한 홀이 나타날 것(17): 위대한 왕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다. 이 왕이 모압과 아말렉을 멸할 것이다. 이 예언은 일단 다윗에게서 성취되는 듯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것이며 모압과 아말렉은 메시아에 대한 적대세력을 통칭하는 것이다(에돔이나 세일도 마찬가지).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별을 꽂는 풍습은 이 구절에서 유래했다.

14. 17절의 '소동하는 자식들'이란 표현은 직역하면 '셋의 모든 자식'이란 말인데 모압을 가리키는 말로 적대적인 반면에 21절의 '가인 족속'은 비교적 우호적이다. 이상하다? 원문을 보면 가인족속 이라기보다는 '겐 족속'이다(어원은 동일함). 겐 족속은 누구더라?

아마도 모세의 처가(삿 1:6, 4:11) 분명하지는 않지만 문맥상으로 그렇게 추정할 뿐이다.

15. 발람이 훗날의 역사를 간략하게 언급하는 셈인데(21-24) 한 때 역사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멸망할 두 나라는 무엇인가?

앗수르와 기딤: 앗수르가 이 지역에 세력을 떨치게 되는 것은 적어도 몇 백 년 후의 일이다. 기딤은 구브로(키프로스) 섬을 가리키는 말인데 서방에서 페니키아로 오는 모든 배의 중요한 기항지였다. 따라서 '기딤 해변에서' 온다는 말은 서방에서 온다는 뜻이다. 그래서 후일에 로마를 가리키는 뜻으로도 쓰였다(단 11:30). 그 표현이 헬라가 됐던 로마가 됐던 아주 오랜 훗날의 얘기다(1000년 이상). 한 때 강성하겠지만 다 멸망한다. 반면에 망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는 야곱에게서 나온 주권자의 나라뿐이다(18-19).

16. 발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단다. 자기 본향으로 돌아갔으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테지만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참고 민 31:7-8). 왜 미디안으로 갔을까?

원래 자기를 추천해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가를 노렸을 것: 미디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악한 죄를 부렸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

민수기 25장

1. 싯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의 마지막 장소였다. 왜 여기 오래 머물러 있었을까?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를 들려준 곳,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진군 준비를 마친 곳이다(정탐꾼 파견). 오랜 방향이 끝나기 직전인데 꼭 이렇게 사고를 치고 끝내나?

2. 싯딤에 머물러 있었다. 이웃에서 잔치가 있다고 부른다.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이 하는 대로 축제의식을 따라했다. 더구나 그 축제의식이 여자와 더불어 즐기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었다.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백성들의 수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 싯딤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 잘못일 수 있다. 군대식으로 말하면 '고향을 그리워할 시간조차 없도록 바빠야 한다.' 빨리 가야지, 왜 거기서 얼쩡거리고 있느냐 말이다. 군부대는 도시 근처에 주둔하면 군기가 빠지는 법이다. 입에 단내가 나도록 돌려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단다. 수준이 좀 낮은 방법이다. 좀 더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사귀면서도 신앙에 전혀 흠집을 내지 않을 수는 없는 걸까? 바람직하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다.

3. 모압 여자와 음행한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할 정도로 중한 일인가?

음행 자체도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 죄이지만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음행이 곧 우상숭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압 여자들이 그랬을 것이다, '우리 축제와 참석해서 함께 즐기자'고. 그들의 축제에 참석하여 먹고 마시고 자연스럽게 음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이었다. 바알 숭배자와 신전의 여사제들과의 난잡한 혼음은 바알 제사의 절정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매력(?)적인가?

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3). 백성들 전체가 이런 음행을 저지르려면 모압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야 가능할까?

전체가 이런 짓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백성들 전체에게 진노하셨다. 이스라엘은 공동운명체다. 일부가 범죄해도 전체가 부패한 것이다.

5. 이스라엘에 언제부터 염병이 돌았는가? 몇 절이 그것을 말하는가?

3절: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은 곧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다. 염병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의 두령을 목매어 달라는 것이다. **4절의 '진노'**도 염병을 뜻하는 것이다.

6.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두령들이 죽어야 하는 경우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다. 여기서 왜 그랬을까?

아마도 두령들이 먼저 나섰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죄로 죽었다는 말이다. 이 사건이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인 것을 감안해보면 모압 여자들이 처음에 초청한 인물들이 바로 두령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7. 이스라엘에서도 십자가처럼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경우가 있었는가?

없었다: 여기서도 교수형으로 처형된 자들을 나무에 달아두었다. 일종의 공개처형인데 왜 그랬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오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직전이라서 분노보다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마치 졸업하기 직전에 학점을 놓칠 위험을 경고하는 것처럼.

8. 백성의 두령을 목매어 달라고 하는데 왜 바알에게 부속된 자들을 죽이는가?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고? 고전 10:8과 9절을 비교해 보라.

고전 10:8에는 23,000명이 죽었다고 한다. 랍비들의 전통적인 견해로는 염병으로 23,000, 사사들에 의해 처형된 사람이 1,000명으로 합계 24,000이었다고 한다.

9. 모세의 명을 받아 바알에 부속된 자들을 처형하는 사람은 사사들이었다. 이 때에도 사사가 있었네?

사사기의 사사와는 격이 좀 다르다. 모세의 지도하에서 백성들을 재판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범죄한 자를 죽이라고 한 것은 엄격한 법에 따라 명을 시행했다는 뜻이다.

10. 처형된 자들과 염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속출하는 마당에 이 사람은 이렇게 당당하게 음행을 시도하는가?

음욕에 눈이 멀면 사리판단도 흐려지는 법이다. 본인에게 물으면 사랑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음행은 가정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무서운 유혹인가보더라.

11. 온 회중의 애통함에도 풀리지 않던 하나님의 분노가 비느하스의 의분에 풀렸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자기의 것으로 느끼는 감정이입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배운 탓에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는 극심한 싸움이 있는 걸까? 그렇게 싸우고 어떤 복을 받는지 두고 볼 일이다.

12.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대신 깊은 덕분에 어떤 복을 받았는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음(=평화의 언약) 이런 일이 없었어도 그는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다른

복을 받았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이것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상의 다른 복에 우리는 관심이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13. 이렇게 죽임을 당한 자가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라고 밝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있다: 다음 장에서 등장하는 시므온 지파의 몰락의 원인을 설명하는 셈이다.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해보라. 아마도 이 음행 사건으로 죽은 자의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였을 가능성이 크다.

14. 이 음행 사건이 모압 여인들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는데(1) 이 여자, 고스비는 미디안 족장의 딸이다(15).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이 사건에 미디안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즉 발람을 추천한 장본인이 미디안 장로들이었고, 발람이 미디안으로 가서 꾀를 내었으니 미디안과 모압이 작당하여 이스라엘을 유혹한 셈이다. 이로 인해서 미디안이 작살난다(31:1-11).

민수기 26장

1.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 싸움을 준비하느라고(3)? 한 가지 이유를 더 찾아보자.

땅을 분배하기 위한 근거로(53-56) 그래서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지파뿐 아니라 가족까지 자세한 게 기록하고 있다. 그 외에는 달리 인구조사를 할 이유가 없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의 때까지 거의 500년이 지날 동안 한 번도 인구조사를 한 적이 없다. 다윗이 다른 공공이가 있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혼이 났다(삼하 24:1-9).
2.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셨다. 아론은 어디 갔지?

아론은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엘르아살의 입장에서 보면 제사장이 되고 처음 하는 큰 일이다.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것(64)은 1차 조사를 가리킨다.
3. 르우벤은 장자권을 빼앗겼는데(창 49:4, 대상 5:1-2)?

그래도 족보상 장자다: 다시 말하면 이 기록이 영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역사적 기록이다. 다만과 아비람의 일을 말하는 것도 그런 셈이다. 더구나 고라는 르우벤 지파도 아니다.
4.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였단다. 이 표현이 그들의 반역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그렇게 잘 났으니 반역하지! 능력 있는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반역자, 배신자가 된다. 능력 있는 사람이 큰 사고를 치지, 능력 없는 사람은 사고를 쳐도 작은 사고만 친다.
5. 르우벤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 속에 르우벤 지파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

고라는 레위 지파다: 다단과 아비람의 죽은 일을 언급하다보니 주동자였던 사람을 말하게 된 것이다.
6. 대체로 보아도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적다. 다른 지파는 주로 4만에서 6만 정도인데? 시므온 지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므온의 고스비 사건에 가장 깊이 연루되었다가 징계를 크게 받았을 것: 경쟁 상대가 없는 최하위 지파다(22,200명). 1차 조사 때는 유다, 단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지파였다(59,300명, 1:23). 후일, 모세의 축복에서 빠지고, 땅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유다에 빌붙어 있다가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 지고 만다(창 49:5-7).
7. 야곱의 아들들의 출생순서가 르우벤, 시므온, 갓, 유다... 인가?

부대별 순서다: 갓은 7번째고, 레위는 3번째다. 그러니까 여기 지파별은 나이순이 아니라 진영별 순서다. 갓이 시므온, 르우벤과 같은 진영이기 때문이다. 1차 조사 때도 그랬다.
8. 1차 조사 때나 2차 조사 때에도 부동의 1위는 유다 지파다. 이런 점을 좀 부각시키면 좋을 텐데, 그런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려면 유다의 아들들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전부 다섯인데 돌(엘과 오난)은 일찍 죽었다. 베레스와 세라의 어머니는 셀라와 무슨 사이인가?

아내가 되어야 했던 형수: 창 38장에 보면 유다의 집안은, 유다의 가축, 가나안 여인과 결혼, 말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둘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며느리와 동침, 시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로 인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었다. 그런데도 유다 지파는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 선봉부대로서 맹활약을 했다. 다윗 왕을 배출함으로써 약속된 여인의 후손마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지게 되었다. 영육간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지파가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기근으로 인해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앞장서서 어려움을 타개해나간 대타 맡이었다(창 43-45장). 유다, 잇사갈, 스블론이 한 부대를 이루어 선봉을 맡았다.
9.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같은 부대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양자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부 몇 지파인가?

12 지파: 군대 편성이 주목적인 여기서는 레위 지파가 계수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레위 지파는 별도로 다루어진다.
10.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하는 기록에 여자들 얘기를 왜 기록했을까(33-34)?

이 기록이 땅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36장) 이 여자들이 남자들 대신에 아버지의 대를 이을 수 있게 해달라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킬 인물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최초의 여권신장론자들일 것이다.
11. 므낫세가 에브라임의 형이다.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없어서 축복을 하는 바람에 장자의 복은 에브라임에게 돌아갔다. 여기서는 어느 지파가 더 번성하였는가?

므낫세: 에브라임은 35,500명인데 므낫세는 52,700명이다. 더구나 므낫세는 1차 때 32,200명으로 꼴찌였다. 인구증가율이 약 64%인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높은 것이다. 나중에 넓은 지역을 두 군데나 차지한다. 반면에 영적인 복은 에브라임이 누렸다고 봐야 한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드보라, 압돈, 사무엘 등의 지도자를 배출했다. 여로보암을 배출한 것은 애석한 일로 봐야겠지만. 가나안 입성 후 성막을 세웠던 실로도 에브라임의 영토 안에 있었다. 영적인 복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셈이다.

12. 광야에서 행군할 때 (, ,) 지파는 후미 방어가 주 임무였다. 훗날 제비뽑아 얻은 땅도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을 지켜야 하는 곳이었다. () 지파가 제비뽑아 얻은 땅은 훨씬 남쪽의 땅이었는데 일부는 블레셋에게 밀려서 북쪽으로 이동했던 것 같다(삿 18:27-29).

단, 아셀, 납달리, 단

13. 38년 전 1차 조사 때는 603,550명(2:32), 지금은 601,730명으로(51) 1,820명이 줄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63-65 참고)?

1차 조사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벌로 광야에서 전부 죽었다. 그럼에도 비슷한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다. 시므온 지파가 특별히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유지한 것은 다른 지파는 대체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14. 땅을 분배하는 두 가지 원칙은 무엇인가?

인구의 다소(크기), 제비뽑기(위치): 특별히 출애굽 과정에서 공로가 더 많은 지파나 개인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런 고려사항이 없다. 가령, 모세의 가족이라면 더 좋은 땅과 위치를 선점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닐까? 우리 생각이다.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다.

15.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었다(잠 16:33, 18:18). 맛디아를 뽑을 때도 그랬다(행 1:26). 지금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닐까?

계시가 완성된 지금도 그런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그러한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알리셨으나 인간들이 뭔가에 홀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도 제비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뽑기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우림과 둠뿔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이제는 성경말씀이 유일한 근거다.

16. 여기 레위 지파에 대한 소개(57-61)는 출 6:16-27과 비교하면 간략하다. 레위의 손자들이 어느 아들에게서 태어났는지도 잘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아므람 가족: 아므람 가족에게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태어났음을 소개하고, 겸하여 나답과 아비후처럼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셈이다.

17.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했는데 레위인은 1개월 이상이면 계수했다. 실컷 헤아려놓고 이들을 이스라엘의 계수에 넣지 않은 것은 기업을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이다(62). 그러면 계수방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과 장자에 대한 대속의 효력 때문(3:44-51): 20세 이상의 남자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레위인은 싸움 대신 성막 봉사를 맡았다. 장자를 대속하는 능력은 모든 레위인에게 있는 셈이다. 그래서 갓난아이마저 계수했다.

민수기 27장

1. 므낫세의 현손은 누구인가?

솔로브핫: 현손은 손자의 손자이다.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이 표현은 전부 솔로브핫을 가리킨다. 요셉으로부터 솔로브핫의 딸까지는 7세대다. 이 기록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정확한 사실인가를 보여주는 셈이다. 우리는 몇 대 조상까지 기억하는가를 생각해 보라.

2. 솔로브핫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아온 이유는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일까? 26장에서 답을 찾아보자.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들었기 때문(26:52-56): '이 계수대로'(26:53) 하면 솔로브핫은 가족이 전혀 없는 셈이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땅을 나눠주지 않으면 다섯이나 되는 딸은 어떻게 먹고 살지? 빨리 시집가는 수밖에 없나?

3. 솔로브핫의 딸들이 '아버지는 자기 죄에 죽었다'고 말한다. 이게 무슨 자랑인가?

기업을 나눠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다: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권리가 박탈될 이유가 없다는 말이고, 자기 죄에 죽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죽는 일반적인 죽음이라는 말이다. 사람은 다 그렇게 죽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업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죄인이면서 당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 모든 인생은 자기 죄에 죽는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당당한 죄인'이 될 수 있다. 효자가 아니라도 당당하게 아들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자식이다.

4.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을 받아서 시집을 가면 어떻게 될까?

양자들이듯이 데릴사위를 들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으면 될 것 같은데(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훗날 그들에게 주어진 규정은 같은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을 가라는 것이다(36:6-9).

5.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기업이 사라진다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당찬 딸들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졌는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아들은커녕 딸도 없는 사람까지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고, 자신들 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아예 새로운 법이 주어졌다.

6. 기업(땅)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땅과 후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상징이다: 땅이 생존에 필수적이지만(창 3:23) 생존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업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했다. 혹시 팔리더라도 회년이 되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빼앗아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징계인가?

7. 모세가 올라가서 죽은 산 이름이 무엇인가(참고 신 34:1)? 비스가? 느보? 아바림?

아바림 산맥의 북쪽 끝에 있는 비스가산의 느보 봉우리! 40년 간 꿈에 그리던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죽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의미에서 그 땅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이다(신 34:1-4).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되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는 복이다.

8.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이제 그만 죽어라?'는 말인데 모세는 억울하다는 말도 한 마디 못하고 대신에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했을까?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고약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다. 친구 이상의 끈끈한 관계를 감안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이다(신 34:11).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옴을 보라.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표현이 내용상 '죽는다'는 말과 같을지 몰라도 느낌은 전혀 다르다. '조상'이라는 말은 난외주를 보면 '백성'과 같은 말이다. 조상, 혹은 백성들을 만난다는 의미이다. 먼저 그 조상들을 만나서 진정한 휴식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다(마 8:11). 가나안 땅을 몸시 사모했지만 모세는 상징적인 가나안이 아니라 진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간 셈이다.

9. 모세가 신 광야 가데스의 트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 천주의 한을 남겼는가? 만약 그 때 그렇게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가나안에 들어갔을까?

아니다: 모세가 맡은 역할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 것이고(율법의 역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예수, 은혜, 믿음)의 몫이다. 이 두 사람은 율법과 은혜(예수)의 상징이다. 율법은(모세는) 문학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여호수아)에게로 인도할 뿐이다(갈 3:24). 하나님의 구원사역에서 맡은 일정한 역할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모세는 알아들었을 것이다.

10. 하필 여기서 여호와와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니시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추호도 불만이 없다는 뜻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이 일은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는 식이다.

11. 후계자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일인데 모세가 쓸데없이 참견하는 것(16-17) 아닌가?

능력으로만 본다면 그렇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기도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쓸데없는 참견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께서 하시는 일에 어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소원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런 관계에 기초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자녀가 아닌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정말 쓸데없는 참견일 뿐이다.

12.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죽은 목숨이다(겔 34:5-6): 양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짐승이다. 눈도 어둡고, 무기도 없고, 빠르지도 않다. 어떻게 이런 짐승이... 저절로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특별히 만드신 짐승 아닐까? 제사 제물로도 적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도 적격이다.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다는 것은 처음부터 양이 인간과 함께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3.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이다. 신들린(?) 사람이었을까?

'신에 감동된 자'란 직역하면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창 41:38)을 가리키는 말이다.

14. 훗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20): 하나님의 명에 따라 모세의 존귀함을 전달받았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오래 전부터 모세의 비서였고, 장수였으며 뛰어난 신앙의 인물이었다. 당연히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지만 외견상의 그런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지도자가 될 만한 요소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것은 아니다.

15. 엘르아살이 높은 거야, 여호수아가 높은 거야?

말은 역할이 다를 뿐,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다: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여호수아는 백성의 대표인 셈이다. 백성을 통솔하되 엘르아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 이 때 제사장이 사용한 우림과 둠밈은 판결 흉패 속에 들어있는 일종의 제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민수기 28장

1.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정한 시기에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굳이 2절에서 찾는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식사(식물=양식)이기에: 식사는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드신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식사를 행겨드리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다.

2.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 예물, 식물, 향기라고 표현하셨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말인가?

예물은 정성을 담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식물은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향기는 받는 분이 기분 좋게 받도록 드려야 한다는 뜻이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드려야 한다.

3. 제사 드리는 시기를 기준으로 이 장(28장)에는 몇 가지 제사가 언급되고 있는가?

5가지: 매일(3-8, 상번제), 안식일(9-10), 월삭(11-15), 유월절(16-25, 무교절, 원래는 다른 절기이지만 이어지는 절기다보니 나중에 하나로 취급됨), 칠칠절(26-31, 맥추절, 오순절) 참고로 이런 규정은 출 23:14-17, 29:38-42, 31:12-17, 레 23장, 민 25:1-12에 언급된 것이다. 여기서 다시 반복하면서 내용이 확대된다(제물에 대한 규정이 자세하게 언급됨).

4. 상(常)번제란 끊임없이 드리는 번제란 뜻이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다. 상번제가 밤(2절의 '식물')이라면 반찬은 무엇인가?

소제(5)와 전제(7):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에바(23) 10분의 1을(약 한 되) 기름 4분의 1한(반 되)으로 반죽한 것이다. 전제는 반 되 정도(4분의 1한)의 독주(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이다. 식사 때 반주는 괜찮네? 술 좋아하시는 분이 보면 귀가 번쩍 뜨일지도 모르겠다.

5. 매일 아침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라면 다른 절기 때에 다른 제사를 드릴 때도 드리는가?

Yes! 상번제 외에 추가로 절기 제사를 드렸다(10, 15, 23, 31). 아침에 수양(어린 양) 한 마리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절기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동일하게 상번제(수양 한 마리와 소제와 전제)를 드렸다.

6.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세한 것은 레위기에서 살피는 것이 좋겠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 고운 가루와 빵아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는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 살아서 팔팔 뛰는 것은 금물이다. 고집이나, 아집, 인간 냄새를 철저히 버려야 한다.

7.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란 이 말씀이 여기서 -----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다(참고 출 29:38-42). 한번 말씀하셨으면 됐지 또 말씀하여야 하나?

중요하다는 뜻이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끊임없는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

8.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에는 합계 양이 몇 마리, 고운 가루는 얼마가 필요한가?

어린 양 4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4 에바: 상번제와 안식일 번제의 양이 똑같다.

9. 월삭(매월 초)에는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가?

번제로 수송아지 2, 수양 1, 어린 양 9(상번제 2 + 7), 고운 가루 1.7 에바(3/10*2 + 2/10 + 1/10*9), 포도주 약 3 한 (1/2 + 1/3 + 1/4*9), 속죄제로 수염소 하나: 월삭에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새로운 말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다짐이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했다. 제물의 양은 작지만 속죄가 없는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10. 유월절이 정월 14일인 이유가 뭘까?

출애굽 하기 전 날,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난 날이 바로 그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출애굽한 날은 정월(아비월) 15일이다(33:3).

11.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은 무교절이다(무교병을 먹는 날은 유월절까지 포함해서 8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출 12:33-34에서 찾아보자.

출애굽이 이스라엘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기 위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준비할 수도 없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유월절이나 무교절의 모든 과정은 한 마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12. 특별한 절기에 왜 노동을 금지시켰을까? 즐기라고?

성회로 모이라고: 일하지 말라는 것보다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말에 더 주목을 해야 한다. 투표하라고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투표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까 놀러가는 일에 바쁘다면 곤란하지 않은가!

13. 무교절의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다. 그러면 무교절 제물과 안식일 제물에 상번제도 드렸을까?

23, 24절을 참고하면 무교절 제물과 상번제만 드린 것 같다: 일 년에 한번 드리는 무교절 제물이 매월 한 번씩 드리는 월삭 때의 제물과 같은가? 무교절 제물은 7일 동안 매일 드렸으므로(24)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다.

14.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무교절의 무교병은 세상에서 연락(宴樂)대신

거친 길이라도 끈겼다는 각오를 다지게 해준다. 나팔절의 나팔소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 울려 퍼질 나팔소리와 무관하지 않다. 초실절에 바치는 보리 이삭은 곡식 중에서는 별로 볼품이 없듯이 예수님도 그렇다(사 53:2, 눅 2:7). 칠칠절은 첫 이삭(보리 수확)을 드린 후 50일이 지나서 밀의 수확을 감사드리는 절기다. 五旬절, 맥추절이라고도 한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인 썸이다. 그러면 칠칠절은 신약의 무슨 사건과 관계가 있을까?

성령강림(행 2:1-4)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며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칠칠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풍성한 선물이 성령이시다.

민수기 29장

1. 나팔은 주로 경고할 때 쓰였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쓰였다(10:10). 제사를 드릴 때도 나팔을 불었는데 여기서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불라는 뜻이다. 왜 이 날에 나팔을 불라고 하는 걸까? 레 23:24을 근거로 추측해보자. 더구나 이 날은 나팔절, 월삭, 안식일이 다 겹치는 날이다.

7월 1일을 안식일로 정하는 것(10:10)은 낱씨의 기준, 즉 새해의 첫날이기 때문: 여기서 언급되는 날들은 종교력이다. 종교력 7월 1일은 민간력으로 1월 1일이다. 새해를 맞는 기쁨으로 나팔을 불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나팔 소리가 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나팔인 셈이다. 특히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일로 부는 나팔보다는 특별하게 불렀던 모양이다.

2. 나팔절, 월삭, 안식일, 상번제가 하루에 다 걸리네! 그러면 이 날에 드린 제물은 얼마나 될까?

수송아지 3, 수양 2, 어린 양 16, 수염소 2: 각 절기 제물(나팔절, 월삭, 상번제)에 안식일 제물만 빠진 셈이다(6) 나팔절 제물(1, 1, 7, 1)과 월삭 제물(2, 1, 7, 1)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월삭이 더 큰 명절처럼 보인다. 나팔절은 일년의 시작, 월삭은 한 달의 시작인데?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일년을 이루는 것이니 매 달의 시작에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하라는 의미이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특별한 날은 특별하게 기억하되 하루,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이다. 특별한 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일이냐,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리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다.

3.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다. 마음을 어떻게 괴롭게 해(7)?

참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참회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러면 자신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다. 애통이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신을 보는 것이다. 맨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날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4. 속죄일 제물은 어느 날과 동일한가?

나팔절: 월삭 제물과 비교하면 수송아지가 한 마리 적다.

5. 속죄일에 드리는 제물의 합계는 '속죄일 제물 + 속죄제 + 상번제'다(11). 11절의 두 번째 속죄제는 제사장과 그 가족을 위한 것과 백성을 위한 것이다(레 16:3-5). 그러면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의 합은 얼마인가?

수송아지 2, 수양 3, 어린 양 9(상번제용 2 + 7), 수염소 3: 속죄일(1, 1, 7, 1) + 속죄제(제사장과 그 가족을 위하여 수송아지 1, 수양 1 + 백성을 위하여 수양 1, 수염소 2). 이 날 제사장은 일 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할 수 있었다.

6. 초막절(수장절,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8일간(7일간 + 8일째 마무리) 초막을 짓고, 팥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다. 제물에 관한 내용이 번주곡처럼 계속 반복된다. 초막절이 주는 기쁨을 함께 느끼지 못하면 짜증이 나겠다. 제물이 얼마나 필요한가?

상번제 어린 양 16(2×8), 수송아지 71(13+12+11+10+9+8+7+1), 수양 15(2×7+1), 어린양 105(14×7+7), 수염소 8(1×8): 16 + 199 = 215! 기쁨과 감사의 축제였다. 제물의 수효를 보면 가장 크고 즐거운 축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대형 절기가 7월에 집중된 것은 새해를 맞는 기쁨이기도 하고, 추수기가 끝나고 파종이 시작되기 전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7. 제물 중에서 수송아지의 숫자가 13마리에서 7마리로 변해가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 날에 7마리를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다. 우리의 삶도 많으나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완전하냐 불안전하냐의 문제다.

8. 39절의 '이 절기'는 무슨 절기를 가리키는가?

28, 29장에 언급된 모든 절기를 가리킨다.

9. 짐승은 곧 재산인데 재산을 아끼고 늘려야지 이렇게 제사로 다 드리면 어떡해?

아낄 때는 아껴야지만 쓸 때는 확실하게 써야 한다. 아끼면서도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쓸 때는 써야 한다.

민수기 30장

1. 참고로, 히브리 원문은 29:40절이 30:1절이다. 서원은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 어떤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면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

원하는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금식, 금주, 금육 등을 가리키는 셈이다.

2.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취소할 수 있는가?

없다(2 시 15:14):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본문의 기본 바탕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2)는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번 뱀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로 만드셨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증거다. 사람과의 약속도 합부로 어겨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행한 약속이야 얼마나 더 신실하게 지켜야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서원이나 맹세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했다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뿐이다.

3. 어리다면(3) 몇 세까지를 가리키는 걸까?

나이라기보다는 어떤 권위 아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3절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시집가지 않고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린 셈이다.

4. 여자가 어릴 때 경솔하게 서원을 했다면 아버지, 혹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들이 그랬다면?

지켜야 한다: 남자에게 더 신중함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여자는 좀 왔다갔다 해도 괜찮고? 남자 여자의 문제라기보다는 권위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다.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9)에서도 그렇다. 한 가정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권위는 필요하다. 그 역할을 남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는 가정과 권위가 사라진 가정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릇된 권위가 더 나쁘고 하지만.

5. 딸이나 부인이 그릇된 서원을 하는 것을 알았다면 아비나,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원하는 것을 듣는 그 날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얼마쯤 지난 후에 번복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말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한다. 약속을 하고 쉽게 어기거나 합부로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책임성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6. 결혼 전에 하나님께 한 서원을 결혼 후 남편이 취소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양보다.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증거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주신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권위일 수 있다. 맛보기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엄청난 권위를 세워주심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인을 사랑하는' 결혼의 기본틀(엡 6:22-33)을 제공하신 것이다.

7. 옛날 유대사회와 달리 여성의 권리가 높아진 오늘날에는 부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남편의 서원은 어떻게 될까? 믿지 않는 부인이 반대하면?

사랑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 신약시대에도 본문의 원리를 준용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부부는 일방적인 권위 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합의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원리에 맞는 것 같다. 부흥회에서 은혜(?)받은 상태에서 합부로 헌신을 다짐하고 돌아와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부부는 서로 동의해야 하나님께 대한 서원도 성립된다고 본다.

8. 여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남자의 말보다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일까?

아니다. 권위 아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말의 중요성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다.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책임 있는 존재로 서야 한다(9).

9. 여자는 좋겠다! 무심코 서원을 했다가 '아차' 싶으면 남편이 말려줄 수 있으니! 남편이 서원을 했다가 '잘못 했구나' 싶으면 방법이 없을까? 레위기 5:4-6절을 보라.

속죄제를 드림으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잘못했을 경우에도 대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합부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말 한 마디라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짐승은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민수기 31장

1.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레 19:18) 원수를 갚으라고?
 사랑하라고 하는 원수는 나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3)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원수(사탄)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증거가 뻔히 보이는데도 애써 부정하며 꺾방하던 자들에게 '성령을 꺾방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다(마 12:31).
2. 미디안 족속이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
 발람의 꾀를 좇아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25,000명이나 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25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라고 하셨고, 이들을 징계하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역이다(2).
3. 싸우러 가는데 왜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가지고 갈까(6, 10:9)? 나팔은 공격이나 후퇴의 신호로 쓸 테지만, 성소의 기구는 어디에 쓰려고?
 이 나팔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소리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대적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물론 진군, 공격의 용도로도 쓰인다. 성소의 기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이교이 있다. 훗날 전투 때마다 법궤를 앞세우고 싸웠으므로 법궤라고 보기도 하지만 원문은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법궤라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신호나팔과 동격으로 보기도 한단다.
4.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가져가는데 왜 제사장이 가지 않고 제사장의 아들이 갈까(6)? 대통령의 아들이 중요한 일에 나서는 것이 문제가 되던데?
 엘아살은 대제사장이며 대제사장은 부모의 시체로 인해서도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레 21:10-12). 고스비 사건(25:7-13) 때의 일을 보면 아마도 레위 지파에서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비느하스일 것이다. 직접 전투에 나서지는 않아도 동일한 마음(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분)을 가진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5. 웬 왕이 다섯이나? 이 왕들에 대한 기록이 수 13:21-22에 반복되어 있다. 비교해 보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미디안 왕을 시혼의 방백, 미디안의 귀족이라 함: 미디안이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당시에는 시혼의 지배하에 있는 도시국가 형태였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시혼을 점령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전혀 힘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6. 발람을 왜 죽였을까? 비록 눈이 멀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고스비 사건의 배후이기 때문이다: 고스비 사건은 미디안과 모압이 작당하여 이스라엘을 유혹한 일인데 발람이 뒤에서 사주한 탓이다(16, 유 1:11, 계 2:14). 구체적인 과정은 잘 모르지만 그 일로 발람은 불만이 많았을 것이다. 하나님만 아니었다면 한 몫을 단단히 잡았을 텐데? 막후에서 이스라엘에게 보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김에 이런 식으로 앙갚음을 했다? 여러 사람의 추측이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7. 겨우 12,000 명으로 미디안을 다 치고 이렇게 많은 재물과 포로를 잡았다? 한 명도 안 죽고(49)?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도우셨기 때문이다: 가나안 전쟁은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 이제야 이스라엘의 손을 통해서 시행되는 것이다. 아이들까지 죽이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다. 어떤 명분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오직 하나의 예외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노아의 홍수나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보라. 인간대 인간의 싸움이 하나님대 사탄의 싸움이 되어 참혹한 결과를 빚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았다.
8.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군대를 향해서 왜 이렇게 격노하는가?
여자를 살려두었다고: 남자를 아는 여자는 그렇게 무서운가? 발람이 꾀를 내었다고 해도 여자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우상으로 이끄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얼마든지 남자들을 유혹해서 파멸로 이끌 위험한 존재들이다. 신전에서 음란하게 제사를 드리는 여사제와 같은 사람들이다. 고스비 사건의 결론은 미디안을 치라(25:17-18)는 것이었지만 천부장과 백부장들은 그런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예쁜데?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9. 이렇게 사내아이들까지 다 죽여 버렸으니 더 이상 미디안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가?
훗날 기도문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압제한 민족이 미디안이다(삿 6:7장): 미디안은 넓은 지역에 퍼져 살았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 전체를 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 미디안 족속은 모압과 시혼에 차례대로 점령당했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해서 훗날 르우벤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한다.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미디안 족속이 살고 있었다.
10. 남자와 동침한 여자를 어떻게 알아?
 결혼한 여자와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성적인 일에 연루된 여자(여사제)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어떻게 아느냐고? 아는 수가 있었겠지!

11.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 성대한 개선식을 치르고 빨리 가족을 만나야 할 텐데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 밖에서 7일간 정결예식을 치러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이 가장 중요하다. 무슨 업적을 얼마나 남겼느냐를 따지기 전에 성결한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제 삼일과 제 칠일에 정결케 하는 물(19:1-9)을 뿌리고 제 칠일에 옷을 깨끗하게 빨고서야 진에 들어올 수 있었다. 얼마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적의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도 같은 현상이다(수 5:2-9).

12. 불에 타지 않는 물건은 어떻게 정결케 하는가?

불과 물로 깨끗케 해야 한다: 피흘림이 없는 사함이 없다(히 9:22)는 원칙에 예외는 없다. 불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물이 피와 상관이 있는가? 여기서 사용하는 물은 일반 물이 아니다. '정결케 하는 물'은 재물인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재를 섞은 물이다.

13. 참전한 군인과, 여호와, 엘르아살이 전쟁 후 얻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양을 예로 들어서 각각 계산해보자.

군인은 30마리 정도(24,000분의 1), 여호와께 드린 것은 675마리(1,000분의 1), 엘르아살은 337.5마리(2,000분의 1)이다. 레위인들은 100분의 1인데...

14. 참전하지 않은 가정에는 대충 얼마나 배분되었을지 양의 경우를 예로 생각해보자?

전리품의 절반을 대충 588,000명으로 나누면 반 마리 정도 되겠다($337,500 \div 588,000 = 0.57$). 다음 전쟁에는 서로 나가려고 야단이겠는데?

15. 사로잡은 여자가 32,000 명이다. 소나 나귀도 비율대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분배했을까?

아마도 지파나 가족별로 분배하면 가치를 따져서 선택하지 않았을까?

16. 전리품 분배에 대한 수치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이 기록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며,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내용이 이렇게 낱낱이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다분하다.

17. 전쟁이 끝난 후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군대 장관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는가(48-50)?

하나님께 감사: 아무도 죽지 않은 것에 감사하여 목숨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50절의 '속죄') 그래서 명하지도 않은 예물을 기꺼이 가져왔다. 16,750 세겔은 약 190 Kg이다.

민수기 32장

1.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다른 지파보다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다는 것이 이상하다. 지난 번 전투에 참가한 인원이 더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된 걸까?

출애굽 때 이미 많았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출 12:38, 17:3): 혹독한 노예생활이나 광야생활에서도 자기 가축을 기르고 늘리는 재주는 남달리 있었던 모양이다. 같은 여건 속에서도 재산을 더 많이 소유하는 재주는 재주 중에 귀한 재주다. 정당한 방법과 남다른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너무 무신경한 것도 잘하는 일은 아니다. 무소유보다 잘 쓰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다.

2. 가축이 많은 지파가 가축을 기르기 좋은 땅을 보더니 그만 여기 머무르겠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가지 않고 그런 욕심을 부려도 될까?

땅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라면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지 않았는가!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가에 달렸다. 조건부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훗날 고생도 많이 하게 된다. 사사시대 암몬 족속이 이 땅을 빼앗으려고 입다와 싸우게 된다(삿 11-12). 외부의 침입이 있으면 먼저 수난을 당했고(삼상 11 장, 왕상 22:2-3, 암 1:3) 이스라엘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피난처 역할도 하게 된다(삼하 2:8-9, 17장). 그러다가 앗수르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땅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진다.

3. 두 지파의 말을 듣고 모세가 무척 놀란 증거는 무엇인가?

말이 엄청 많다(6-15): 놀라서 속사포처럼 퍼붓는다. 자칫 잘못되면 내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4.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말에 모세가 펄쩍 뛰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재판이라고 생각한 탓: 40년이나 광야를 헤매다가 간신히 원위치에 돌아온 셈인데 또? 자라 보고 놀란 사람이 술뚜껑 보고 놀라는 격이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

5.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구사항이 40년 전 사건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려는 것과 적에 대한 두려움이 없음: 40년 전 사건은 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하였지만 지금은 여호와를 버리려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땅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을 뿐 두려워할 적도 없다.

6. 모세의 책망에 대해서 두 지파가 제시한 해결책 두 가지는 무엇인가?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 강 서편의 땅을 가지지는 않겠다.

7. 빨리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를 짓고 성읍을 건축하려면(16-17)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새로운 성읍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점령한 성읍들을 보수해서) 가족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한 후에 함께 요단을 건너겠다는 뜻이다.

8. 가인이 아무도 모르게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창 4:10)는 것이다. 목격자가 없는데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를 모세의 말에서 찾는다면?

죄가 죄지는 사람을 찾아내기 때문(23):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므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의 경우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말이다.

9. 모세는 조건부로 두 지파의 요청을 수락한다(20-23). 이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행한 약속이기 때문: 이 짧은 조건 속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여섯 번이나 나온다. 그 중에 네 번은 두 지파와 직접 관련이 있다. 본래부터 착한 사람과 하나님 때문에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 누가 더 복될까? 단 짓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차마 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10.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을 성읍들에 두고 남자들이 다 강을 건너가 버리면(27) 어떻게 될까?

위험해서 안 된다: 실제로 군사는 1/3 정도인 4만 명이 건너간다(수 4:12). 원래 군대를 운용할 때 1/3은 싸우고 1/3은 대기 혹은 교대 병력으로, 1/3은 수비를 담당한다. 참고로 26장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르우벤 지파는 43,730, 갓 40,500 으댓세 반 지파는 26,350 명이다.

11.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니라’ 이 말(30)은 이상하다. 건너지 않는데 어떻게 땅을 쥐?

그들이 원하는 땅(강을 건너기 전의 땅)을 주지 말라는 뜻이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도 않은 채 강 동편 땅을 차지한다면 민족적 분열을 피할 수 없다. 다른 지파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만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면 같은 민족일 수 없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데스 바

네아 사건의 재판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12. 두 지파가 열심히 간청했는데 느닷없이 므낫세 반 지파는 뭐야(33)?

이왕에 물을 변경해서 두 지파에게 땅을 주는 마당에 므낫세 반 지파가 그만한 공로가 있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 열결에 땅을 얻은 것 같지만 자다가 일어나 받은 것은 아니다. 열심히 싸운 탓이다.

민수기 33장

- 출애굽의 노정은 모세와 아론이 관할한 것인가(1), 여호와와 명대로 한 것인가(2)?

둘 다: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다. 겉으로 보기에 모세가 인솔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일치하는 때가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상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천지창조만 빼고). 사람을 만드신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과정을 보라! 여인이 없으면 못 보내실까?
-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습을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단다. 애굽에서 쫓겨 나왔다고 하던데(출 12:39) 큰 권능으로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출 14:8의 '담대히'는 '손을 높이 들고'란 뜻이다)

당당하게 나왔다: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하는 바람에 은, 금 패물과 의복을 많이 받아서 나왔다(출 12:35-36, 11:2). 쫓겨나와도 이렇게 나오는 방법도 있다. 한 쪽에서는 장례를 치르고 한 쪽에서는 손을 높이 들고 감격하며 나갔다. 그걸 보며 이를 갈다가 다시 추격해오는 바람에 수장되고 말았다.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이다.
-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누구를 심판하신 것인가?

애굽 사람들, 바로, 그리고 애굽의 신들(4, 출 11:12):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던 나일강, 개구리 형상의 여신, 각종 짐승 모양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 9번째의 흑암은 애굽인들이 섬기던 태양신 Ra(따라오는 태양의 아들)에 대한 심판이다.
- 출애굽의 여정을 몇 단계로 나누면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까지(3-15) 약 1년 여(시내 광야에서 11개월 가량 머무름), 시내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갔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까지(16-36) 약 38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37-49) 일 년 가까이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에서는 이런 구분이나 사건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나간 41개 지역의 이름만 단순하게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지명만 나열해도 충분히 감동적이다. 이와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역사를 서술한 성경은 어느 성경일까?

역대기의 족보: 조상들의 이름을 나열함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다. 본문은 지명을 나열함으로 광야 40년을 요약, 회고하는 셈이다. 지나간 40년의 온갖 회로애락이 담긴 글이다. 우리에게 지루하기만 한데? 제대로 즐기려면 배워야 한단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읽는 것이 즐겁다.
-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이 현재 어디인지는 대부분 알 수 없다. 본문의 지명중에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장소는 어디인가?

은혜를 체험한 곳: 하히롯(홍해를 건너, 비하히롯은 하히롯의 입구한 뜻), 마라(쓴 물을 달게 함, 여호와 라파), 신 광야(안나와 메추라기, 출 16장), 르비딤(맛사, 므리바, 반석을 쳐서 물을 냄, 아말렉과 싸워 이김, 여호와 닛시), 시내 광야(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됨)
- 은혜를 체험한 곳보다 원망하고 불평한 곳이 훨씬 많다. 몇 군데나 있을까?

원망하던 곳: 하히롯(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마라(물이 쓰다고), 신광야(떡이 없다고), 르비딤(물이 없어서), 시내 광야(모세는 죽었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기브롯하다아와(고기가 먹고 싶어서, 탐욕의 무덤, 11:31-34), 하세롯(12장,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
- 광야 생활 중에서 받은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받은 것이다. 그런데 왜 가데스 바네아가 보이지 않을까? 12:16과 13장을 참고해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짚어보자.

릿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세롯에서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고 벌어진 사건이다(12:16). 릿마가 가데스 바네아이거나 인접지역일 가능성이 크다.
-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은 정월 15일인데(3)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정월 14일이다(수 5:10). 아론이 사십년 오월 일일에 죽은(38) 다음 정월에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40년만인가?

만 40년: 그러니까 38절의 '사십년'이란 표현은 '40년째'란 뜻이다.
-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거민, 석상, 우상, 산당을 제거하는 것: 이들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신 것은 오래 전의 일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창 15:16). 자기 백성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멸절된 가나안 백성들을 죽이고 쫓아낸 것이 아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심판받을 짓을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심판하는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도 교훈을 받지 못할 만큼 가나안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족속이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각종 우상을 섬기는 대신, 혹은 범신론에 빠져 있을 때 유독 이스라엘만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많은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비뽑기,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제비뽑기는 개인적인 노력이나 욕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래야 하는 걸까? 바탕에 그런 정신이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은 옳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이스라엘이 일군을 세우거나 땅을 차지하는 일마다 제비를 뽑은 것은 아

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다.

11. 만약에 몰아내야 할 그 땅 거민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들이 당할 심판을 이스라엘이 대신 당하게 된다. 사사시대에 반복해서 이방족속의 압제에 시달리게 된 것이 바로 그 예다.

[참고]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은 완전하지 않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 (BC 850 년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산을 잃어버렸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지나간 지 20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엘리야 이후 시내산을 잃어버린지 1400년이 지난 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AD 527) 로마교황청이 명백한 근거도 없이 순례자들을 위해서 시나이 반도의 무사산(예벨 무사)을 시내산이라고 선포하고 캐서린 성당을 지었다. 그 이후 전통으로 굳어버렸다. 지금의 시내산 앞에는 200만은커녕 만 명이 머무를만한 공간도 없단다.

민수기 34장

1. 잘 모르는 지명에 인명까지 곁쳤으니 읽기에는 별로다. 반드시 지도를 확인하면서 읽어야 한다. 국경선이나 지역의 구분은 대체로 강이나, 계곡, 산맥, 사막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남편 경계는 어떤 요소가 나타나 있는가?

바다(염해), 언덕, 광야(신에서 가데스 남방) 시내, 바다(지중해) 남쪽 경계를 한 마디로 하면 신 광야다. 신 광야가 에돔과 경계를 이룬다. 이 구분은 경작지와 불모지의 경계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염해(사해) 끝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아그랍림 언덕 남편, 신, 가데스 바네아 남방, 하살아달, 아스몬, 애굽 시내, 바다까지다. '돌아서'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온다. 두 번이나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지형을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2. 서편 경계는 왜 이렇게 간단할까?

바다니까(지중해).

3. 북편 경계는 서에서 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중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역은 하맛어귀 정도다(호르산은 알 수 없음). 하살에난으로 추정되는 지역도 지도에 나타나므로 꼭 확인해두기 바란다.

우리가 아는 지역보다 훨씬 북쪽! 시돈, 두로(이상은 페니키아), 다메섹(아람)을 다 포함하는 지역이다. 넓은 지역을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하셨지만(7-9)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 지역을 전혀 점령하지 못했다. 다윗, 솔로몬 때에 잠깐 영향력을 발휘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주셔도 순종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한다.

4. 동편 경계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면서 설명하고 있다. 잘 보면 뭔가 빠진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제외됨이기에 **때문에(13-14) 그들이 이미 차지한 땅은 여기서 제외되었다**: 고네렛(지금의 갈릴리) 동편 해변, 요단, 염해로 이어지는 경계선은 쉽게 말하면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다. 요단 동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스밤, 리블라는 하살에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땅으로 추정된다. 그런 다음 9번처럼 고네렛 남단으로 꺾어져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5.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한 땅은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창 15:18)다. 그 약속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과 비교하면 어떤가?

남쪽 경계는 동일하지만 북쪽 경계는 많이 줄어들었다(왕상 4:24, 답사와 하살에난의 위치를 확인 바람): 그래도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넓은 땅이다. 이스라엘의 순종이 약하고 믿음이 줄어들면 하나님의 주시는 땅도 줄어든다. 그 넓은 땅은 아브람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모세를 통해서 거듭거듭 약속하신 땅이다. 그냥 밀령 주시면 되지 꼭 그렇게 싸워야 할까?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했을까? 사람과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6. 아홉 지파 반과 두 지파 반을 합치면 몇 지파인가?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는데?

12 지파?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 에브라임 지파로 갈라져서 결국은 전체는 13 지파가 된다. 땅을 분배할 때는 12 지파: 레위 지파가 빠지듯이 필요에 따라 12지파로 조정된다. 계 7장에서 단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들어온다.

7. 17-29는 말하자면 토지분배위원회의 명단인 셈이다. 위원장은 엘르아살, 부위원장은 여호수아다. 위원은 각 지파의 대표다. 몇 명인지 헤아려 보지 말고 짐작해보자. 그 중에 누가 나이가 제일 많을까?

10명: 9지파 반의 대표니까! 여호수아와 갈렘은 다른 족장들과 세대가 다르다.

8. 갈렘은 그나스 사람이었다(32:12, 수 14:6). 그러니까 본래 유다 사람이 아니다. 귀화해서 유다 사람이 된 갈렘이 어떻게 가장 막강한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었을까?

혈통보다는 신앙이 우선이었다: 온갖 학연, 지연, 인맥으로 엮인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되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9. 어떤 지파는 족장을 택하고 어떤 지파는 족장의 아들을 택한 것인가?

아니다. 모두 족장이다: 가령, '단 자손 지파의 족장 요글리의 아들 북기'에서 '단 자손 지파의 족장'과 '요글리의 아들 북기'는 동격이다. 이하도 마찬가지다. 족장 다음에 심표를 찍어주면 오해가 없는데...

10. 지파별 족장을 소개하는 순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대체로 이들이 차지한 지역의 순서를 따랐다(남쪽에서 북쪽으로). 훗날 제비뽀아 얻을 땅이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셈이다. 제비는 사람이 뽀지만 담은 하나님의 의중에 있음을 잘 보여주는 셈이다.

민수기 35장

1.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란 말은 이미 여러 번 언급된 말이다(22:1, 26:3, 33:50). 같은 말을 굳이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일종의 문단나누기인 셈이다: 이곳에서 6개월 이상(40년 5월 - 41년 1월 10일)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지막 준비를 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말씀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듯하다. 인구조사(26), 가나안 정복계획(33), 레위인 성읍(도피성 포함, 35)에 대한 새로운 말씀이 있을 때마다 이런 표현이 반복되었다.

2. 레위인들에게 주는 성읍을 처음부터 따로 주지, 왜 각 지파가 얻은 땅에서 떼내어 주라고 하시는가?

일정한 지역이 아니라서: 레위인들은 흩어져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을 주지 않았다. 지파별로 분배된 넓은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재분배할 때에 그 지파 내에 거주하게 된 레위인들에게 성을 배분하라는 것이다.

3.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말라고 하시더니 여기서는 주라고?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거주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터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은 생산을 위한 것이 주목적이지만 레위인들에게는 거주하기 위한 땅을 나눠주었다. 성읍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함이고, 들은 가축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세상은 '무소유'를 존경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성직을 맡은 레위인들에게도 이런 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4. 레위인들이 차지하는 들의 면적에 대한 4, 5절의 설명은 중복일까? 개역성경의 난외주나 다른 번역본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자.

원문상 4절의 '2천 규빗'은 '일천 규빗'을 뜻한다. 4절과 5절이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번역을 그렇게 한 모양이다. 성읍의 크기를 무시한다면(고대에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보고) 성읍에서 일천 규빗 거리의 사각형의 들이라면 한 번이 대략 2천 규빗이 조금 넘는다. 그래서 4절의 '일천 규빗은 성읍에서 들의 끝까지의 거리, 5절의 '2천 규빗'은 정방형 들의 한 번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5. 48 성읍을 12지파별로 나누면 한 지파당 평균 4개의 성읍을 도로 내주어야 한다. 얻은 땅의 비율로 내는 것이 타당하다. 레위인들의 성읍이 전국에 이렇게 골고루 퍼져있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오늘날 교회가 지녀야 할 어떤 측면과 닮았을까?

효과적인 선교: 모인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 복음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닮았다. 믿는 성도들이끼리끼리 모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역, 직장에 속하여 빛과 소금의 구실을 해야 한다. 소금이 녹지 않고 뭉쳐 있으면? 흩어진 레위지파는 알맞게 녹은 소금인 셈이다.

6. 거의 대부분의 나라마다 소위 거룩한 곳이나 신성불가침의 장소(삼한의 소도)가 있어서 범죄자들이 그리로 도망을 가기도 한다. 도피성이 이런 곳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고의로 살인한 자에게는 도피성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거룩한 곳은 장소 자체가 거룩해서 범죄자의 죄가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잡아낼 수 없지만 도피성은 장소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서 실수로 살인한 자(11) 외에는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다. 재판을 해서 실수가 아니라고 판정이 나면 도피성이 그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7. 요단 이 편에 9지파 반이 거주하고 저 편에는 2지파 반이 거주하는데 각각 3개의 도피성을 둔다면 불공평하지 않을까?

도피성의 갯수는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가 도피해야 할 거리에 따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란 것은 이론이 아니다. 배려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따지는 실수라고는 해도 살인한 자를 이렇게까지 배려하시는 분이시다.

8.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이 있다.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어떤 점에서 그런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할 일이기 때문이다: 우선 급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는 7년이 걸린다. 그나마 완전하게 다 끝내지도 못한다. 그런 일을 앞에 두고 그 이후의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이후의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9. 보수(報讐)할 자란 보복, 혹은 복수하는 자란 뜻이다. 이 말이 어떤 경우에는 '구속할 자' '기업무를 자'라고 번역이 된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어떻게 복수라는 의미가 있는 걸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다: 원래대로 회복시킨다는 의미에서 '기업무를 자' 혹은 '근족'으로 번역된다(원어는 고엘). 팔아먹은 땅을 다시 사서 원소유자에게 되돌리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의미가 있다. 살인한 자가 보수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도피성은 곧 죽을 죄인을 살게 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10. 살인죄를 규정할 때 칼을 어떻게 잡았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칼날이 손의 위쪽으로 향하도록 잡았다면 실수의 가능성이 있지만(다른 용도로 칼을 쓰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고, 사람을 찌르기에는 불편한 모양이므로) 칼날이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잡았다면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이 틀

림없다고 한다. 본문에서는 어떤 경우가 실수가 아니라고 하는가?

도구가 철 연장이나, 사람을 죽일만한 풀이나 나무 연장을 사용한 경우, 동기가 미움이나 원한인 경우, 기회를 노린 경우:

11. 어떤 경우가 실수로 살인한 경우가 되는가?

원한이 없고, 기회를 노린 것이 아닌 경우(보지 못한 채 들을 던진 경우는 바로 이런 예에 해당함)

12. 고의가 없이 살인한 사람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가?

거주지가 도피성으로 제한된다(25-28).

13.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감금이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가?

대제사장의 죽음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면 속전을 내고 돌아간다(32). 죽어야 할 인생이 누군가 대신 죽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다. 온 백성의 속죄 사역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살인자의 피값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넘지시 보여준다. 그런 경우에만 속전이 효력이 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없다면 속전도 무용지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예물, 헌신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보여준다.

14. 고살자는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말이다.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취방죄와 공통점이 무엇인가?

의도적인 것: 고의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나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15. 살인자가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을 받아도 도피성에서 나가면 안 된다. 용서받은 죄인이 거할 곳은 도피성뿐이다.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고 보면 좋을까?

용서받은 우리(성도)가 안전하게 거할 곳은 예수님뿐이다.

16.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이란단다. 하나님께서 왜 땅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거하기 때문이다(34).

17. 피가 땅을 더럽힌다? 흡수되거나 묻히면 표가 안날 텐데? 그렇게 더럽혀진 땅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또 다른 피를 흘려야 한다? 그러면 더 더러워지는 것 아냐?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죄를 속하려면 또 다른 죽음이 필요하다.

민수기 36장

1. 딸이 기업을 상속받는 일이 슬로브핫의 딸들에 관한 문제인가, 길르앗의 문제인가?
요셉 자손 지파(5)의 문제: 슬로브핫의 딸들은 답답할 이유가 없다. 길르앗 자손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 문제가 제기된 것은 므낫세 지파였다. 결국은 모든 지파에 적용되는 새로운 판례가 되었다. 딸이 낳은 자식이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이어가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2. 두령들이 말하는 ‘우리 주’(2)가 누구야?
모세: 모세를 이렇게 부르면 당대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후대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세만 크게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어떤 인간이 더 위력을 발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목사들이 많은 것 같더라!
3. 딸에 대한 상속을 말씀하실 때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완벽한 규정을 주시지 않고 여기서 보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상대로 하신 일에는 꼭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도피성을 6개 세우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어느 성읍이라고 지정은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에 따라 사람들이 지정했다(수 20:7-8).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사람이 순종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차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한다.
4. 딸이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일종의 특혜인 셈인데 특혜를 받으면 약간의 제약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무슨 제약인가?
 결혼 대상자는 반드시 같은 지파이어야 한다. 큰 제약은 아닌 듯하다.
5. 곧이 회년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땅이 원소유자에게 돌아오는 회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는 가혹한 마음이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기업을 지킨 나봇도 있지만 후대에는 이런 땅을 다 잃어버린다. 이런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6. 여기서 기업을 지키는 일이란 땅의 소유권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후손과 땅이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서 주신 땅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파 간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도 안 되지만 개인 별로 얻은 땅도 합부로 남에게 넘겨줘서도 안 된다. 혹시 팔았더라도 회년이 되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것이 인간의 끝없는 소유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하는가! 하나님은 권력이나 재물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7.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는 것(10)은 뭘 어쨌다는 말일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 시집을 갖다는 말이다. 기업을 보존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말이다.
8.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이 말은 민수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이다. 그것도 여러 번 반복된 말이다. 그럼에도 민수기의 저자가 모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어떻게 생각할까?
 모세의 권위를 빌리려고 의도적으로 넣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이라는 얘기다. 이런 부분은 거짓말이지만 다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예수님을 3대 성인 중의 한 분이라고 하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를 말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분이 하신 말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